

속초시 어로민속지

장정룡 저



1997
속초문화원

속초시 어로민속지

장정룡 저

1997

속초문화원

속초시 어로민속지

목 차

□ 발간사

제 1장 속초의 역사적 배경

제 2장 속초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

제 3장 속초의 어로행정 및 마을개관

제 4장 속초 어로민속의 실체

제 1절 어업력과 어촌세시

제 2절 어로신앙과 어촌제의

제 3절 어로활동과 어로기술

제 4절 어로도구와 어업용어

제 5절 어로관습과 금기습속

제 6절 어촌의례와 의식주생활

제 7절 어촌설화와 어로민요

□ 글쓴이 후기

□ 속초시 옛지도와 그림

□ 속초시 어촌과 어로사진



발간사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문화유산의 해’를 마감하면서 속초시 향토민속자료로 어로민속지
를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속초는 오랫동안 어
항으로 각광을 받아왔기에 어촌지역의 민속은 속초문화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정룡 교수가 10여년간 조사한 자료를 집대성한 책자를 속초문화
원에서 발간한 것은 앞으로 속초의 향토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
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속초는 21세기 환동해권시대의 중추도시로서 활발한 발전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문화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여, 지역의 정신적 구심체를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
니다.

속초의 어로문화는 토착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그것은 이곳에 터잡과 살았던 선조들이 남긴 토착어로민속과
6.25이후 월남한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이주어로민속이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속초의 어로민속은 전통적인 것과 함께 이주민 어로민속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총
적이고 삶의 내음이 강한 속초지역의 어로민속이 이번 기회에 잘 정
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문화원에서는 어로민속지의 출간을 시작으로 지역문화를 착실
히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곧이어 향토사료관이 건립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지역문화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책자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출
신 장박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주신 속초시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속초시 어로민속지

제 1 장 속초의 역사적 배경

속초시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배경부터 다루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비록 땅속에 묻혀 있는 역사라 하지만, 글로 쓰여진 것 이상의 신빙성을 갖기 때문이다.

속초시의 선사 및 역사시대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조양동 청동기시대 유적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장사동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마제석검과 돌화살촉 6점이 발견되었고, 도문동 하도문에서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

강릉대학교 발굴단에 의해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청동기시대의 전기로 추정되는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나왔다. 조양동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속초 해안이나 호수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원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¹⁾

속초시는 부족국가시대 동해안에 존재했던 동예(東穢)땅에 속했는데 당시는 군장(君長)이 통치하던 연맹왕국이었다. 동예국은 춘천일대의 맥국과 더불어 강원의 고대사에 예맥국시대를 열었으나 초기 국가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구려에 합치게 되었다.

삼국정립시기에 속초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에 귀속되면서 익현(翼峴)에서 익령현으로 바뀌었다. 고구려는 2세기경에 함경도 동해안의

1) 강릉대학교 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30쪽

옥저를 정복하고, 4세기 무렵에는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여 신라에 침입하기도 했다.

신라는 당시 지방제도를 바꾸어 9주 5소경으로 확정하였으며 간성 지역은 수성으로 고쳐져 명주에 속하였다. 삼국시대 부족국가의 영토 확장 의지에 따른 영향으로 고구려가 물러간 후 속초지역은 신라 땅에 속했으며 이때 수성군의 일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진홍왕 12년(551)에 신라가 “고구려 10개군을 취한다”고 하였으며, 진홍왕 17년(556)에는 함남 안변에 비열흘주를 설치했다는 기사로 볼 때 550년 이후에는 신라땅에 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속초의 역사는 양양군과 고성군의 역사변천과 일정한 유관성을 갖는다. 그것은 오늘날 영토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혼란스러우나 정치 사적 변천을 고려할 때, 속초지역의 역사적 판세가 다양한 주도권의 와중에 놓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속초가 1963년 시로 승격되기까지 그 이전은 양양에 속하였으며, 지금의 장사동 지역은 간성에 속했다. 그러므로 양양과 간성의 연혁은 속초의 변천사가 되는 것이다.²⁾

따라서 속초지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후 10세기 무렵 고려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행정적 체계가 완비되면서, 현종때에는 현(縣)으로 편제되고 현령이 배치되어 구역이 확정되었다.

고려 고종 8년(1221)에는 이 지역에 쳐들어온 거란병을 방어한 공로가 인정을 받아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직위가 승격되었으나 이후 몽고병에게 항복한 때인 1257년에는 덕령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가, 원종 원년(1260)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되기도 하였다.

조선조의 건국과 더불어 속초시는 태조의 외향이라는 명분으로 태조 6년(1397)년 부(府)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으며 속초지역은 소천면에 속하였다. 동왕 16년

2) 속초시, 『東草市誌』, 1991, 42쪽

(1416)에는 속초지역을 포괄하여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바꿔 동산현을 속현으로 관장하게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이 지역은 고려때부터 거주해온 토성이 강릉 김씨, 경주 김씨, 전주 이씨, 안성 이씨, 경주 이씨, 가산 이씨, 함평 이씨 등이 있었다. 이주해 온 성씨는 울진 장씨, 나주 임씨 등이 있었고, 옮겨간 성씨는 손씨, 박씨, 하씨, 정씨 등이다.

19세기에 편찬된 『관동읍지』에 의하면 평강 채씨, 강릉 최씨, 광주 노씨, 제주 고씨, 창원 황씨 등이 새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여러 성씨가 이주해 옴에 따라 속초지역의 인구분포나 생활문화도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 후반 속초지역의 행정편제는 고종 32년(1895)에 8도제가 23부로 개편됨에 따라 간성군과 양양군으로 분할되었고 이듬해에 13도 체제로 개편되었다.

「여지도서」(1760)에 따르면 속초지역은 양양군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속초리가 포함된 소천면에는 논산리·부월리·속초리·속진리의 4개리, 도문면은 상도문리·하도문리·물치리·대포리·옹진리·신흥사 등 6개리로 편성되었다. 참고로 당시의 자료를 인용하여 위치나 남녀 인구를 살펴본다.

道門面

上道門里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二十 男三十三口女三十三口

下道門里 自官門北距二十五里 編戶三十五 男四十四口女八十二口

勿繙里 自官門北距二十里 編戶十八 男十九口女三十三口

大浦里 自官門北距二十五里 編戶三十四 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

瓮津里 自官門北距二十五里 編戶七十八 男一百七口女一百三十一口 神興寺
自官門西北間距四十里 編戶二十 僧四十九口

所川面

論山里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二十 男三十九口女五十八口
扶月浦里 自官門北距三十里 編戶十八 男四十八口女三十八口
東草里 自官門北距三十五里 編戶八十六 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東津里 自官門北距三十五里 編戶五十八 男七十九口女九十六口
以上己卯(1759)式準

상기 통계를 보면 도문면은 호구수가 205호에 남자(승려포함) 287명 · 여자 348명으로 635명이었고 신흥사의 승려가 49명이나 되었다. 소천면은 182호에 남자 256명 · 여자 374명으로 630명이었다. 이로부터 100년후쯤인 1870년경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관동읍지』에는 도문면이 185호구 628명, 소천면이 188호구 668명으로 나타난다.

이후 1887년경 발간으로 추정되는 『양양읍지』에는 도문면의 경우 5개리와 신흥사를 포함하여 6개 지역에는 173호구수에 588명, 소천면 4개리는 179호구에 591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자료는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속초리(東草里)는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호구수는 86호이며,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³⁾

이 기록을 보면 속초라는 지명은 조선조에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

3) 대한민국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편,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 소천면, 1973. 537쪽

리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묘년(1759)에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초라는 지명이 나오게 된 설화적 배경은 이 지역에 속새풀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풍수지리상 소가 누워있는 와우(臥牛)형국인데 소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조도가 마치 풀을 묶어 놓은 것과 같아서 유래했다는 견해, 영금정과 관련지어 영금정 옆의 솔산이 있는데 바다에서 포구를 보면 그것이 마치 소나무와 풀을 묶어 세워 놓은 것과 같은 형태라고하여 지어진 이름이라는 견해도 있다.⁴⁾

홍천의 속초리는 평지를 보면 지형이 풀을 베어 묶어세운 형태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⁵⁾ 속초시의 경우도 유사한 견해가 전한다. 그러나 한자어로 속초라고 부르기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선조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 궁금하다.

속초라는 지명이 신라때 향찰로 표기하면서 후대에 굳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속새'라고 하고,⁶⁾ '속새골'이라고도 발음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속새'의 새는 풀을 뜯하기도 하지만, 샛바람과 같이 동쪽을 뜯하는 말이기도 하다. 『여지도서』에 속초리와 함께 쓰였던 속진리(東津里)의 경우를 보면 나루를 뜯했으므로 현재 수복탑과 등대 부근의 '새쪽' '마을로 추정된다.

한편 속초의 지리적 형국에 따라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라하므로 '소골'이라 부르다가 동쪽을 뜯하는 '새'가 들어가 '소새골'로 발음되다가 '속새골'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다만 추정이 그칠 뿐이다.

일제무렵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커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도천면(道川面) 면사무소가 1937년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다.

따라서 면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 이름

4)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97쪽

5)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 『강원도의 땅이름』, 1997, 188쪽

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 강원도 편, 1967, 173쪽

이면서 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⁷⁾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面勢一班)』에 의하면 1907년에 면장 1명이 있었고, 서기 5명, 면협의원(面協議員) 10명을 두었다고 한다. 당시의 도천면에는 11개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항리·상도문리·중도문리·하도문리·내물치리·대포리·외옹치리·부월리·노리·속초리였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 노리에서 도리원리·이목리·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리가 된다.

1951년 10월 양양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를 편입하였다가 1954년 다시 토성면으로 넘겼으며, 부월리에서 온정리가,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다. 속초리는 6.25이후 피난민이 이주함에 따라 5구와 6구로 늘어나고 1962년에 신흥리가 생겼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거해 속초시로 승격되었으며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바뀌었다.

또한 부월리·온정리·논산리·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으로 정하고, 노리·도리원리·이목리·척산리·신흥리를 합쳐서 노학동으로 정했으며, 대포리·외옹치리·상도문리·중도문리·하도문리를 합쳐 도문동으로 정하고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바꾸어 12개 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후 1951년 한동안 속초읍에 포함되었던 고성군 장천리와 사진리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거하여 편입되어 장사동이 되면서 13개 동으로 늘어났으며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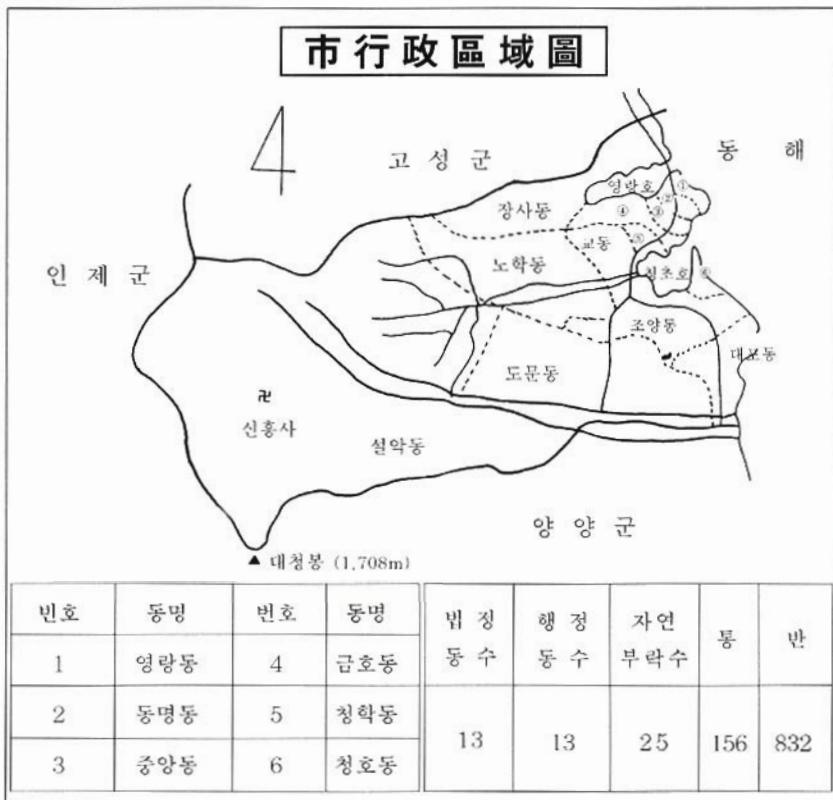
1996년에는 속초시가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 등 13개 법정동과 행정동, 24개 자연부락, 총면적 104.80km²에 25.753가

7) 주상훈, 『東草의 地名』, 속초문화원, 1990, 7쪽

구. 인구수 80,581명, 193개 통, 98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⁸⁾ 시화(市花)는 국화, 시목(市木)은 은행나무, 시조(市鳥)는 비둘기이다.

근자에 속초시는 이주민도시에서 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하여 천혜의 자연인 설악과 동해안, 영랑호와 청초호 등과 신흥사 등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의 전진기지로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어 환동해권시대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도표) 속초시 행정구역도



8) 속초시, 『시정현황』, 1996

제2장 속초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

1) 자연환경

속초시는 동해안 지역 중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명산 설악산이 있고, 동해바다와도 접하고 있다. 또한 자연 석호인 영랑호와 청초호가 신라 화랑의 유적지로 남아 있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속초시는 동경 $128^{\circ} 25'$ - $128^{\circ} 37'$ 과 북위 $38^{\circ} 07'$ - $38^{\circ} 13'$ 이며, 동해안에서 남한 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동해, 서쪽은 인제군, 남쪽은 양양군, 북쪽은 고성군과 인접해 있으며 지형적으로 서쪽은 국립공원이며, 천연보호구역인 태백산맥의 능선 해발 1.708m의 설악산과 1.327m의 마등령이 있어 서쪽과 경계를 이룬다.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지맥이 동쪽으로 달려 주봉산·청대산 등의 연봉을 이루며, 대포동·외옹치에 이르러 동해로 들어가며, 설악에서 발원한 쌍천이 양양군과 경계를 이룬다.

반면 북쪽으로는 미시령에서 발원하는 소야천이 대·소 지류를 합류하여 길이는 짧지만 기름진 소야평야를 이루고 도시의 중앙을 관류하면서 청초호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시의 북서쪽에는 미시령으로부터 동해에 이르는 크고 작은 구릉지에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서고 있으며, 동쪽으로 영랑호를 품고 동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 지형은 서쪽으로 웅장한 설악산과 쌍천·소야천 등 맑은 하천, 아름다운 호수와 더불어 동해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자연의 혜택을 듬뿍받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태백산맥이 급경사를 이루고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속초시는 동해바다와 인접하여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태백산맥에 의해 훈현상을 일으켜 기후가 대체로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띠며, 가을과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형과 훈현상으로 동일 위도상의 서해안에 비해 평균 5°C 정도 기온이 높다. 연평균 기온이 11.9°C 로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서늘한 기후로서 살기에 좋은 편이다.

그러나 쌍천과 장천, 청초천이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며 바다로 들어가면서 좁은 평지를 형성하여 농토는 적은 편이다. 하천의 하구에는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생긴 영랑호와 청초호가 형성되어 있다.

속초시의 연 강수량은 1330.1mm로 도내에서는 비가 많은 지역이다. 주로 우기인 6월에서 7월까지 605.6mm가 내려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을철에는 평균 364.8mm로 27%, 겨울철은 눈이 많이 내려 152.7mm로 11% 정도의 강수량을 보인다.

특히 겨울에는 동해의 다습한 저기압이 육지로 밀려오면서 태백산맥과 만나게 되어 많은 눈을 뿌리고 있다. 이는 전래하는 항언인 통고지설(通高之雪: 통천과 고성은 눈이 많음)과 양간지풍(襄杆之風: 양양과 간성은 바람이 심함)¹⁾의 중간지대에 속초가 놓여 있으므로 눈과 바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설악이라는 옛지명의 의미가 틀리지 않다.

설악산은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주봉인 대청봉이 해발 1.708m이다. 1965년 11월 5일 설악산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는데 인적 침해를 받지 않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호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²⁾

설악산은 1969년에 관광지로, 1970년 3월 20일에는 국립공원이

1) 高永喜, 『杆城郡 邑誌』, 1884

2) 문교부, 『천연보호지구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1967, 27쪽

되었고, 이후 1979년 12월에는 공원보호구역, 1982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설악을 『삼국사기』에는 신라때부터 명산대천에 속한 영산으로 보아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라때부터 설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에는 눈이 일찍오고,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호동서락기』에는 산봉우리가 줄을 지어 솟았고 암석의 색깔이 모두 눈같이 하얗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노산 이은상은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로 고어인 '술 미'가 변해서 설악이 되었다 하였다. 그것은 '술'이 신성·숭고·고결·생명을 뜻한다는 것이다.

속초시는 동해안을 접하고 있어 어로문화가 일찍이 발달했으며, 6.25이후 함경도에서 월남한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난민취락(難民聚落)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³⁾

속초해안선의 지형은 석호와 사빈해안인데 사빈(sandy beach)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해변이다. 해변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 조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지형이다.

속초지역의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이 많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내려온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변이 발달되어 있다.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공급원은 북쪽으로부터 고성군 토성면 용촌천과 양양 남대천이다.

속초의 청초호나 영랑호는 석호로서 바다와 격리되어 있으며 우기에는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고, 좁은 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유출된다. 파랑이 거세지면 모래가 대량 운반되어 석호의 수로가 막히고 바닷물이 유입된다. 따라서 동해안 석호의 대부분은 염분 농도가 담수호에 비해 높고 해수보다는 낮다.

3)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0, 1988, 23쪽

속초지역은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폭풍우다. 속초의 연간 폭풍일수는 16일로 많은 편이다. 겨울철에 폭풍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다. 특히 4월과 5월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태백산맥의 지형적 원인과 기상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속초는 태백산맥과 동해가 가까이 있으므로 국지적으로 바람의 이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고 골짜기를 따라 바람이 집중되어 강한 폭풍이 생기는데 어촌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기상현상이다.

2) 문화적 배경

속초시는 전국 제일의 명산인 설악산과 9.4km의 청정해역인 동해바다, 청초호와 영랑호, 척산 온천 등이 영북 제일의 관광권역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속초시는 최근 활발한 개발의 영향으로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설악과 동해안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각종 위락시설과 관광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의 고유문화가 변화되는 단계에 놓여 있다.

더욱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피난온 난민들이 형성한 문화가 섞이면서 고유색을 지닌 속초의 문화는 날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역사·지리적으로 고성과 양양의 중간문화, 변경문화를 형성해 왔기에 문화적 전통성을 찾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는 조양동 청동기 유적발굴로 입증된 바 있듯이 오래 전부터 문화적으로 기반이 충실히 조성된 곳이며, 나름대로 문화

유산이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⁴⁾

신흥사의 불교문화, 해안지역과 호수주변의 고고문화, 설악준령의 산간문화, 동해안의 해양문화 등으로 민속문화의 형태는 다양하게 잔존되어 있다.

현재 속초시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4건, 강원도 지정 7건이며⁵⁾ 국립 공원 1개소,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다.

(도표) 속초시 문화재 종별 및 현황

구 분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자
국가지정	보물	제433호	향성사지3층 석탑	1966.8.25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 보호지구	1965.11.5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51호	설악동소나무	1965.11.5
국가지정	사적지	제376호	조양동선사 유적	1992.10.6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사극락 보전	1971.12.16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경관	1971.12.16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85호	도문동김종우 가옥	1985.1.17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보제루	1985.9.13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7호	신흥사	1984.6.2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64호	도문동 김근 수가옥	1985.1.17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	1991.2.15

4)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9쪽

5) 속초시, 『속초연감』, 1995, 117쪽

오늘날 속초의 어로민속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나가면 분단문화, 난민문화라는 고착된 개념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통일문화를 선도하고, 토착문화를 선양하는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방법론적인 모색으로 속초의 어로문화를 민속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통적 삶의 형태가 지역문화에 영향을 끼친 내용을 미세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민속지적인 작업으로 속초문화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창조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속초시는 나날이 진행되는 신도시 개발과 어로인구의 감소 등으로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으므로 시급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검토할 때 어로민족은 충분한 역사적 기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방이후 함경도 어로문화를 수용하여 50년대 이후부터 문화절충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속초의 해양문화와 어로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내용기술을 통하여 속초어로문화를 학술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속초주민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친 어촌민의 생활 모습은 오늘의 시점에서 1920년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를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속초문화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킴은 물론이고, 속초문화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창조적 속초문화를 건설해나가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통일문화를 선도하고 환동해권의 중심지역으로 지역 정통성을 수립하고 지역문화를 선양하며, 자치시대 소득층족도시, 정주해서 살고 싶은 관광문화도시로 바꾸어 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장 속초의 어로행정 및 어촌개관

1) 어로행정

속초시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은 전체 13개 동중에서 영랑동·동명동·청학동·조양동·청호동·대포동·장사동·중앙동·금호동 등 9개 마을이다.

속초의 어촌면적은 104.96km²이며, 어항은 모두 4개소로 항만청 지정항 1개소, 수산청 지정항 1개소, 소규모 어항이 2개소이다. 어장은 속초에서 울릉도 120마일(어선평균시속 10노트로 12시간 소요), 속초에서 340해구 그리고 대화퇴 340마일(어장도착 소요시간 34시간)이다. 이들 어촌을 감싸고 있는 속초항은 제1종항으로 동경 128도 1분 1초, 북위 38도 12분 25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선 총 9.4km, 항내의 수면적 1.362.000m²를 보유하고 있다.

속초항은 1905년 연해 항로가 처음 개설되어 연안 선박의 기항지로서 성행하였으며 천연의 입지 조건이 양호한 항구로 1942년 속초읍으로 승격하는데 기여하였다.

1925년 (대정14)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面勢一班)에 의하면 당시의 어업상황은 어선수가 100척, 호수는 전업이 323호, 겸업이 23호였다. 당시의 총 호수가 1.119호였는데 이로써 보면 28.87%가 어업에 종사했다.

어획고에 있어서 명태와 열갱이가 최고로 많았는데 정어리 1.485 원, 고등어 2.15원, 명태 29.689원, 칼치 150원, 미역 2.128원,

상어 70원, 청어 12.325원 열갱이 29.689원이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나자 정어리 기름을 짜는 공장도 생겼을 정도로 당시 해안 곳곳에는 정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기름을 짜서 활용하기도 하고, 청어도 많이 잡혀 청초호 안에서 그물을 놓아 밤새도록 고기를 펴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많이 잡혔던 정어리가 제2차 세계대전(1931)이 일어날 무렵 일본이 패전할 징조를 보였는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사진]속초항 전경(1938년)



1937년경부터는 청초호 안에서 굴양식을 했으며 1944년경 다케나카(竹中) 통조림 공장도 생겼으며, 꽁치 통조림을 만든 부월리의 무라타(村田)공장, 어비(魚肥)와 어유(魚油)를 생산한 하마타(濱田)공장 등이 있었다. 또한 일본인의 고등어 통조림 공장도 있었는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해방후 1955년 12월 2일 묵호지방해무청 속초출장소가 개소되어 동년 12월 12일 속초항이 개항되었으며, 1966년 11월 8일 속초항 관할 축항사무소를 개소하고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8호에 의거하여 국제항으로 지정되었다.

속초시 수산세력 변천사를 보면, 1958년 속초수협에 속한 배는 456척이었으며, 1962년에는 어가가 3.831호, 어민 5.873명, 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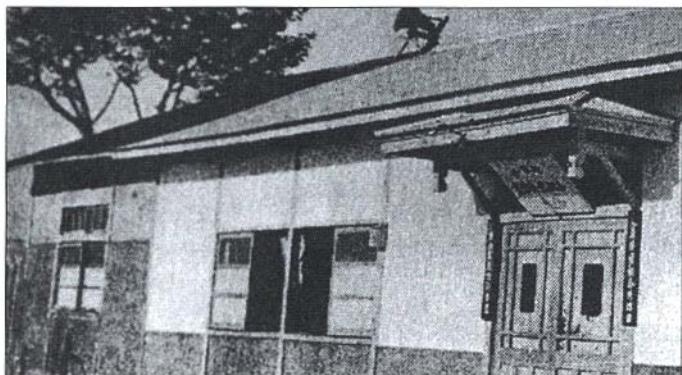
물 생산은 3.8873톤, 어선보유 척수는 811척이었다.

10년후인 1972년에는 어가 6.179호, 어민 32.224명, 수산물 생산 29.479톤, 어선 보유 851척, 1982년 어가 3.098호, 어민 15.383명, 수산물 생산수량 37.773톤, 어선 척수 765척이었다.

또한 1974년에는 885척으로 늘었고, 1989년에는 721척으로 다소 줄어 들었다. 속초시 개칭 30년후인 1992년에는 어가 1.854호, 어민 7.369명, 수산물 생산 26.9814톤, 어선 보유 623척이었다.

따라서 속초항이 1962년 4월 27일 지정항이 되고나서 1992년 12월까지 동해안 주요어항으로 개발된 30년의 추세를 보면 어가는 52%감소, 수산물 생산은 5.9배 증가, 어선보유 척수는 23%감소했으나 척당 평균 톤수는 0.97톤에서 40.1톤으로 41.3배, 마력수는 척당 9Hp에서 174Hp로 33배나 증가하여 생산증대에 기여하였다.¹⁾ 속초시 수산협동조합은 1920년 3월 26일 도천면 어업조합으로 발족되었고, 1953년 6월 7일 속초어업조합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4월 1일 속초어업협동조합이 발족되었다. 1977년 4월 1일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속초어업조합



이 조합은 어민자주와 협동조직을 통해 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원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지도사

1) 속초시, 『市政 30年史』(上), 1994, 712~713쪽

업, 생산지원, 유통지원, 금융지원의 기능을 갖는다.

현재 조합의 조직은 비법인어촌계 5개와 법인어촌계 1개로 나뉜다. 비법인어촌계에는 장사동, 영동(영랑동과 동명동), 중호(중앙동과 금호동), 청교(청학동과 교동), 청호어촌계 등이며, 법인어촌계는 대포어촌계로 내물치·외옹치·대포리가 속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속초시 수산인구는 7,369명, 어촌가구수는 1,982호, 조합원수는 822명이다.²⁾

속초의 수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출장소는 1955년 12월 1일 Mukhojibanghaeumukchung 속초출장소로 출발하였으며, 1961년 10월 2일 Mukhojibanghaeunuk 속초출장소, 1973년 5월 16일 부산항망관리청 Mukhohangman管理사무소 속초출장소, 1976년 3월 13일 Mukhojibanghangman관리청 속초출장소, 1977년 12월 16일 Mukhojibanghaeunhangman청 속초출장소, 1980년 5월 6일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속초출장소, 1997년 5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출장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주요업무는 해운에 관한 것으로는 선원행정 및 근로감독, 선박등록 및 검사, 해상교통안전이 있고, 항만운영에 관한 것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개항질서 및 항만오염방지,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관리를 하고 있다.³⁾

속초항과 인접항은 동해안에 있어 북쪽에는 거진항, 남쪽에는 주문진, 북호, 삼척, 죽변, 후포, 강구 등의 어항이 약 40~60km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로 잡히는 어획물은 명태·오징어·꽁치·노가리 등이다.

어선은 원양어업, 기선저인망트롤, 오징어채낚기, 잠수기, 정치어업, 명태자망연승, 계통발, 기타 연안어업으로 나뉘며, 항구는 1종어항, 군소어항으로 나뉜다.

참고로 1997년 현재의 어선세력과 항만시설, 어업권 현황을 살펴면 다음과 같다.

2) 속초시 수산협동조합, 『업무현황』, 1997년 참조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출장소, 『업무현황』, 1997.7 참조

(도표) 어선세력

구 분	계	5톤미만	5~10	10~30	30~50	50~100	100톤이상
계	632	371	100	46	13	90	12
동력선	589	329	99	46	13	90	12
무동력선	4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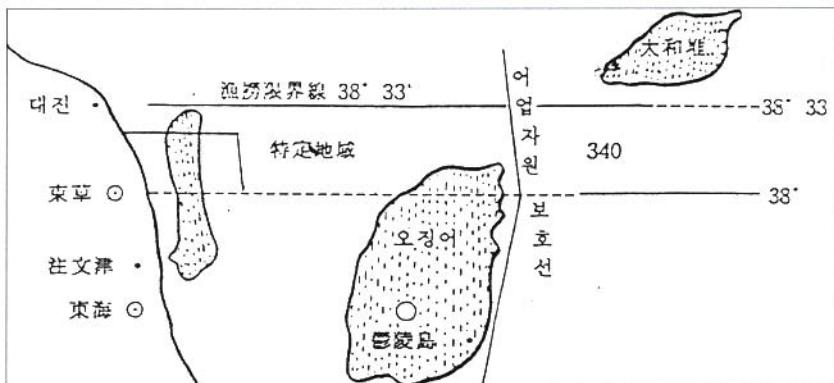
(도표) 항만시설 능력

구 分	규모(m)	접 안 능 力	하역능력(천톤)	야적장(m^2)
계	2.009	화물선:6천척 어선:600여척	843	75.810
신부두 (안벽)	917	5천DWP:2척 3천DWP:2척 1천DWP:2척	710	75.810
물양장	1.092	어선:600여척	133	

(도표) 어업권 현황

어업의 명칭	건수	면적(ha)	주요생산물	비 고
공동어업	6	575.08	전복, 문어, 성게, 해삼, 미역	각지선 어촌계이 양
정치성 구 획어업(허 가어업)	8	15	연어, 쥐치, 오징 어, 청어, 기타	삼각망 1건, 호망 7 건(어촌계 협업)
제1종 양식어업	2	50	가리비	어촌계 협업
제2종 양식어업	5	43.5	가리비(양식) 4건, 전복(양식 1건)	개인소유
정치망어업	4	103	방어, 광어, 쥐치, 기타	계대방 3건, 대부 망 1건(개인소유)
계	25	786.58		

(도표) 어장분포



2) 어촌개관

1. 영랑동(永郎洞)

영랑동은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를 4개구로 나누어 속초리 1구가 되었던 지역이다. 속초읍이 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난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시 1구가 영랑동이 되었다.

영랑동은 '삽짜개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어부들이 동쪽을 '새싹'이라고 부른 것에서 연유되며, 성황봉의 동쪽에 있다는 뜻이다.

영랑동의 유래는 영랑호와 연관이 있다. 영랑호는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석호로서 주위가 약 8km정도이다. 신라때 화랑인 영랑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겨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고려 충정왕 원년(1349) 이곡이 쓴 「동유기」에 “9월 초 8일날 영랑호에 배를 띄우고 놀았으나 날이 저물어 마음껏 구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영랑호가 “고을의 남쪽 50리에 있으며, 주위가 30여리인데 물결이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영랑 신선무리가 놀면서 구경하던 곳”이라 하였다.

이중환(1690~1752)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간성의 화담은 달이 맑은 샘에 빠진 것 같고, 영랑호는 구슬을 큰 못에 갈무리한 것 같으며, 양양의 청초호는 그림 경대를 열어 둔 것 같다.”고 하였다.

신라의 화랑으로 영랑이라는 이름이 전하는 『삼국유사』 권3, 백률사조에 “세상에서는 안상을 준 영랑의 낭도라고 하나 확실치 않다. 영랑의 낭도에는 오직 진재, 번완 만이 이름이 알려졌으나 그 역시 내력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을 볼 때 고성 삼일포와 4명의 화

랑유래에서 보이듯이 신라때 화랑인 영랑과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고려때로 이어졌는데 고려 후기 안축과 조선조때 구사맹, 이상질, 이세구, 김창흡, 이목규의 한시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도 등장하고 있다.

영랑동은 0.78km²에 1.818세대, 5.588명이 살고 있으며, 14개 통, 7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촌계는 영랑동과 동명동은 합쳐서 영동어촌계에 속하고 있다.

두 마을의 어촌계원은 영랑동 38명, 동명동 85명이다. 대부분 선주들로 구성된 어촌계는 동명동에서 89척, 영랑동 30여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통발 32척, 채낚기 32척, 자망 25척, 연승 10척, 잠수기 7척, 정치망 4척 등으로 원근해업에서 오징어, 꽁치, 명태를 잡고 봄에는 도다리, 가을에는 광어를 많이 잡는다. 전복은 양식을 주로 하지만 어촌계에 속한 15명의 해녀들이 바다에서 직접 체취한다.

2. 동명동(東明洞)

동명동은 동해바다에서 밝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고장이라는 뜻이다. 1963년 속초읍을 속초시로 승격함에 따라 속초리 2구가 동명동이 되었으며 영랑동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동명항은 비교적 큰 항포구로서 인근의 배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으며 1978년부터 15년 동안 방파제를 축조하였다.

마을에는 처음에 구씨가 들어와 살았으며 그 후에 이씨, 신씨, 김씨의 순서로 정착하였다.

이곳은 6.25이후 속초를 수복하면서 1954년 5월 10일 세운 수복기념탑이 있는데,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인해 모자상(母子像)이 부서진 것을 그해 11월 17일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른다.

수복탑위에 세워진 모자상은 북녘에 두고 온 고향을 향하는 실향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명동에는 명승인

영금정, 바닷가의 활이횟집, 보광사 등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현재 이곳의 면적은 0.78km^2 , 2.051세대, 6.2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6개 통, 8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의 고유지명은 관음암, 낚시바위, 마짜개마을, 불당골, 성황봉, 아랫말, 영금정, 오리바위, 우렁골, 웃말, 응고개, 장골, 중간말, 촌말 등이 있다.

이곳의 어촌계는 속초시 수협산하의 어촌계로 영랑동과 합쳐서 영동어촌계라 부른다. 어촌계의 상황은 영랑동 어촌계를 참고하면 된다. 동명항은 90년부터 2년간 안벽시설에 14억원, 전기 및 기타 시설에 1억, 총 5억원을 투자했으며, 93년부터 동명항내 포장공사에 4억, 기타 전기시설에 1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조성 사업 등에 6억을 투자하여 동해안 최대의 동명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명항 한 쪽 바다에는 영금정이 있는데 이 정자의 지번은 동명동 1-189번지 공유수면내 영금정 암반이다. 전체 면적은 42.98평으로 이곳에 징바우가 있었는데 한 명이나 여러 명이거나 간에 발로 차면 똑같은 징소리가 났다고 한다.

또한 파도가 석산 벽에 부딪치면 신묘한 음곡이 들려왔으므로 신령한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하여 영금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밤이면 선녀들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묘한 곡조를 즐기면서 놀던 곳이라하여 비선대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전한다.

동명동에서는 음력 5월 5일 단옷날 2박 3일동안 열 다섯마당의 풍어굿을 성대하게 치루고 10월달에도 지낸다. 대체로 매년 풍어제를 겸한 굿마당을 열고 있으며, 어민들의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요즘은 4년마다 별신제 풍어굿판을 열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마을의 성황제는 5월과 10월 지내는데, 5월은 단오날, 10월에는 택일하여 바닷가인 영금정 근처에서 소를 잡아 용왕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성황제사를 올렸으나 15년전부터는 성황당에서만 용떡을 만들어 바치고 제사를 올린다.

3. 청학동(靑鶴洞)

청학동은 1966년 동제 실시때 속초리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청학동, 다른 한쪽을 교동이라 불렀다. 청학동의 유래는 청초호가 맑아서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가서 붙였다고 전한다.

청학동은 금호동과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항만청, 해경대, 선박대, 한국통신 등이 7번 국도와 구철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이 일대와 번영로변에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청학시장은 예전에 6구에 위치했으므로 지금도 '육구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또한 금강아파트 뒤쪽의 언덕은 일명 '노가리촌'이라고도 부르는데 비교적 높은 위치이므로 노가리 생선을 말리는 건조대가 많이 설치되어 전해진 지명이다.

이는 속초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청학동 12통 일대를 일명 '울릉도'라고 불러 번영로 건너편에 따로 떨어져 있다는 별칭이 재미있다.

청학동의 면적은 0.26km^2 , 1,369세대에 4,1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개 통, 6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학동 어촌계는 속초수협의 비법인어촌계로 교동과 함께 '청교어촌계'로 불린다. 청교어촌계 주관으로 풍어제를 몇 해 걸러 열기도 하는데 어업보다는 주로 상업적인 형태로 동세가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성황당에는 사해용왕존신위(四海龍王尊神位)와 토지지신위를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중순경 택일하여 지내는 것으로 보아 바다와 육지의 중간문화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양동(朝陽洞)

조양동은 일제때 양양군 도천면 일부였으며,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때 종래의 부월리·온정리·논산리·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이 되었다. 이곳은 속초의 관문으로 고속터미널이 있고 해수욕장과 청초호를 끼고 있다.

조양동의 면적은 5.84km², 3.660세대에 11.108명이 살고 있으며 26개 통, 136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조양'이라는 뜻은 소야팔경(所野八景)의 하나인 논산조양(論山朝陽)에서 따온 것으로 조양동의 조양도 마찬가지다. 논산조양 즉 논산리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경관이 아름답다는 것인데, 아침에 밥짓는 연기가 보기 좋다하여 논산조연(論山朝烟)이라고도 한다.

소야팔경은 논산조양외에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가 맑아 거울처럼 빛남), 속초귀범(束草歸帆: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경관, 일명 조도귀범이라고도 함), 주교야화(舟橋夜火: 주교리 즉 부월리에서 바라보는 고기잡는 밤경관, 일명 주교어화라고도 함), 온정조하(溫井朝霞: 온정리의 수증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붉게 보이는 경관), 청대화병(靑岱畫屏: 청대산이 병풍을 친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 노동명월(蘆洞明月: 노리의 갈대꽃과 달빛이 어울린 경관 또는 갈대꽃이 피면 밝은 달처럼 주위가 환한 경관), 이동백설(梨洞白雪: 이목리의 배나무꽃이 흰눈처럼 아름다운 경관)이다.

이 밖에도 척산야침(尺山夜砧: 척산마을에서 옷감을 다듬이질 하는 밤의 경관), 도원홍우(桃源紅雨: 도리원리 복숭아 나무꽃이 떨어지는 것이 붉은 비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이름) 등이 더 있다.

소야팔경은 설악산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척산과 노리를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이 형성한 소야평야 주변의 여덟가지 아름다운 경관을 말한다. 이 하천을 지금은 청초천이라 부르지만 과거에는 소야천이라 하였다.

부월리는 조양동의 중심마을인데 1760년대에 발행된 『여지도서』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라 하였다. 고유지명은 반두득, 배다리, 새마

을, 연깨 등이 전한다. 부월리는 원래 주교리(舟橋里)였으며, 옛날에 주위가 호수이므로 도선장에 다리를 놓고 다녔으므로 그와 같은 지명이 생겼다.

부락이 청초호수 가까이 있으므로 초여름인 4월과 늦가을인 9월경에는 물고기와 게를 잡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불을 켜들고 나와 호수를 둘러 싸고 있으므로 불야성을 이룬다. 이러한 광경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다.

조양동의 어촌은 새마을 동쪽일부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인 항포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로관련 민속은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이곳의 민속놀이는 논산리 일대 청초호에서 배를 띄워놓고 불꽃놀이를 했던 것으로 '논뫼호(청초호) 낙화유(落火遊)'라는 놀이다. 이것은 조선조 숙종무렵 양양군으로 오는 군수인 지방관원을 위해 주민들이 청초호에서 경축행사를 베풀던 것이다.

관동팔경인 청초호에 꽃배를 띄우고 풍악을 울리며 삼 일동안 축하연을 열었는데 이때 널판지에다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기쁨을 나누었다고 한다. 이 모습이 마치 붉은 꽃이 편 바다와 같이 아름답다고하여 '논뫼호 불꽃놀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구한말때인 남궁 역 다음 군수인 최종락 때 이 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생겨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불꽃놀이를 하다가 의사사고가 났기 때문이라 한다. 이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멀리 양양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⁴⁾

속초시에서는 '논뫼호 불꽃놀이'를 재현한 바 있는데 청초호 살리기의 일환으로 불꽃놀이를 재현하고, 1999년 속초 청초호변에서 개최되는 강원관광엑스포의 중요한 호수의 볼거리로 만들면 좋을 것이다.

4) 박익훈, 『落穗集』, 1996, 118쪽

5. 청호동(靑湖洞)

청호동은 동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청초호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마을이다. 본래는 사람이 살지 않은 백사장으로 실향민들이 차츰 이곳에 몰려 들면서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인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수복 이후 북쪽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거주하여 속초리 5구가 되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청호동이라 했는데 청초호와 인접했기 때문이다. 함경도 피난민들이 많음에 따라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 마을'이라고 전체를 별칭하기도 하며, 1통은 심포마을, 3통을 여흥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사람 허리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창문과 출입구만 지상으로 내놓은 토굴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해일이 일면 마을이 훑쓸려 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피난민의 생활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분적으로 주택을 개축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마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임항지구이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아직도 도로가 협소하고 불량 노후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피난민촌의 인상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여년전 해일 피해로 방파제가 무너지고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부월리에 연립주택 400여호를 지어 집단 이주시켰다.

청호동은 현재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데 면적 0.30km²에 1.149세대, 3.6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0개 통, 5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항만에 접한 작은 반도이므로 주민의 6할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북쪽에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월남한 실향민의 70%정도가 집단 정착하고 있다.

김철수(남.41) 청호동장은 도시 계획상 임항지구로 지역발전에 규제되어 도시형성이 뒤떨어져 있으나 새 단지에는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⁵⁾

이곳은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중앙동에서 대

부분 무동력 운반선인 갯배를 이용하여 왕래했으므로 자연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청호동의 상징물인 이른바 '5구 도선장'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실어 날랐다. 아직도 함남 북청군 신창읍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갯 배 입구에는 '북청상회'와 같이 함경도 지명을 딴 가게를 찾을 수 있다.

함경도민들은 수복이후인 1958년 북청도청을 만들어 사자놀음으로 연대의식을 강화하며 통일의 날을 기다렸다. 1971년 북청사자놀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김수석 씨(1907.7.19일생)는 고향을 봄아보지 못한 채 금년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본다면 북청사자놀이의 전승은 반드시 속초시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필자가 집필한 『속초의 향토민속』(1992)에는 북청사자놀음의 전승 실태를 기록한 바 있는데, 1959년 5월 2일 속초 북청동향친목제가 결성되면서 이들이 중심되어 사자놀음을 전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44년 통계를 보면 당시 북청군민이 28만여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4만명 정도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속초에는 300내지 400가구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청호동은 1차 산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0%를 넘고 있으므로 수산가공물 공장이나 사료공장, 선박조선소 등이 있으며, 실향민 1세대와 이곳에서 출생한 3세대간의 단결을 위해 체육대회와 민속놀이 마당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청초호 개발사업과 관련지어 이곳에 정주인구를 점차 늘려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갯배를 추억의 피난민 문화로 상품화하고, 함경도문화촌을 조성하여 의식주나 돈돌라리 민요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북한문화를 교육자료화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통일의 의지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청사자놀이마당을 열어 사자탈과 놀이를 볼거리화하여 벨트

5) 1997.11.29. 필자와 대담.

화하고, 청호동 어촌문화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속초문화의 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어두웠던 피난민문화를 통일지향의 극복문화를 승화 발전시키는 길이고 속초의 자치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호동은 소야팔경 중 청호마경(靑湖磨鏡)과 관련된 지역으로 청초호가 맑아서 마치 거울을 닦아 놓은 것과 같다느 뜻이다. 따라서 청초호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속초라는 지명과 금호동, 청학동 그리고 청호동은 모두 청초호와 연관이 있다. 그만큼 청초호는 영랑호와 더불어 속초의 호수문화를 잉태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택리지』에는 관동팔경에서 양양 낙산사 대신 청초호를 8경으로 꼽았을 정도다.

청초호는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언급하기를 쌍성호라 하였다. “부의 북쪽 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고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들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만호수나 되는 병영을 만들어 병선들이 출입하였으나 지금은 동쪽이 바다와 트여 있으므로 호수 북쪽을 항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항포구의 확장재개발로 촌락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청초호는 쌍성호(雙成湖)외에도 진성호(震成湖) 또는 논뫼호라고 부르고 있으며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갈라진 것으로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던 용경(龍耕) 점세풍속도 전한다.

속초어업의 전진기지인 청호동에는 어촌계와 종성협회에 가입된 어선은 현재 163척, 어민은 370여명인데 무동력선이 1척, 15톤 미만이 149척, 15톤 이상이 13척, 연승이 54척, 유자망 13척, 머구리 배 4톤급 1척이 있고, 해녀는 15명 정도이다.

수협 주관하에 풍어제를 매년 지내고 있으며 어촌계 주관으로 성황제도 매년 지내는데 선주들이 반드시 참가하여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마을의 성황제의는 어촌계에서 제물을 장만하여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내고 있다.

6. 대포동(大浦洞)

대포동은 고유지명으로 큰 포구라는 뜻의 ‘한개’였다. 이곳은 조선조 때 도문면 대포리였으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양군에 속한 도천면 소재지로 속초지역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로 대포리·외옹치리·내물치리를 합쳐 대포동이 되었다.

대포동은 ‘해뜨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속초시의 관문이며 영북 제일의 어업기지로 전형적인 어촌이다. 최근 전국에서 활어회를 맛 보기 위해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치는 필수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계획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할 지역이다.

이곳 주민의 80%이상이 어업이나 횟집, 기타 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3.06km², 683세대에 2,284명이 살고 있으며, 5개 통, 2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1통은 내물치리, 2통에서 4통까지는 대포리, 5통은 외옹치리이다.

대포리는 ‘한개’라고 부르는데 외옹치리는 장독과 같이 생긴 마을의 안쪽마을이라하여 ‘안독재’ 또는 독재 밑의 큰 마을이므로 ‘큰독재’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속초가 1908년 도천면이 되면서 1937년까지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으므로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 일제시대에는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포구로 해양문화의 유입과 어업산물의 주산지로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문호였다.

현재 대포리 한개 마을은 680여호에 2,370여명이 살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정도이고, 농업 27%, 상업 8%, 기타의 순이다.

마을과 관련된 지명은 나무남재, 덕말, 대포꼬맹이, 도라끌, 독바우, 독재, 마산재, 청룡골, 큰 골 등이 있다. 흥미로운 지명유래는 덕말 뒷산 마산재는 말처럼 생겼는데, 옛날의 마구할미가 외옹치에서 돌을 날라다가 높이 20m정도의 봉우리를 쌓고 다시 와서 쌓다가 지쳐서 죽었다는 마구할미 전설이 전한다.

대포동 전체 어촌계원은 230여명이며 어선은 152척, 주로 자망어선이며 채낚기와 연승 22척, 자원관리선 2척이다. 이곳에서는 오징어·명태·가자미·청어 등이 주로 잡히며 해녀는 소수이고 남자 40여명이 공동어장에서 해삼이나 전복 등을 채취하고 있다.

대포리에는 처음 세 가구가 정착했는데 박기필이라는 사람이 덕말에서 6대를 살았고, 고운영이라는 이가 그 뒤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고 한다.

마을의 성황제는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내고, 3년이나 5년마다 풍어굿을 한다. 여성황당은 봉수터 봉 끝에 있고, 남성황당은 큰길 건너 야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외옹치리(外甕峙里)는 마을의 고개밖에 있는 장독과 같이 생긴 마을이라하여 '밧독재'라 부른다. 이 마을은 5통으로 4개반 68세대,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양동과 접하고 있다.

『여지도서』에는 옹진리(瓮津里)라고 되어 있으므로 300여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25사변전에는 150여 세대가 살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80여호 300여명으로 줄었다. 토박이는 40여호로 전체 주민중 80%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계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어선은 13척이 있으며 공동어장에서는 전복·홍합·성게를 양식하고, 가리비는 개인적으로 양식하고 있다. 외옹치 항포구에 활어센터를 만들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외옹치에는 성황제와 용왕제, 장승과 짐대제의 셋으로 나눌 수 있어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성황당은 봄과 가을로 택일하여 지내고 있으며 장승과 짐대는 영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다.

내물치리(內勿淄里)는 조선조 때 우암 송시열이 이곳에 왔다가 폭우로 머물게 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물치'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곳에는 물치주시(勿縕柱詩)라는 내용이 전하는데, 삼전시호인 개신(三傳市虎人皆信: 시내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을 세 번하면 모두 믿는다), 일칠군봉부역의(一 褚蜂父亦疑: 계모가 계획적으로 속옷

에 벌을 넣고 소리지르니 벌을 쫓는 아들을 아버지도 의심한다), 세상공명간목안(世上功名看木雁:나무 기러기를 만드는 데는 곧은 나무보다 구부러진 나무가 소용된다), 좌중담소신상구(座中談笑愼桑龜:좌중의 담소는 신중해야 하는데 거북이가 자기를 삶아 죽이는데 뽕나무로 불을 때야 된다고 펴뜨려서 죽었다)라 한다.

물치의 유래에 대해서 일설에는 조선시대 이곳에 거주했던 물재(勿齋) 유희일(愈晦一) 선생의 아호를 따서 불렀다고 한다.

대포동 1통마을인 내물치는 1966년 대포동에 편입되었으며 쌍천을 사이에 두고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물치를 '바깥물치'라고 하고 내물치를 '안물치'라고 구분한다. 설악산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마을을 1979년 도로가 확장되면서 고지대로 주민전체가 이주했으며 100여 세대에 전씨가 40%를 차지하는 집성촌이다.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20%정도가 상업이며 농업에 종사한다. 물치 어촌계는 40여명의 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30여척의 배를 대포항에 정박하고 있다. 공동어장에서는 성게나 전복을 양식하고 있으며, 이촌계에 속한 어선은 2.5톤이 3척, 7톤짜리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2척이며 나머지는 1톤 내외의 소형 자망어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성황제의는 음력 3월3일과 10월 초하룻날에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몇 해 걸러 풍어제를 지낸다.

7. 장사동(章沙洞)

장사동은 본래 간성군 토성면 지역이었으나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따라 생활 편의성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두 곳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이곳은 1919년 1월 1일 양양군 토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는데, 사진리는 조선조때 『간성군 읍지』에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로 기록되어 있어 이것에서 지명을 따왔음을 알 수 있다.

사야지진리는 일제때 사진리가 되었고 지금도 '모래기' 또는 '나룻모래기'라고도 불리고, 용촌리는 일제때 용포동과 사촌리가 합쳐진 것으로 '촌모래기'라 한다.

장천리는 영랑호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노루 장(獐)자를 썼으나 일제때 글 장(章)자로 바뀌었다. 이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장사동은 농업과 어업, 상업 등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형성되어 있다.

1968년 해일로 인해 238세대의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주민들이 이주 정착하였으며, 1988년 속초고등학교가 들어섰으며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바닷가에는 횟집들이 서고 있다.

장사동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차씨와 기씨인데 당시는 15세대 정도가 있었으며 6.25이후 이주민들과 현내면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가구가 늘어났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0여호 정도이며, 어촌계에 소속된 주민은 66명. 이 가운데 70%정도가 전업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반농반어이다.

어촌계는 수협 대의원이 2명, 어촌계 총대 10명, 감사 2명이며 매년 정기총회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임원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마을에는 30여척의 배가 있는데 소형어선인 자망 20척, 연승 10척인데 명태, 오징어, 가자미, 괡어 등을 잡고 있다. 또한 가리비와 전복을 공동 어장에서 양식하고 있다.

장사동은 7.07㎢, 802세대, 2.653명이 살고 있으며, 5개 통, 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지명으로는 사진리에 모래기, 강장군산, 순개, 방축개, 고바우, 고밧개, 고추골, 노적바우, 두꺼비바우, 박쥐바우, 벼리개, 뱀주박, 뽁쟁이, 서낭골, 엄달개, 형제바우, 황새, 흰고개가 있다.

장천리에는 갯벼랑, 건녕골, 골놀골, 국사봉, 노루내, 노루목고개, 던바우골, 독골, 독바우, 뒷골, 망태골, 물안골, 바우배기, 방축골, 불매앞, 샘치골, 서낭봉, 싱싱골, 안산, 여우바우골, 장재골, 치시골, 큰령골, 타앞 등이 있다.

마을의 성황제사는 매년 웃마을에서 10월 초순에 택일하여 지내고 있다. 풍어제는 5년에 한 번 정도 지낸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신앙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마을은 전형적인 어촌으로 어로풍속이 잘 남아 있으며, 어업요도 속초지역 소리로 정착되었다.

8. 중앙동(中央洞)

중앙동은 영북 제일의 상업과 금융, 수산업 중심지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1963년 1월 1일 속초시 승격후 속초리 3구라 칭했으며, 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966년 1월 1일 속초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가 승인되면서 중앙동이라 불렀다.

중앙동의 면적은 0.03km^2 에 1,367세대, 4,1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개 통, 6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동은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용이 나왔다는 소가 있어 용솟골이라 부르며, 짱치기를 많이했던 짱터가 미시령으로 갈라지는 교차로에 있다.

이곳은 상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어촌민속을 살피기는 어려우며 마을 제의는 음력 9월 중에 중·호어촌제에서 주관하고 있다. 중앙동과 금호동을 합쳐 하나의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동 지하시장은 어물류가 주종을 이를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속초수산물의 집산지로서 의미가 크다. 이곳을 중심으로 속초해산물의 상품화가 되며, 중앙시장 상권의 대부분이 어로의 풍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금호동(琴湖洞)

금호동은 조선조 때 소천면 속초리에 속했다. 이 지역은 신라 화랑도인 영랑이 놀았다는 영랑호와 청초호가 남북으로 인접하여 이곳에서 거문고 소리가 들린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고려 때 동문수학했던 안축과 이곡이 이곳에서 벗놀이를 하며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지었는데 금호동은 지명상 거문고 곡조와 호수의 아름다운 경경이 어울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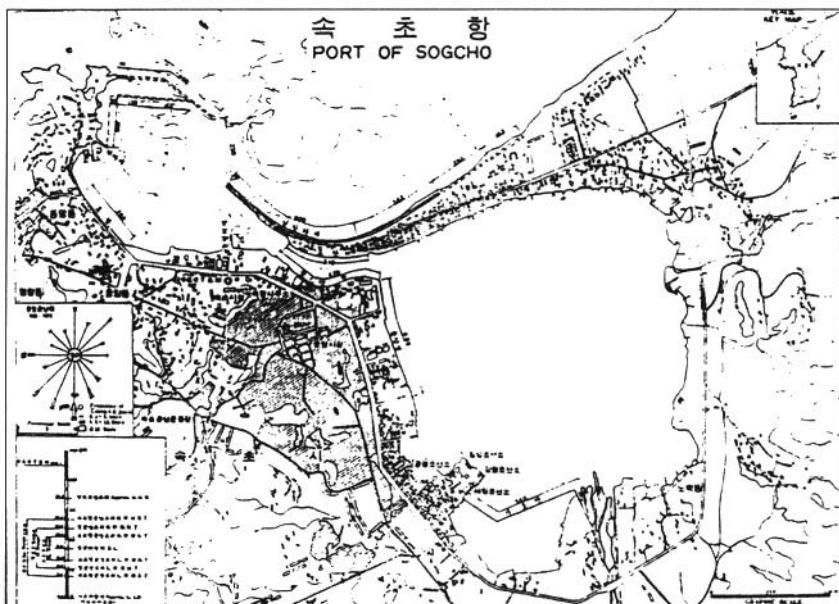
이 지역은 1942년 속초읍 속초리 4구였으며, 1954년에 4구와 6구로 구분되었다가 1963년 속초시가 승격되면서 다시 4구가 되었다. 이후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로 속초시 금호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금호동의 전체 면적은 1.13km^2 , 20개 통, 103개 반, 2.395세대, 7,373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세는 속초의 시내 중심 지역으로 상가가 밀집한 곳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상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동쪽은 중앙동과 청초호, 서쪽은 장사동, 남쪽은 영랑호, 북쪽은 청학동과 교동에 접하고 있다. 주변에는 범바위, 금장대 등이 있다.

이 마을의 성황제사는 선주협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10월중에 택일하여 지낸다. 어촌제는 중앙동과 합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도표) 속초항 구역도



제4장 속초 어로민속의 실제

한반도에서 처음 사람이 살면서 어로와 수렵활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원시적인 먹거리 획득방법으로 어로작업은 하천이나 해안에 인접한 곳에서 주로 이뤄졌을 것이다.

신석기시대에 어로작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헐암제(頁岩製) 결합 낚시 유물이 동해안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보면 속초일대에서도 일찍이 어로활동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한반도에서 어촌사회문화의 형성이 오래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생계경제와 노동형태, 의례와 식생활, 놀이 그리고 주거양식에 이르기까지 어촌은 독특한 한국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

따라서 어촌의 민속지적인 기술과 그 사회문화의 조사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한국민속학의 미개척 분야연구의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어업(漁業)과 어로(漁撈)는 구별되는 용어로 어로민속은 생업민속(生業民俗)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어로민속에서 어로는 물속에 사는 생물 즉 어류, 패류 및 조류(藻類) 등을 채포하는 것이며²⁾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업이라고 말한다.³⁾

1) 전경수 편,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집문당, 1992, 3쪽

2) 권삼문, 「어로민속」 『한국민속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집문당, 1996, 204쪽

3) 박구병 외, 『수산사전』, 형설출판사, 1994, 151쪽.

따라서 어업은 어로를 포함하는 산업으로서 포괄적 개념인데 어로는 협의의 개념으로 고기잡는 행위 자체를 지칭한다. 어로민속에는 채취를 포함하여 주술종교적 측면 신앙의례를 비롯한 어촌세시의례·일생의례, 금기속과 금기어, 사회경제적 측면인 어로환경·유통구조·노동방식, 어로기술과 조직도 포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지역 어로민속을 서술함에 있어서 민속지적 성격을 갖춘 어촌의 전승민속조사와 어로작업에 관한 구체적 조사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제1절 어업력과 어촌세시

1) 어업력

어업력(漁業曆)은 어촌의 생산력(生產曆)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촌에서 한 해 동안 수확하는 어종과 관련된 생산활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역법은 크게 천체력(天體曆)과 상용력(常用曆)으로 나뉘는데 천체의 필연적인 변화를 적은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일반생활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행사를 적은 생활력과 생산력, 의례력을 말한다.¹⁾

농사력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역법은 때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업력의 경우도 역법의 순행에 따른 생산활동이므로 어촌에서 어로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정해지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업력의 주기는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대체로 본격적인 어로활동의 시작은 농촌과 유사하게 음력 2월 초무렵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어로활동은 해당 지역과 작업방법, 어족의 회유시기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데 상반기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주로 3월부터 7월까지 네 달동안 이뤄지고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6~7개월 동안 어로작업이 이뤄지고 겨울에는 배나 그물을 손질하거나 휴식시간을 갖는다.

동해안의 경우 어업력이 서해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²⁾ 어촌

1) 장정룡, 「세시풍속의 역사」, 『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1996, 437쪽

2)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 1996, 10쪽

의 어업방식은 채취업·양식업·그물어업·수산가공업 등으로 나뉜다. 성어기의 어종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성어기 어업력과 분포

구 분	어업력	어장분포	비 고
오징어	1월~2월 6월 15일~12일	대화퇴, 울릉도, 독도, 대마도 등	금냉선 40~60일 빙장선 15~20일
명태	10월 1일~ 익년 3월	고성, 속초연안	연승, 자망 일일 조업
꽁치	4월~7월	고성, 속초, 주문진	유자망, 손꽁치 1~7일 조업
노가리	연중	속초연안	업종별 저인망 일일조업
연안활어	연중	속초연안	연안소형어선 일일조업
기타잡어	연중	속초연안	정치망, 연안소형 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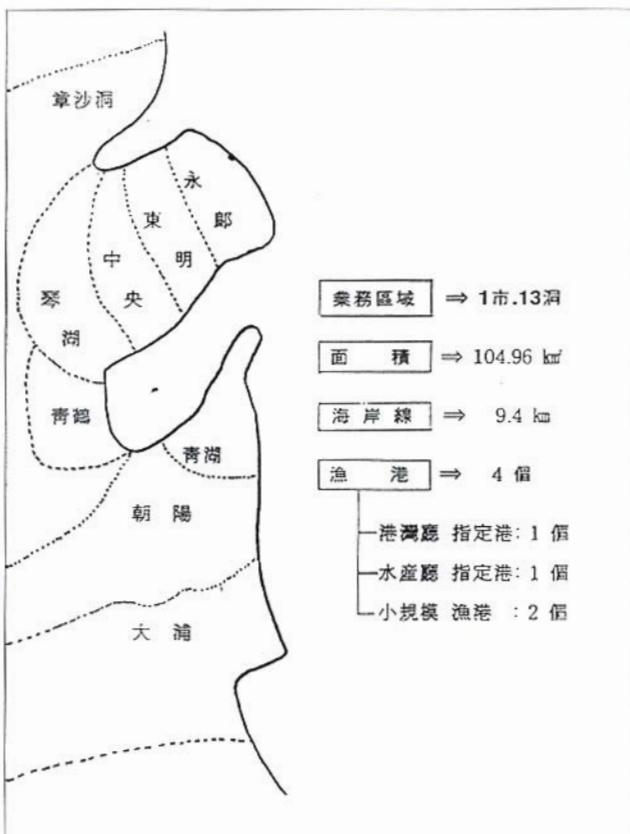
상기 도표와 같이 속초연안에서는 한 해동안 오징어·명태·꽁치·노가리 외에도 칼치·문어·개·멸치·도루묵 등을 잡으며³⁾ 공동으로 전복·성게·해삼·미역·문어를 잡는다. 또한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연어·쥐치·오징어·청어 등을 수확하고, 양식어업으로는 가리비와 전복이 있다. 정치망어업으로 방어·광어·쥐취 등을 잡는다.

한국의 생선은 여름에는 조기요, 겨울에는 명태라고 하는데 동해안에서는 명태가 주 어획물이다. 이외에도 어촌에서는 보망작업과 어선수리 등으로 한 해동안 특별한 여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속초지

3) 장정룡, 「세시풍속」, 『강원도사』 전통문화편, 1995, 201~243쪽

역의 어장분포는 다음과 같다.

(도표) 속초시 어로구역



그러면 구체적으로 속초시 장사동의 어업력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다.⁴⁾

4) 필자조사, 1997.11.29, 천윤이(남.81) 속초시 장사동

조사자: 1월부터 12월까지 일년동안 생활을 어떻게 해요?

천윤이: 배 못나가면 보망해야지. 그물 곤쳐야지. 배안나가면 보망 을 해. 자꾸 곤친다고. 떨어진 걸 이조각살 갖다가 대놓고 여자를 천고치듯이 이렇게 부쳐 곤치지.

조사자: 굽은 날만 빼놓고 다 나가나요?

천윤이: 날만 안굿고 폭풍주의만 안 내리면 만날 바닷가 살지.

조사자: 집안에서는 몇 달동안 배나갈 준비하는 일이 없나요?

천윤이: 보망할 게 없으면 그물실 사다가 예비로 채매놓지.

조사자: 배를 고치지는 않나요?

천윤이: 배고치는 건 혹 망가지면 기관장이 손보고, 또 배 나갈 때도 기계가 나빠서 말 안들으면 그 날 배를 싸매고 기관이 손봐. 이렇게 하고 또 한 시녀달씩 있다가 보면 배 밑에 녹이 나고 풀이 많이 돋잖아. 그러면 배가 잘 안나가지. 그거 싹 끌어내서 칠하고 그때는 한 사나흘 돌아. 배 안나가고. 그런 시기를 봐서. 그건 한 일년에 두 번씩 있어.

조사자: 계절에 따른 어종이 어때요?

천윤이: 봄에는 보통 이까바리(오징어) 내놓고는, 머르치(멸치) 같은 것. 머르치바리하는 사람은 머르치를 많이 잡고, 또 공치(꽁치)바리하는 사람은 공치를 잡고. 그 다음은 4월달 쯤 들어가면 이까바리가 시작되면 이끼를 잡는 거야.

조사자: 4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잡나요?

천윤이: 지금까지도 잡지. 제일 많이 잡는 것은 7, 8, 9월 한 3개월에 보통 오징어가 많이 잡혀. 겨울에는 또 명태바리를 시작해 가지고 명태를 많이 잡고, 주낙바리도 있고, 뭐 그물바리도 있고 뭐 많지. 정어리는 잘 안잡아. 예전에 많이 잡을 때는 4월부터 5, 6월 석달 잡는데 6월에 가면 훗가가 많아. 고기를 잡지를 못해. 정어리를, 그물을 씹어서.

조사자: 훗가가 뭐예요?

천윤이: 큰 고기가 있어. 상어. 상어가 그물을 막 씹어. 고기따먹을려고. 그물을 뭉청뭉청 끊어서 그냥 상어가 다 먹는거야.

2) 어촌세시

이촌세시는 어로마을의 한 해동안 이루어지는 세시풍속을 뜻한다.

세시풍속은 한 해, 네 계절 중에서 특정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풍속인데, 자연신앙·조상숭배·종교주술적 행위·놀이·관습 등이 포함된다.⁵⁾

현대 생활에서 세시풍속은 과거의 전통사회와 달리 사회구조나 관념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과거 우리의 어촌은 민족의 이동 후에 늦게 생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⁶⁾ 어촌 세시풍속의 정착은 배가 필요했고, 낚시나 그물이 있어야 했으며, 풍랑을 만나고 파도에 직면하는 위험 등이 있으므로 살아가는 태도,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 것들이 오늘날 어촌세시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시풍속에는 자연의 운행법칙에 따른 자연력, 생산주기의 생업력, 전통적인 의례력이 있는데 앞서 생업과 생산력을 서술했으므로 자연력과 의례력 가운데 어로민속으로 한정하여 살피고자 한다.

(1) 정초뱃고사

정초가 되면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뱃고사는 배안에 있는 성주신에게 주과포를 차려놓고 한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마을의 성황당에 먼저 가서 제사를 올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녀를 데리고 가서 비는 일을 맡기기도 한다. 어부들은 “잘되면 북치고, 안되면 가슴친다”고 할 정도로 풍어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초에는 고사, 가을에는 배성주에게 안택을 올린다.

뱃고사를 지낼 무렵 상가집이나 어린애 부정이 나면 마른 짚을 불붙여 이물에서부터 휘둘러 고물에다 버리는데, 이것을 ‘부정쓸기’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만 부정이 가신다고 한다.⁷⁾

(2) 정월 첫째 뱀날

5)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17쪽

6) 임동권, 「어촌의 세시풍속」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5, 218쪽

7) 필자조사, 1991.11.17. 이유식(남.84), 대포동 5통2반

이날을 상사일(上巳日)이라고 하는데 정월들어 첫 번째 드는 뱀날에는 텔없는 날이라며 출어를 하지 않는다. 배가 출어하면 미끄러져 전복된다는 설이 전한다. 무모일(無毛日)의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3) 달맞이와 다리밟기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어촌에서는 달맞이와 다리밟기를 한다. 바다와 접한 봉우리에 올라가 달을 보면서 풍어를 기원한다. 40년전에는 이때 헷불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영랑동과 조양동, 내물치와 하도문 마을에서 청년들이 주로 했다고 한다. 청호동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축향에서 아이들이 주로 망우리를 돌린다.

영랑동에서는 대보름날 마을 다리를 밟으면 좋다며 농악대와 함께 다리밟기를 하고 있다. 농악대가 벗고사에 참가하여 지신밟듯이 성주를 위로하기도 하는데 흔하지는 않다.

(4) 바다에 연날리기

정월보름이 지나고 연을 날리면 '고리백정'이라고 놀린다. 대포동 물치에서는 "연귀양보낸다"고하여 참나무 껍질로 모형배를 만들고 그 곳에 연줄을 묶어 방폐연과 가오리연을 바다에 날린다.

이때 연밑에 쑥을 묶어서 불을 붙여 띄우면 어느 정도 날다가 연만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영복송액(迎福送厄)한다고 믿는다.

(5) 액매기

액매기는 풍속관련 문헌에는 '어부시' (魚鳧施) 또는 '어부식' (魚付食)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지에 자기 나이수 만큼 "봉숭이밥 쌉다"고 찰밥을 싸서 앞바다나 쌍천에 버린다.

이렇게 하거나 자기 밥그릇에서 밥 세 뭉치를 떠서 한지에 싸서 생년월일을 적어서 바다에 버린다. 대개 보름날 저녁에 달이 뜨면 액매기를 한다. 영랑동에서는 '살풀이'라고하여 자기 나이 수대로 밥을 싸서 바다에 내던지고 빈다.

(6) 귀신날 배안띄우기

음력으로 정월 16일을 귀신날이라하여 배를 띄우지 않는다. 대체로 어촌에서는 대보름날 휴식이 이어진다.

(7) 영등날

음력으로 2월 초하룻날을 '영등날' 또는 '바람님날' '풍신날' 또는 '영동날'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영험한 신이라하여 어촌에서는 특히 신봉하는데 바람과 어촌의 관계로 생각된다.

바람에 대한 다양한 어촌의 어휘들을 볼 때 어민들이 바람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에서는 "아침이면 하늘보고 웃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바람과 해일, 폭풍우가 어로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속초지역에 전하는 말에는 "원산내기 바람이 특히 무섭다"⁸⁾고도 하며, "설악산에 구름이 끼면 동풍이 분다"⁹⁾ "갈매기가 높이 뜨면 바람이 많이분다"¹⁰⁾ "서마나을(서마바람)이 가장 무섭다"¹¹⁾ "고기가

8) 필자조사, 1997.11.28, 천윤이(남.81), 속초시 장사동

9) 필자조사, 1987.5.27, 김형준(남.74), 속초시 청호동

10) 필자조사, 1997.11.29, 김정옥(여.68), 속초시 청호동

11) 필자조사, 1990.12.26, 오세기(남.70),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

많이 잡히는 바람은 마바람”¹²⁾이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바람과 밀접한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신격화한 것이 영등신이다.

이 날이 되면 주부들은 영등할머니를 위해서 장독에다 정화수를 띠놓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이나 비늘없는 생선인 명태로 탕을 끓이고 잡곡밥·나물·떡·술을 놓고는 가정의 평안과 만전을 빈다.

속초지역의 어민들은 영등신이 특히 무왁찌기를 좋아한다고 믿으며, 바람신인 영등신을 잘 위해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다.

영랑동에서는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15일날에는 소지를 올린다. 내물치에서는 찰밥과 무왁찌개국을 장독대에 올려 놓고 식구수대로 수저를 꽂아놓고 빌기도 하고, 떡시루에 수저를 꽂기도 하는데, 20일날 올라간다고 믿는다.

동명동에서는 영등날 새해들어 처음 잡은 어물을 부엌에 걸고 매를 지어 떠놓고 빈다. 영등신에게 비는 장소는 부엌이나 장독대, 집의 뒤쪽인데 첫날과 올라가는 날에는 제물을 잘 차리고 보통날에는 정화수만 떠놓는다.

이처럼 영등신은 2월 1일날 내려왔다가 15일이나 20일에 올라간다고 하며, 20일에는 수부신이 마지막으로 승천한다고도 믿으며 이 날에도 상을 차린다.

영등신이 2월 1일날 내려올 때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라 부른다. 물영등이 되어야 바다가 풍년이 되어 해사가 잘되고 바람영등은 농촌이 풍년된다고 한다.

그래서 대포 외옹치 밧독재에 사는 여인네들이 솔뚜껑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비가 오기를 빌거나, 속옷을 뒤집어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¹³⁾

영등할머니는 여신이므로 성격이 까다롭고 심술이 많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내려올 때 비를 내려서 며느리 웃이 젖게 만든다고 한다.

조선조 후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는 “영남 지방의 풍속에 집집마다 신을 제사 지내는데 그 신을 이름하여 영등신(靈登神)이라 한

12) 필자조사, 1991.11.17, 이유식(남.84), 속초시 대포동 5/2

13) 필자조사, 1990.11.2, 이건석(남.62), 속초시 동명동

다. 무당이 영등신이 내렸다고 마을을 돌면 사람들은 다투어 맞이하여 즐긴다. 이달 초하루부터 사람을 꺼리어 만나지 않는데 15일 혹은 20일까지 간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의 풍속에 2월 초하룻날 귀덕·금녕 등지에서는 장대 열두 개를 세워놓고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또 애월의 주민들은 말머리 형상을 한 나무를 채색비단으로 꾸며 약마희를 논다. 이것은 신을 즐겁게 하는 행사로 보름까지 하다가 그만둔다. 이것을 영등이라고 한다”고 기록하였다.

경상도 지방에서도 ‘영등신’(影等神)이라 했는데 조선 후기 사람 이옥(李鉉)은 『봉성문여(鳳城文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다.

매년 2월 길일에 집집마다 영등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삼 일 전에 문전에 붉은 흙을 깔아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날 밭이 울기 전에 식구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마당에 밥, 국, 인절미, 떡, 술, 어육, 나물을 정갈하게 차려 놓고 대나무로 제사 지낸 곳에 한 나무를 세우고 그 위에 찬물을 올리고 매일 아침 새 물로 바꾸기를 15일까지 한다. 집안에 질병이 없고 풍년이 들며 재물이 느는 것은 모두 신이 내려 준 것이라 말한다. 영남 읍민 모두가 제사를 지낸다. 그 지방 사람들의 말에 옛날에 영등신을 섬기기를 심히 엄하게 하여 고을 원님이 고을을 위해 복을 청하는데 원님 부인이 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며 밤중에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어 신이 가고 나면 옷이 땀에 젖었다. 대개 옛 두두리(豆豆里)류로 음사의 귀신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등신은 영남지방과 제주 등지에서 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이는데 속초에서도 어촌을 중심으로 신앙화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신적 성격이 모호하고 이를 신봉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다.

영등신을 엄격하게 신봉하는 어촌에서는 주부가 색깔있는 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금기가 지켜지고, 기간중에는 상가집을 가지 않거나 흉한 일을 꺼린다.¹⁴⁾

(8) 용갈이

용갈이는 한자로 용경(龍耕)이라고 하는데 동짓달에 청초호가 얼면 그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청초호는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호수밑에 사는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으로 보고 물의 수량을 예측한다.

이는 용신신앙의 한 사례로서 바다신이 용이 어떤 징조를 보여준 것이다.

즉, 용이 얼음을 남쪽을 향해 갈아 놓거나 복판만 갈면 이듬 해는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라 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충청도 홍주 합덕지에 매년 겨울이 되면 용이 땅을 가는 것과 같은 얼음 위에 이상한 변이 있었다.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세로로 언덕 가까이쪽으로 갈아나간 자취가 있으면 다음 해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복판을 횡단하여 갈아 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동서남북 아무 곳으로 종횡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농부들은 이것으로 다음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고도 한다. 경상도 밀양 남지에도 용경으로 한 해의 일을 징험한다고도 한다.

용경은 청초호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점쳤는데,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도 암룡과 수룡이 살고 있다는 전설에 입각하여 전승되는 놀이다.

청호동 주민들에 의하면 용이 밭을 가는 동지 무렵때면 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용경은 물과 관련된 점세풍속으로 한 해의 풍흉을 점치는 사례이며, 길한 점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용에 대한 관념이 용갈이의 풍속으로 전승된 것이다.

14) 장정룡, 『속초의 어로민속』, 『속초문화』 8, 속초문화원, 1992. 79쪽

제2절 어로신앙과 어촌제의

어로신앙은 어로의례(漁撈儀禮)라고도 하는데, “어민들이 그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위하여 발생·전승시켜온 어민들의 민속이다.”¹⁾ 따라서 어민들이 그들의 생을 의탁해온 가장 기본적 의식으로 보기도 한다.

어촌의 민간신앙은 비교적 전승상태가 좋은 편이다. 더욱이 어로와 관련된 개인과 공동신앙체는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 많아서 쉽게 소멸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속초지역 어로신앙의 핵심은 ‘배성주제’와 어촌의 ‘성황제’이다. 이 두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전승되는 민간신앙적 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무속신앙적 의례가 포함된다. 배성주제라 해도 무속적인 내용을 보태기도 하며, 어촌성황제도 별신풍어굿이나 해원굿풀이의 형태와 습합되어 매년 성황제를 해를 걸리 별신풍어굿이 진행되기도 한다.

속초지역 어촌전승신앙과 의례절차를 개인별, 공동체, 무속신앙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들 세 가지는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체로 개인별신앙은 뱃고사형태가 중심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동체신앙은 유교식 성황제로, 무속신앙은 별신굿거리로 전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는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승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로신앙의 중층성(重層性)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부 어촌이나 선주들의 경우는 어로신앙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거나 이를 미신시하여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독교

1)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84쪽

등의 영향으로 신앙형태가 간소화되거나 교회에서 예배로 대신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 개인신앙

(1) 배성주제

배성주제는 ‘뱃고사’ 또는 ‘배서낭제’라고 부르는 개인 고사다. 속초지역에서는 주로 ‘배성주’라 부르는데 집안의 성주와 같이 배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여 성주를 봉안한다.

일반적으로 배성주에게 제의를 베푸는 경우는 배를 새로 만들었을 경우나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낼 때, 첫 출어시, 첫 수획시, 흉어나 풍어시, 매년 정초무렵에 안전과 만선을 기원할 때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²⁾

속초에서는 주로 ‘배성주제’라 부르는데, 개인 고사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무당을 청해서 고축을 한다. 제물을 장만하는 경비도 많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며, 특별하고 엄격한 금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승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속초에서는 배성주의 신체를 한지와 실을 묶어서 걸어 두는 것으로 그친다. 이것은 길지형(吉紙型)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³⁾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길지형 이외에도 무신체형(無神體型), 지방형(紙傍型), 뱃기형, 서낭단지형, 서낭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2) 김몽상, 「동남해안의 어로민속」, 『한국민속학』 16, 1983, 78~85쪽

3) 龜山慶一, 「韓國漁民의 信仰」, 『生江義男先生還曆紀念歷史論集』, 동경, 동간행위원회, 1978 “한국의 배에서 祭祀하는 神의 原初的 형태는 吉紙 뿐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吉紙는 말하자면 일본의 御幣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실히 日本의 妖理시로(依代·神體)와 같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배에서 제사하는 신의 神體로서, 보다 基層的인 것이다” 박계홍,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274쪽 전재.

속초의 어촌에서는 대체로 처음 배성주를 봉안하면 매년 정초에 그 해 처음 잡은 생선과 메·떡·술 등을 간단히 차려놓고 절을 하고 축원한다. 다음에 배성주의 신체로 한지를 더 걷다. 그러나 이미 걸어 놓은 배에서는 앞서 걸어놓은 것을 불에 태운다.

메는 대체로 남자나 여자 성주를 한 분씩 모시고 있으므로 한 그릇을 놓는데, 조상신이 배에 타고 계시면 그 신에게도 한 그릇을 놓는다. 배안에는 배성주기와 만선기가 있는데, 배성주기는 상단은 청색, 하단은 흰색으로 만든다.⁴⁾

배성주의 신체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성별의 구분은 선주의 생기를 맞추어 무녀가 해준다고도 하는데, 무녀들의 경우 배에서 굿을 하다보면 금방 신의 모습이 눈에 선연히 보이게 되므로 그대로 정한다고 말한다.

또한 선주의 꿈에 배성주가 나타나서 현몽하면 그대로 믿기도 하고 마을의 성황님이 남자면 배성주도 남자라고 믿는다. 여성주의 경우는 삼색천을 거는 경우가 많고, 남자성주는 그냥 한지만 매단다.

여성주를 많이 모시는 이유는 바다를 여자로 믿는 관념으로 보인다. 이는 음성적 원리로서 풍어를 가져다주는 생산신격으로 배성주를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선풍은 속초의 배성주에 대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배에서 모시는 두 성주신이다. 성주신은 남성주신, 여성주신이 있는데 주로 2/3가 여성주신을 모신다. 모실 때 배에 남근을 깎아 걸어 놓고 제를 지낸다”⁵⁾ 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성주의 성별을 나누는 방법은 무당에 의한 결정, 현몽, 마을 성황신의 성별에 따르는 경우, 배만드는 목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아래 열거하는 사례들은 필자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속초어촌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 필자조사, 1987.5.7. 조일랑(남.75), 청호동 노인회관

5) 김선풍, 「동해안의 성황설화」, 『한국민속학』10, 1977, 155쪽

〈사례1〉

뱃고사는 선망시(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띄울 때를 말함) 소나 돼지를 잡아서 지낸다. 배성주에게는 초하루나 보름에 고사를 지내는데 고기와 메를 바치고, 향과 초를 피우고 빈다. 배성주에게는 첫 날 첫 낚시하여 잡은 생선을 반드시 바치고, 화장(배에서 밥하는 사람)이 밥 한 숟갈을 떠서 “용왕님 잡수십시오”라며 바다에 던진다.⁶⁾

〈사례2〉

배성주는 배의 중간지점 끽대 세우는 데에 모신다. 초자와 실을 함께 묶는 데 자기 마음에 따라 모신다. 작업이 안되거나 말썽이 나면 성주에게 제사를 올린다. 하루는 꿈에 한복을 입은 여자가 배에 타는 꿈을 꾸고 만선을 했다. 그러므로 여성주라고 믿는데 정초에 배성주제를 지낼 때는 한복감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배성주에게 올리는 제물은 무시나물, 무채를 많이 올린다. 첫 출항때 잡은 생선의 지느러미를 떼서 성주와 함께 매달아 풍어를 기원한다. 해사하는 사람은 미신을 많이 지키는데 안택은 날을 받아서 가을에 지낸다. 이때 서낭에 가서 먼저 지내고, 집에서 안택하고 그다음에 배에 가서 성주에게 빈다.⁷⁾

〈사례3〉

배성주는 한지 한 장의 절반을 옆으로 네 번 정도 접어서 30cm정도의 길이에 무명실 한 태를 묶어서 선장실에 건다. 한 해에 한 번씩 부정가시고 메를 떠놓고 비는데, 시기는 정초무렵 각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선주가 빌고 재배를 하면 선장과 기관장의 순서로 절을 하며 기관방에도 잔을 올려 고장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빈다. 가을에는 집에서 안택을 하고 배성주에게도 잔을 올린다.⁸⁾

〈사례4〉

배성주는 배를 새로 만들 때 건다.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로 고사를 올리며,

6) 필자조사, 1987.5.27, 김형준(남.74), 청호동

7) 필자조사, 1990.12.26, 오세기(남.70), 대포동 1통 내물치

8) 필자조사, 1991.4.25, 일홍호 선주 김인용(남.66), 동명동 1/3

여성주이므로 빨강, 파랑, 흰색의 천과 한지, 무명실을 기관실에 모신다. 배 성주제를 지낼 때는 돼지머리·나물·메·술·향·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선주와 선원이 함께 올린다. 성주는 육지의 집과 같다. 배성주는 가끔 짹짹 새소리를 내기도 한다는데 직접 듣지는 못했다.⁹⁾

〈사례5〉

게통발 어선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성주고사를 지낸다. 이것은 고장이 없도록 비는 것인데 선미에서 지내고 마지막에 한지와 삼색천을 매단다. 이것은 선장실에 못을 치고 거는데 “성주모신다”고 한다. 성주는 사업주의 의향에 따라 남자나 여자성주를 모시는데 선박은 부정을 많이 타므로 성주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 외부인들이 보면 안좋다고 하며 무당이 와서굿을 할 때 부정이 들면 “성주가 운다”고 말한다.¹⁰⁾

〈사례6〉

성주는 풍선의 경우 노뒤에 모신다. 뱃고사는 먼저 서낭에 가고 집에서는 토지신에게 모시고 그 다음에 배에서 치성올린다. 배에서 찍찍소리가 나면 “성주가 운다”고 하며, 파도가 세거나 날이 궂는 것을 성주가 사공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는다. 성주에게 바친 음식을 주로 쥐가 먹는데, 맷길을 잊었을 때 쥐가 물에 뛰어 내려 길을 알려 주었다고 들었는데 성주가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믿는다. 새해 처음 잡은 생선은 끈을 매서 성주에 달아 놓는다. 북쪽으로 고기잡이 갈 때는 고성앞바다의 사공바위라는데 이르러 메를 한 그릇 지어서 바치고 절을 하고 정성을 올린다.¹¹⁾

〈사례7〉

배성주는 선장실에 모신다. 문종이에 실을 감고 오징어 때는 오징어를 말려서 걸고, 명태가 날 때는 명태를 거는데, 첫 작업 나갈 때 첫 번째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견다. 무사안일하고 평온하게 해달라는 뜻이다.

배를 새로 만들면 배성주를 모시고 선박위에는 소나무를 꽂는데 잡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배의 성주라고하여 그것만을 믿고 고기잡으러 나간

9) 필자조사, 1991.5.4, 김중길(남.49), 금호동 9/1

10) 필자조사, 1997.10.4, 황병갑(남.40), 동명동

11) 필자조사, 1997.11.28, 천윤이(남.81), 장사동

다.¹²⁾

〈사례8〉

배에 모시는 신을 성주라고 한다. 성주는 실타래에 문종이를 매단다. 여성 주인지 남성주인지는 무당이 이야기 한다. 야간작업하다가 잠을 자면 꿈에 여자가 나타나므로 여성주라고 믿는다. 꿈속에 여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 “옷 좀 갈아 입혀달라”고 말하면 배를 육지로 옮려서 청소를 하고 망가진 것을 복구한다. 작업이 잘 안되면 무당을 불러다가 성주를 위하면 작업이 잘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자꾸 믿는다.¹³⁾

〈사례9〉

배에서는 성주라하는 신을 불인다. 여러번 접은 창호지안에다가 일곱가지 색천을 넣어가지고 실로 묶어 선장칸 옆에다 건다. 지폐를 오천원짜리도 함께 넣는데 그 신은 여성주다. 작업이 잘안되면 술을 한 잔씩 부어 놓는다. 옛 날에는 뜻대밑에다 배성주를 걸었다.¹⁴⁾

배를 새로 만들어 설망을 할 때 성주제를 지내는데 이때는 무녀를 불러 배성주굿을 한다. 배성주굿은 일반 가신신앙으로 집안의 최고 신인 성주신을 위하는 것과 같다. 청호동 무녀 빈순애의 배성주굿은 다음과 같다.

어널러에 어널너에-에레에 어널닐러 널-러
 어널- 널-러 상사지야
 청호동 대동안에/성주나무 비러가자
 성주나무 비러가자/성주나무 비러 갈적에
 성주등불이 어디겠고/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을 찾아가야
 제비원으로 찾으가서/솔씨를 한 말을 얻어다가
 대명산천에 뿌렸더니/밤이면은 이슬을 맞고

12) 필자조사, 1997.11.27, 박순갑(남.70), 청학동

13) 필자조사, 1997.11.28, 장세필(남.55), 동명동

14) 필자조사, 1997.11.27, 김용성(남.60), 조양동 2/2

낮이면은 햇볕을 맞아들고/삼저능선이라 물을 주고
 두 판석을 가꾸어 낸다/그들이 점점 자라나니
 낙락장송이 벌어졌네/큰 나무를 비어다가
 각성받이 성주를 모시자/육성받이 성주를 모시자
 와가성주를 모십니다/초가성주를 모십니다
 치어다보니 상량성주/내려다보니 중랑성주
 아버님은 몽주성주/어머님은 지호성주
 임금왕자는 봉황성주/성주나무를 비어다가
 청호동 대동안에/각성받이 성주님네
 육성받이 성주님네/집을 지어서 성주고
 배를 타도 성주/잇물에 공성주
 사공에는 임성주/각성받이 육성받이 성주를 모셔놓고
 성주나무를 비어다가/여러 대목을 다 나온다
 앞집에 암대목/뒷집에 이대목
 벼들유자 유대목/편안 안자 안대목
 뗏목으는 임대목은/연장없이 어이할꼬
 뒷동산에 올라가서/매치기를 걷어노니
 걷고노니 연장망태/연장망태를 걸며쥐고
 만호초 산호초중에/유대성을 당도한다
 오늘날 청호동 대동안에/자리잡으신 성주님네
 아버님 성주님은 옥황상제이고/어머님 성주는 옥주부인
 아드님 성주님은 토지지신이고/며느리 성주는 조왕각시
 성주구룡을 모시자/치어다 보니 상량성주
 상량성주를 모시자¹⁵⁾

(2) 용신제

용신제는 바다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개인치성이다. 배성주가 배의 신격이라면 용신은 '용왕신'이라고도 부르는 바다신격이다. 우리는 옛날부터 바다에도 신을 설정하였는데 동해신은 아명, 서해신은 거승, 남해신은 충옹, 북해신은 옹강이라고 해서 음양설로 해석하는 수

15) 필자조사, 1991.4.25. 빈순애(여.34), 청호동 4통1반

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황해바다의 신은 남신이고, 동해바다신은 여신으로 되어 있다.¹⁶⁾

용신제는 이른바 해신제이며, 바다고사로서 속초에서는 선주의 부인이 중심이 되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지낸다. 그 절차는 무당을 부르거나 선주의 부인이 바닷가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집안에서 좋은 날을 택일하여 치루기도 한다.

2) 공동체신앙

어촌의 공동체신앙은 대표적인 것이 성황제이다. 이를 ‘해서낭제’ 또는 ‘여서낭제’라고 부르는데,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성황당을 중심으로 유교식으로 치뤄지는 의례다. 이외에도 천제와 짐대제, 장승제, 풍어제가 있다. 1996년 5월부터 1997년 5월까지 현장조사를 한 것¹⁷⁾을 바탕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9개 마을의 공동체신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황제

① 영랑동 동제

영랑동의 동제는 성황제라는 이름으로 동명동과 매년 공동으로 지낸다. 이곳을 속초수협 ‘영·동어촌계성황당’이라 부르는데, 영동어촌계는 영랑동과 동명동을 합친 어촌계 명칭이다. 마을의 제당은 동

16)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5, 222쪽 참고

17) 장정룡, 「속초시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 박물관·속초시, 1997, 245~273쪽

명항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황봉 야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십 계단을 올라가야 나타난다.

이 제당이 있는 성황봉 산등성이를 경계로하여 남쪽은 동명동 '마짜개마을', 동쪽은 영랑동 '삽짜개마을'이라 부른다. 이곳 어촌에서는 동쪽을 새쪽, 남쪽을 마쪽이라하여 새짝마을, 마짝마을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등대가 있는 성황봉을 중심으로 두 동이 구분되고, 성황봉의 성황제사를 어촌계 주관으로 함께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통합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지내지 않으나 5월 단오때에는 영금정등대에서 소를 제물로 바치고 천제를 지내기도 했다.

속초지역의 바닷가 마을제당은 전반적으로 동해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멀리 성황봉과 제당이 보이면 마음으로 위안을 갖는다고 말한다.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한 성황신이 어민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기에 제당은 바다에서 잘보이는 곳이며 동시에 바다를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점은 속초지역 안에서도 내륙과 해안 제당의 변별력을 갖게 하는데, 아울러 화상을 그려서 붙여 놓고 있는 점도 해안마을 제당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조사한 내용을 발음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김갑용: 옛날에는 성황당이 등대자리 여기매 있었거든. 우리들 조그만 할즉에 등대자리에 있었는데, 그기 5월 단오때는 단오를 하구, 또 음력 10월달에 대치성이라는게 있었지. 그때는 꼭 소를 잡아 가지고 제를 지냈거든. 성황당에서 제를 지냈는데, 그기 요기 영금정에서 그 제 지낼 때 소 잡는 장소가 아주 정해져 놓고 있었거든. 그런데 고기서 소를 잡아 가지구 천제사라는 게 있었어. 천제사, 하늘보구 제사 지내는 천제사. 거기서 인제 천제사를 먼저 지내구, 그 소잡은 걸 가지구서네 성황당에 와서 고사를 지내구 그랬단 말이여. 그런데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피난갔다 들어와 가지구 그렇게 했지. 옛날 할아버지 하던 그대

로 소를 잡아가지구서네 그렇게 인제 저 영금정 거 가서 천제사 지내구. 이렇게 쭉 해내려왔는데, 피난갔다 돌아오니, 지금은 둑이지만, 인제 그 때는 구거든 1구·2구·3구·4구 이렇게 말이여. 근데 이 둑네에서 안 하는 기라. 돈두 안주구. 그래 인제 어민들이 미신을 제일 많이 지키거든. 그래 어촌계라는 게 생겨가지구 어촌계에서 어민들끼리 돈을 걷어 가지구서네 인제 그렇게 한거라.

소두 잡구 이래가지구서 5월달에 단오하구. 이렇게 했는데 그기 앞으로 자꾸 내려오면 소 값은 비싸지. 어촌계 수입은 없지. 그러니까 고 다음에 연년히 못하겠더라구. 그래 가지구서네 인제 “우리 자금이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소머리를 사 가지구 하자” 그래 가지구 인제 소머릴 사가지구서네 10월달에 제사를 지내 내려왔단 말이여. 그래 그렇게 내려와 시방 현재까진 그렇게 하지.

그런데 5월 단오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래서 “이리지 말고 옛날엔 연년히 했는데 3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래가서는 5월 단오는 3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해 내리왔다구. 그래 3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 두 돈이 벅차. 우리가 그랜기 2천만원이 냉거서 들어가더라고. 단오를 한 번 하는데, 그기 부락에서 한 푼도 안 봐주지. 어촌계에서 전 어민들이 걷어 가지구 할려니까 그것도 벅차다고 사실은.

조사자: 제의를 지낼 때 어떤 음식을 놓고 순서는 어떻습니까?

김갑용: 음식은 그저 집에서 기제사 지내는 것처럼 고저(그저) 그 음식(음식)이지, 좀 장만을 많이 한다는 그것 뿐이지. 그러니까 주파포는 기본적으로 갖춰 있고, 거기에 인제 대표적인 게 소를 잡아서, 치성을 들었다 그런 애긴데, 이제는 그건 없애고 3년에 한 번씩 단오굿을 한 번씩 한다. 연 1회에 10월달에 치성은 계속드리는데 그것도 백만원 돈이 듈다.

조사자: 우물을 떠놓고 제사를 지낸다던데요?

김갑용: 우물이라. 우리두 이게 들판 애긴데. 몇 백년전에 그 어른들 애길 들으니까, 고 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어느 처녀가 그 우물을 푸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 그래가지구서네 그 용굴을 인제 이 알루(아래로) 웅긴기라(옮긴거라) 그래가지구 그물을 지금까지 사용하구 있지. 그건 아마 몇 백년전의 일인기라.

조사자: 10월달 서낭제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김갑용: 단오는 정해져 있지마는 저 10월달 고사는 가서 날을 받거든. 그 인제 도가라는 게 있어. 도가집이라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인제 제사지내는 음식을 전부 맹그는(만드는) 집을 가지구 도가라 그러거든. 도가집은 인제, 여자나 남자 생년월일을 적어가지구 가서 인제 날을 잡지. 그 집에서 못한다면 또 딴 집을 넘겨야 되구. 그 인제 하는 것도 10월 초

순 음력으로 열흘 전에 해가지구서, 열흘 전에 날을 받지. 금년에도 10월 초하룻날 날이 나서 10월 초하룻날 했어.

조사자:서낭제를 안 지내서 마을에 해가 된 적은 없어요?

김갑용:서낭제를 안 지낸 적은 없지. 옷은 좀 깨끗하게 입고 인제 내일 제사라면 오늘 목욕은 다하고, 이러구 올라가서 제살 지내는 거지.¹⁸⁾

② 동명동 동제

동명동은 영랑동과 함께 어촌계 주관으로 동제를 지낸다. 매년 5월 5일 단오날과 10월달에 택일하여 지내는데 3~4년마다 단오때 풍어굿을 한다. 성황당 아래에 사는 김태권(남.58)씨 부인의 고중에 따르면, 단옷날에는 새벽 4시경에 지낸다. 현재는 할아버지 성황당만 있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성황신도 함께 있었으나 할머니 성황당은 중앙동에서 모셔 갔다고 한다.

제사 절차는 일주일 전부터 제당과 도가집에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는다. 제사에 쓸 제주도 일주일 전에 당에서 담가 삭힌다. 성황매는 할아버지 성황신과 할머니 수부상 앞에 세 그릇을 놓고 각기 상을 차린다.

시루떡은 햅쌀 세 되, 세 흡의 쌀로 백설기 2시루, 팥떡 한 시루를 준비한다. 예전에는 떡을 용모양으로 만들어 꼬리를 튼 것처럼 하고 팥으로 눈을 만들고 대추를 입에 물려 '용떡'이라하여 풍어를 기원했다.

제사가 시작되면 현관인 어촌계장이 술잔을 올리고 나서 축문을 읽으며, 무당이 치성을 드리고, 주민들 가가호호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끝낸다. 제사비용은 어촌계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지내며, 제관은 깨끗한 사람만 참여한다. 10월달에는 날을 받아 지낸다.

이 마을의 동제는 성황제로 제당은 성황봉에 있다. 일반 제당과 달리 솟을대문을 세워 놓았고, 제당은 청색을 칠한 팔작지붕 기와집이

18) 필자조사, 1997.11.27. 김갑용(남.74), 영랑동 1/1

다. 시멘트벽을 발랐고 철대문을 달았다. 제당 주변은 사당 30m 정도로 넓은데 대나무 숲이 주위를 싸고 있으며, 시멘트 블록담을 쳐놓아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 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위패를 매달아 두었는데 가로 5cm, 세로 20cm 정도의 크기로 '城隍'이라고 한자에 한자로 써서 붙였다.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에 인물그림을 붙여 놓았는데, 크기는 가로 1m, 세로 1.5m 정도다.

'성황당할아버지'라 부르는 주신격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편에서 왼쪽에 호랑이를 타고 있으며, 갓을 쓴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주변에는 시녀가 두 명 보인다. 그 오른쪽에는 수부상이 있는데 백마를 끌고 있으며 이들 민화풍의 화상은 15년전에 그렸다고 한다.

③ 청학동 동제

청학동 동제는 매년 음력 9월 중순경에 택일하여 오후 5시 30분경에 성황당에서 지낸다. 제관은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3명을 뽑으며 도가에서 제물을 장만한다. 헌작과 재배, 고축, 소지, 음복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명단에 적힌 이름만 소지를 올린다. '병자년 성황당제참여자' 명단에는 1반에서 5반까지 40여명이 적기는 5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내서 20여만원 정도되며 돈을 기부한 주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마을 성황당을 '선주들 성황당'이라고도 불리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쏟는다는 뜻이다. 제당은 청학가 중간쯤 주유소로 올라가면 야산 가운데 있는데 이곳 4반 지명이 '논건네'다.

1970년에 지은 목조와가의 제당은 다른 곳에 비해 규모가 컸으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이며 가로 세로 2m 정도의 규모다.

기와는 붉은 색칠을 하였으며 문은 여닫이, 함석문이다. 제당 바로 옆에는 제물을 장만하고 집기를 보관하는 작은 건물을 지어 놓았다.

주변에는 담을 높게 쌓아 올렸고 대문을 만들어 일반 주택과 같은 구조이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위폐함을 만들어 벽에 붙였고, 좌우에 남녀 신격의 화상을 걸었다. 화상모습은 좌측은 두 손을 모으고 모자를 쓴 채 앉아 있으며, 우측 여신은 족두리를 하고 있다.

화상옆에는 좌측에 '土地之神位' 라고 20cm정도의 목판에 검은 글씨를 써놓았고, 우측에는 '四海龍王尊神位',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首部尊神位' 라고 써놓았다.

동제의 제물은 도가에서 장만하는데 종류는 메 2그릇 · 팔떡 2시루 · 돼지머리 · 가자미 · 명태 · 열갱이 등의 어물과 삼색실과를 차린다. 제물을 장만하는 비용은 30만원 내외이며 제사에 참가하는 동민은 전체 30여명 정도로 12통 5반 전체가 해당된다. 제당은 본래 금호동 40계단 위에 있었으나 30년전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청학동 성황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丙子壬午朔十九日庚午青鶴洞
 十二洞 洞民一同 代表幼學 金元弼 乙丑生 敢昭告于
 山川之神 城隍之神 龍王之神 天開地闢 陰陽始分
 司天尾神 司人洞民 一同大豐吉辰 東方青帝將軍
 西方白帝將軍 南方赤帝將軍 北方黑帝將軍 中央黃帝將軍
 各臨各位 一起同參 既得擇日 今洞民一同 今以吉辰
 謹且紫盛 伏包神明 三災八難 染疾家患 官災口舌
 與潭同消 福祿財大豐 與雲同起 謹以 清酌庶羞
 堂上鶴髮 膝下子孫 所願成就 洞民一同 安過太平
 和氣滿堂 既蒙舊德 今祈神福 是誠是設 伏願伏祝
 伏惟尊神 庶幾久格 尚事事饗

④ 조양동 동제

조양동의 동제는 매년 음력 9월 9일날 새벽 6시경에 지내고 있는데 현관과 주민 10여명이 참여한다. 제물은 메 3그릇, 돼지머리, 주파포, 시루떡을 차리며, 의복은 일반복장을 깨끗하게 입는다. 제관은 마을에서 선정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고축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마친다.

주로 마을의 평안을 성황님께 비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박만석(남.84)씨는 말했다. 제당은 오래된 것 같지 않고 별다른 특징이 없다. 형태는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로 지은 한 칸으로 양철문을 달았다.

사방 2m 정도의 작은 건물로 벽은 흰색 칠을 하였으며 내부에는 촛대와 향로가 놓여 있다. 오른쪽 상단에 한지와 실을 매달았다. 과거에는 논산리와 온정리에도 성황당이 있었으나 택지조성으로 산을 깎으면서 없어졌다.

⑤ 청호동 동제

청호동의 동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어촌계 주관으로 지낸다. 동제를 지내는 성황당은 조양동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9통 3반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 중턱에 있다. 이곳은 대략 40년 전부터 선주들이 풍어와 어로 안전을 위하여 고사를 지낸 곳으로 주민들이 청호동에 정착하면서 성황당을 세웠다.

제당은 새로 조성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외벽 상단에 ‘城隍堂’이라고 고딕체로 써서 걸었다. 건물규모는 가로, 세로 3m 정도의 시멘트 한 칸 신축 건물이다. 지붕은 기와를 얹었으며 시멘트로 담장을 높게 쌓았다.

제당 내부에는 중앙에 남녀성황신 화상이 걸려 있으며, 중앙에는 호랑이가 그려진 모습이다. 제단위에는 촛대와 연꽃 지화가 양쪽에 있고 벽에는 오색예단이 걸렸다. 또한 우측에는 5방위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청호동 수산협동조합원 명단을 붙여 두었다.

성황제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제물은 메, 삼색실과, 어물 등을 장만하며, 이외에도 소머리를 반드시 쓴다. 어촌계에서 고령자 중 부정이 끼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제사를 진행한다.

⑥ 대포동 동제

대포동 동제는 세 군데에서 지내는데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이다. 대포리 동제는 대포동 2·3·4통 마을로서 10월 초순에 길일을 택하여 매년 제를 올린다. 한 해는 무당을 불러 굿중심의 풍어제를 지내고, 그 다음 해는 제관 중심의 성황제를 지낸다. 요즘에는 경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3년에서 5년마다 풍어굿을 한다.

동제는 할아버지 성황당과 할머니 성황당의 두 군데 있으므로 서로 마주보고 시간을 맞추며 제물 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 예전에는 동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햇불로 여성황당이 있는 봉수터 봉끌과 길 건너 야산의 남성황당이 서로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성황당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기원 장소며, 선주들은 새 어종이 잡히면 반드시 성황당에 바친다. 제관들은 제사일이 되면 동이 트기 전에 새벽 1시 무렵 인적이 없을 때 주민들과 함께 미리 도가집에서 제물 만든 것을 가지고 성황당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제관들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제사가 끝나면 도가집에서 음복을 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를 한다.

무당굿 중심의 성황제는 바닷가에 가설 굿당을 만들고 마을 성황신을 모신 다음, 제관이 먼저 제를 올리고 무당이 성황신과 용왕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무사조업, 풍어를 기원하며,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또한 무녀는 바닷가로 나가 조업중 사망한 어부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귀굿을 한다.

제물은 반드시 소를 잡으며, 소머리를 ‘밀’이라 하는데, 이것은 성황님이 말을 타고 온다고 말 대신 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말’은 어원적으로 크고 신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성황신의 어마로 불린 것이기보다는 제물을 신성하고 성대하게 바친다는 뜻으로 ‘말을 바친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황당은 속초 시내로 들어가는 대포동의 왼쪽 야산에 있다. 현재의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이곳을 ‘할아버지당’ 또는 ‘숫서낭’이라 부른다. 이 제당이 있는 지역은 2통 4반으로 관광객들이 운집함에 따라 차량을 수용할 공간이 없으므로 남성황당을 외옹치 여성황당과 합칠 예정이라고 한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위치한 남성황당은 붉은 색칠을 한 기와 지붕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주변에는 큰 바위가 있다. 신채천(남.90)씨에 의하면 원래는 이 바위에서 성황제사를 모셨으나 해방 이후 당집을 지었다고 한다.

제당 내부는 두 평 남짓한데 중앙에 화상이 걸려 있으며 우측에는 말을 끌고 있는 수부신의 모습이 있다. 남성황신의 화상은 지팡이를 들고 갓을 쓴 모습으로 앉아 있고, 주위에는 용의 모습이 둥글게 감싸고 있다. 그 앞 제단에는 연봉과 촛대, 위패가 있으며 우측 상단에 한지를 실로 묶어 매달아 놓았다.

외옹치리는 대포동 5통 마을로 4개반이 있다. 현재 해양경비대 위치한 곳에는 예전에 봉수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덕산 봉수 자리이다. 덕산 봉수는 남으로 양양군 수산 봉수, 북쪽은 간성읍 죽도 봉수와 연결되어 서로 연락하던 봉화터로 이 끝에 여성황당이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동제는 매년 봄과 가을로 길일을 택하였는데, 10여년전부터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로 고정하여 자시무렵에 지내고 있다. 춘추 성황제는 서 너명의 제관을 제사 10일 전에 뽑으며, 제관들은 특히 언행에 주의하고 외출을 삼가고 근신한다.

도가는 매년 새로 정하는데 지난 해의 제관이 제사 택일을 하면 새로운 제관이 생기를 맞추고 부정치 않은 사람을 가려, 도가를 정한다. 도가는 제물을 장만하는 집인데 도가로 정해진 사람은 하루전 대문에 금줄을 치고, 십자형으로 황토를 뿐려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부부가 합방도 하지 않고 반드시 목욕재계를 한다.

이 마을 김병국(남.62) 씨에 의하면 성황당이 있는 170여평은 본래 시유지로 마을에서 관리해 왔다고 한다. 이곳 여성황당을 '암서 낭'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당우형으로 시멘트벽, 목조 건물에 기와지붕이다. 문은 나무로 만든 여닫이로 주변은 흙돌담을 쌓고 기와를 올려 놓았다. 제당 주변은 고사된 노송들이 몇 그루 있고 소나무가 금을 이룬다.

제당 내부는 서너 평 정도인데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고 향로와 촛대, 연봉을 놓았으며, 중앙에 성황신 화상을 걸었다. 그 앞에는 '城隍大神之位'라고 쓴 20cm정도의 목판 위패를 세워 놓았다.

성황신 화상은 나무판 위에 유화로 그렸는데 가운데 여성황신이 관을 쓴 모습으로 좌정하고 있으며, 좌우에 칼을 든 수호 신장과 부채를 들고 있는 시녀의 모습 등 5명이 그려져 있다.

그 원쪽으로 수부신 화상을 같은 크기로 그려 걸었는데, 푸른 날개의 백마를 수부신이 끌고 가는 모습이다. 벽에는 한지를 걸어 놓았고, 천정에도 연꽃 모양을 그려 붙였는데 문쪽에는 여러 글귀를 한지에 써서 붙였다.

이 제당은 6.25사변때 인민군들이 불태워 다시 지었다고 하므로 대략 50년 정도된 건물이다. 흙담은 예전 그 모습이며 본래 성황당 자리는 제당 뒤쪽 고사목이 있는 곳이라고 전한다.

외옹치리 봄제사는 소머리를 제물로 쓰지 않고, 소고기 몇 근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가을 제사때는 소머리를 올려 놓는다. 특히 3년마다 행하는 풍어굿 때는 수소를 한 마리 잡아서 '말'이라고 부르며 제물로 쓴다.

도가집에서는 햅쌀 3되에 누룩, 술잎을 버무려 담가서 약 일주일 전에 밀봉하여 성황당 옆에 묻는다. 제사일 하루 전에 성황당에 금줄을 치고, 사방에 황토를 뿐여 신성한 공간이 되도록 하며, 혹시라도 깨끗치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전에는 서원순(여.82) 할머니가 주로 제물을 장만했는데 최근에는 신을 모시는 젊은 여자가 주관한다. 이렇게 담근 제주는 동제일 하루 전에 새벽에 제당에 올라가 땅에 묻은 제주를 꺼내서 거른 다음, 성황신에게 세 번 잔을 올리고 재배하고, 맑은 술만 떠서 '제주 봉한

다'며 밀봉하였다가 제사 당일 개봉하여 사용한다. 제물은 소머리를 쓰는 것만 제외하고 춘추제의가 같은데 백미 한 말을 가지고 한 되는 제사에 올리는 새용메를 짓고, 세 되는 제주, 나머지는 여섯 되는 시루떡을 찐다. 나물·탕·전 그리고 건명태·가자미·문어 등 해물이 많다.

제의 절차는 자정이 넘어 제관들이 모여 있다가 가지고 온 제물을 진설하고 헌관이 술 한 잔을 올린다. 이곳 성황신은 여성으로 반드시 황소를 제물로 쓴다. 술을 세 잔 올리고 고축을 한 다음에는 선주들 소지를 올리고 가정의 호주 이름을 호명하며 소지를 올린다.

성황제사가 끝나면 왼쪽의 수부신의 제단으로 제물을 일부 옮기고 재배를 한 다음 진설한 음식을 떼어 내어 주위의 잡귀들에게 뿌려준다. '골맥이 성황신'이라는 장승과 짐대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내물치는 대포동 1통마을로 매년 봄과 가을로 제사를 지내는데 음력 3월 3일과 10월 초하룻날을 정하여 낮 1시경에 지낸다. 마을을 옮기기 전에는 택일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보자 전상원(남.63)씨에 의하면 봄에는 간소하게 제물을 차려 지내고, 3년마다 가을 제사에는 전체 규모가 크게 지낸다고 한다.

이곳 성황당은 동해큰도 뒤 야산에 있는데, 예전에 원산으로 가는 철길옆 도문과 대문의 경계에 소나무를 성황신목으로 모시다가 6.25 때 폭격으로 타버렸다고 한다. 그 후 당집을 새로 지었으나 도로가 확장되고 마을이 현재 위치로 옮겨지면서 새로 집을 지었다.

제당 형태는 높이와 사방 2m 정도의 한 칸 시멘트 슬라브 평면 건물로 철문을 달았다. 주위는 밭가운데 갈대숲이 우거지고 소나무가 몇 그루 있으며, 당집 주변을 시멘트로 담을 쌓았다. 내부에도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고 위폐를 모셨는데 높이 20cm 정도의 나무 위폐함을 만들어 그 속에 검은 글씨로 '三清道門城隍大神'이라고 써놓았다. 이 지역은 현재 하도문동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본래는 도문동 성황당으로 파악되나 행정구역에 따라 현재 내물치리에 속하고 있다.

성황제가 다가오면 이장이 주민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 나이를 추려 무당에게 가서 선출한다. 무당은 생기를 맞추어 그 중에서 도가한 집과 제관을 정한다. 제관은 깨끗한 사람중 4명이 선출되며 도가

집 대문 앞에는 사흘 전에 미리 큰 소나무 가지를 양쪽으로 두 개를 꺾어 송침을 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는다.

이 날부터 주민들은 도가집에 출입을 금하지만 외부인들은 특별하게 부정함이 없는 한 별 탈이 없다고 한다. 제사에 쓸 제주는 따로 봉하며 이때 당의 출입을 삼가도록 금줄을 친다.

제물은 메 2그릇, 수부상에 올리는 메 한 그릇이며, 시루도 성황신께는 시루 2개, 수부에게 시루 하나를 올린다. 소머리와 4족, 꼬리, 내장 등 부위별로 조금씩 다 쓰는데 이것을 '말'이라 부른다. 그것은 마치 소 한 마리를 잡은 것과 같은 정성이라는 뜻이다. 기타 인근 바다에서 직접 잡은 문어·명태·가자미·열기 등의 어물을 쓰고 그외 주과포 등을 차린다. 제사비용은 어촌계에서 내놓은 50만원 내외의 예산으로 도가집 안주인이 장을 보아서 준비하며 물건을 살 때에는 제물값은 깎지 않고 부르는 대로 돈을 주어야 부정타지 않는다고 한다.

봄치성때에는 제관 2명 도가, 경을 읽고 소지를 올려주는 복자, 도가집 안주인이 제주를 걸르기 위해 참여하며 그외에 다른 여자들은 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제당에 도착하면 먼저 금줄을 걷고 술을 걸르는 동안 제관들은 제당 안을 정돈하고 제물을 진설하며 한지와 무명실타래를 폐백으로 올리는데 매년 새 것으로 바꾸어 건다.

오른쪽에는 수부상이 마련되는데 메 한 그릇과 시루 하나만 놓는다. 이렇게 진설이 끝나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순서로 잔을 올리고 경읽는 복자가 북을 치며 고사를 올린 다음 집집마다 소지를 올리고 선주들을 위한 배소지도 올린다. 소지는 하늘로 잘 올라가야 좋다고 한다.

제사는 대략 30분 정도면 성황제사가 끝나는데 밖에서 잡귀를 쫓는 절차로 음식 일부를 떼어서 물에 말아 뿌리고 난 다음 도가집 여주인이 음복할 준비를 한다. 마을 주민들도 음복에 참여하는데 미처 오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음복하고 남은 음식은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나 도가집에는 아무 것도 가져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제기는 당집에 보관하고 제주 단지는 제당 한쪽에 두고 문을 걸지 않고 내려오면 봄제사는 끝난다. 봄제사가 끝나고 3일 후에 도가집

에서는 경비명세서를 통장에게 보내고 결산을 한다. 이때는 마을의 유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수협 총대, 어촌계 총대, 통장, 도가 제관들이 참여하여 확인한다.

⑦ 장사동 동제

장사동의 동제는 어촌계에서 주관하여 지낸다. ‘웃마을’이라 부르는 1통 1반 지역에서 매년 음력 10월달 초순에 택일하여 오전 12시 경에 ‘당제사’라고 지낸다. 전에는 음력 1월 15일에 정하여 지냈으나 여러 사정으로 택일하고 있다고 한다.

장사동 제당은 모래기 바닷가의 야산 꼭대기로 이곳에서는 ‘망주꼬맹이’라 부른다. 그것은 이곳에서 멀치가 해변가로 몰려드는 것을 망보던 곳이라는 뜻이다.

제당 건물은 근래에 새로 지었는데 가로와 세로 모두 3m 정도의 규모에 기와를 얹은 시멘트 한 칸집으로 청색칠한 나무 문짝에는 태극문양을 그렸다. 내부에는 나무 제단 위에 위패함을 놓고 한지에 15cm 정도의 길이로 ‘城隍大神之位’라고 써서 붙였다.

제보자인 김봉준(남.65) 씨는 축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곳 태생으로 어업을 하고 있으며 벳소리도 잘부른다. 제물은 메 2그릇, 팔시루떡, 주과포, 수퇘지 머리를 놓는데 암서낭이라고 해서 ‘말’은 수놈을 쓴다 하였다. 여기서 ‘말’은 제삿날 제물로 쓰는 돼지를 말한다.

제관의 의복은 생기를 맞춘 사람들이 두루마기, 갓을 쓰고 참여하며 제관들은 날을 받으면 외출을 못하게 한다. 제사비용은 예전에 쌀 한 되씩을 호구당 거두었는데 요사이에는 경비를 전액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제사는 장사동 3개반에서 10여명이 참가하지만 제관만 음복을 하고 각 반으로 음식을 할당하여 보낸다. 장사동 성황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干支 獻官 敢昭告于

城隍大神之位 伏以 三皇繼天 五帝立極 司天司地 神氏分屬
 五獨乾坤 金歐日月 人依於神 神依於人 人神相資 乃成祀事
 非人無祀 非神無賴 每當此時 惟我遣禮 鑑此微誠 降福消災
 照臨于上 陰號于下 既蒙舊德 更彼新恩 三農豐登 六畜繁殖
 漁大出漁 滿船歸港 三物賓興 萬祥漸湊 增福增壽 消災消災
 子子孫孫 世世吉昌 官災口舌 消盡火災 虎豹盜賊 驅之遠方
 若有疾厄 維神所護 有凶有吉 先見夢思 誠雖菲薄 神庶歆格
 尚饗

(8) 중앙동 동제

중앙동의 동제는 매년 음력 9월 중에 택일하며 이촌계에서 주관한다. 제물은 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각 부분을 장만하며 기타 메, 어물, 시루떡 등을 차린다. 중앙동 제당은 중앙시장으로 내려가기 전 왼쪽 야산으로 올라가면 교회가 있고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제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팔작지붕 청색칠을 한 기와를 얹었다. 외부 입구에는 격자문, 내부는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 건물은 1930년대에 지었다고 하는데 동해바다를 향하고 있고, 내부에 위패와 화상을 봉안하고 있다.

위패는 30cm 정도 크기의 한자로 '城隍之神位'라고 썼으며, 화상은 가로 50cm, 세로 1m의 크기에 정면에서 좌측은 남성황신과 수부신상, 우측은 여성황신의 화상을 걸었다.

남성황신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의 모습이며 지팡이를 잡고 있다. 여성황신은 족두리를 쓰고 색동옷을 입었다. 수부신상은 백마를 끌고 있으며, 머리에는 전립을 쓰고 있다.

⑨ 금호동 동제

금호동 마을의 성황제는 선주협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10월 중에 택일하여 지낸다. 성황당은 중앙동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20분 정도 좁은 골목을 끼고 원쪽 야산으로 올라 가면 다소의 평지와 주변에 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다. 멀리 조도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인데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보존상태도 좋은 편에 속한다.

제당 건립연대는 상량문을 보면 '檀紀四千貳百九拾貳年己亥開基五月八日庚寅立柱上樑同月拾參日乙未未時'라고 되었으므로 1959년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제당형태는 팔작지붕에 기와를 얹었고 슬레이트 지붕을 써웠다. 지붕색깔을 붉은 색, 기둥은 목조에 청색칠을 했으며, 상단에는 단청을 칠해서 특이한 모습이다. 건물은 사방 5m, 높이는 3m 정도의 한 칸 건물로, 주변에는 시멘트로 담을 쌓았다. 제당 전면 2평내외는 비워 두어서 비가 오더라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어 있다.

뒤쪽에는 미닫이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내부에는 제단을 만들었고, 화상을 걸었다. 화상은 모두 세 개로 중앙 좌측은 중심 신격으로 보이는데 관복을 입은 노인이 있으며, 좌우에 시녀 두 명이 그려져 있다.

좌측은 거북이와 생선, 오징어 등이 바다속에서 다니는 모습이다. 또한 왼쪽에 있는 화상은 수부신으로 말 한 마리와 이것을 끌고 있는 마부신의 모습이다.

속초지역의 어촌 성황당에는 대체로 화상을 많이 걸어 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성황당의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그리고 성황제를 주로 어촌계에서 주관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2) 장승제와 짐대제

속초지역의 장승제와 짐대제는 유일하게 대포동 외옹치리에서만 지

내고 있다. 마을에서 매년 장승제와 짐대제를 지내고 3년마다 풍어굿을 한다.

마을에서는 매년 3월 삼진과 9월 중구일에 성황제를 지내는데 마을에서 성황제를 지내는 동안 제관 2명은 따로 내려와 마을 입구에 있는 '골맥이성황신'인 두 장승 앞에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술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다음에 '새옷 해입힌다'며 장승에 문종이와 실을 페백이라며 매달고 술 한잔 붓고 두 번 절한다.

장승에 걸어 놓은 이전의 페백은 떼어서 불에 태우고 고사는 천하대장군부터 지내는데 현재의 장승은 1994년에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이 마을의 장승과 짐대가 서 있는 곳은 조양동에서 해안가로 진입하여 자동차로 약 10분 정도 들어오면 바닷가에 철책을 쳐놓은 곳의 옆에 위치한 외옹치 마을입구다. 영서지방에는 여러 군데 장승과 짐대가 서 있지만 영동지역에서는 유일하다.

본래 장승과 짐대는 현재보다 마을 쪽에 가까이 있었는데 1984년 수해때 새롭게 주택들이 들어섬에 따라 신작로 길이 꺾여져 마을로 들어오는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길 양쪽에 있는 한 쌍의 장승이 바다를 바라본 상태로 설명하면 오른쪽 밭 가운데에는 '天下大將軍'이라고 검은 글씨를 써놓은 숫장승과 짐대, 그 원쪽에 '地下大將軍'과 짐대가 있다. 두 장승은 소나무에 붉은 색칠을 했으며 높이는 둘 다 120cm 정도이고, 둘레는 90cm 정도다.

천하대장군은 머리에 상투형태를 했으며, 얼굴을 검은 색으로 눈을 그렸으며, 코는 양각으로 파냈다. 이에 반해 지하대장군은 상투는 없고 눈·코·입만 그렸다. 두 장승의 하단부에는 명주실과 세 겹으로 접은 한지를 장승에 묶어 놓았다. 장승을 만든 나무는 마을 뒷산에서 소나무를 잘라 두 개의 장승을 만들게 된다.

짐대는 대략 3-4m의 높이로 '오릿대'라고도 하는데 갈매기 모양으로 한 마리를 소나무로 깎아서 올려 놓았으며, 새의 부리가 향한 곳은 바다와 반대방향이다. 이 새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며 장승과 함께 3년마다 새로 깎아 세운다.

장승과 짐대는 3년마다 가을 성황제 때를 맞추어 새로 깎아 세우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일 일주일 전쯤에 소나무를 베어 도가집으로 옮겨놓고 장승을 만들어 하루 전에 미리 세운다. 이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전 장승과 짐대는 태워서 없애고 새로 세운 장승에는 '폐백드린다'면서 한지와 명주실을 장승의 몸통에 천하대장군부터 묶는다.

이 마을에 장승과 짐대를 세우게 된 것은 이 마을 서원순 할머니가 25년전에 심한 병을 앓고 집안에 풍파가 심했는데 꿈에 '팔대장승'을 보고 나서 원래 이 마을에 있던 장승과 짐대를 다시 세우면서 집 안도 평안해지고 마을도 조용해졌다고 한다.

주민들은 재수가 없거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장승에 가서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한지와 무명실을 걸면서 소원을 빈다. 대포동의 짐대신양은 강릉시 강문진또배기를 비롯하여 강동면 심곡, 금진, 낙풍리, 삼척시 원덕읍 등지와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양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3) 무속신앙

(1) 용왕굿

속초의 어촌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용왕굿을 지낸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마을제와는 달리 별신제로서 풍어굿의 형식이다. 따라서 동해안 별신굿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해안 지역에서 열리는 무속인들의 별신굿 또는 용왕굿은 김태곤¹⁹⁾, 서대석²⁰⁾, 최길성²¹⁾, 김선풍²²⁾의 무속조사나 구비문학 또는 신

19) 김태곤, 『한국무가집』1, 집문당, 1971.

20) 서대석·최정여, 『동해안무가』, 협설출판사, 1974.

21) 최길성, 『한국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22)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2~4, 속초시·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양관련 조사가 개인적으로나 학술단체에 의해 있었으며²³⁾, 필자에 의한 굿놀이나 설화, 민간신앙 조사보고가 있었는데²⁴⁾ 이 가운데 속초지역도 더러 조사되었다.

대포동 용왕굿을 보면 3년마다 통장의 주관하에 어촌계와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다. 가을 제사일인 음력 9월 9일 제사가 끝난 당일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사흘 밤낮 굿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요즘은 당일날과 다음날 오후 무렵에 끝을 내는 1박 2일 정도다.

용왕굿의 절차는 제관 2명이 무당 서너명과 함께 소머리, 제물, 술잔, 양초 2개를 가지고 '글백이 성황신'인 암수장승에게 가서 간단하게 강림굿을 하고, 대나무 신목에 신내림을 받은 다음 다시 성황당 앞의 굿당으로 올라가 신목을 성황당 건물 벽에 세운 다음 본격적인 굿을 한다.

서원순씨가 도가를 맡고 행사를 주관하는데 먼저 밤중에 성황고사를 올린 다음 장승을 모셔다가 굿당에서 진행한다. 이때 대를 내려 장승을 모셔오게 되고, 장승 모시려 갈때는 '말머리'라 부르는 소머리 한 개, 파일, 술 등을 간단하게 차려 제관과 성황대잡이, 무녀들이 따른다.

술잔을 장승에게 올린 다음 신이 내려면 무녀는 "천하대장군 모시고 당으로 가십시오"고 하며, 대를 앞세우고 굿당으로 내려온다. 굿당으로 올 때는 도가집이나 무당을 청하길 원하는 가정에 들려 지신을 밟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굿당에 돌아오면 신대를 세워 놓고 용왕굿을 진행한다.

굿의 순서는 부정굿·천왕굿(성황굿)·조상굿·칠성굿·세존굿·군웅굿·성주굿·손님굿·제면굿·꽃굿·등놀이굿·뱃놀이굿 등 12

23)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해안지구학술조사보고서』, 1976.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도 동해안 항포구 향토문화조사보고』, 1983.

24) 장정룡, 『동해안별신탈놀음굿연구』, 『관동어문학』3, 관동대, 1984. 장정룡, 『동해안별신굿놀이의 연극적 고찰』, 『연극학연구』1, 부산연극학회, 1990.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장정룡, 『동해안 마을신앙과 설화』, 『인문학보』15, 강릉대, 1993.

거리가 행해진다. 이 굿은 동해안 별신굿의 절차와 같은데 참여하는 5~6명의 무격일행이 주로 속초와 강릉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고성에서 부산 일대까지 활동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거리인 뱃놀이굿이 끝나면 바닷가 축항으로 나가 물굿(용왕굿)을 친다. 이때에는 따로 제물을 장만하여 지내고, 선주들도 각자 작은 제사상에 주과포와 메 한 그릇, 향과 초 등을 간단하게 상을 차려 제방 둑에 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올린다.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도가집에서는 '맑은 치성'이라고하여 메를 새로 지어 삼색실과와 나물 한 가지씩을 장만하여 성황당에 가서 절을 하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다.

대포동 외옹치의 용왕굿 용신가와²⁵⁾ 필자가 조사한 중앙동의 용신굿은 다음과 같다.²⁶⁾

용신님은 서인고로 지서을 배를 모아
유수 강백 만중에 배삼척이 떠나온다
저 배 이름이 무엇인가 선계용선이 아니신가
이물애 닻줄걸고 삼몰애 용천걸고
범하경을 담북 싣고 저 배 침때를 살펴보니
구백떼를 세요놓고 몰래 용천 살펴보니
강남서 나오시는 청당사호 당사배 줄매여 던져놓고
이물에 오른 님은 문수보현보살 오르시고
고물에 오른 님은 지장보살 오르시고
선주하고 오른 님은 관음보살 오르시고
우편의 오른 님은 석가여래 오르시고
일력거꾼 살펴보니 나만 존자몸인 존자가
사조자성 문명자 오르시고
일력들아 동력들아 화잠하고여 오른 님은
이양로 금산붓처 팔공도주 절법에
무강하든 공덕정용신에 모셔놓고

25) 서준섭, 『강원도 동해안 항포구 향토문화조사보고, 구비문학부문』, 『강원문화연구』 3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3, 121쪽

26)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263~265쪽

일체 풍류하실 전에
 세면에 처하용이요 색구름을 방패하다
 육도야 저 중생들 생년화를 심어놓고
 칠보궁전을 내리시며 염불한다
 급히 급히 법성전아 모모 이승 자롱아 닷잡아라
 수영바람이 건들 건들부니
 모래수 계수남개 뱃줄매어 던져놓고
 고어열신금일명가 오은관을 쓰게하고
 칠보옷을 입겠으니
 가사 상제문을 멀제 극락세계 가나이다
 저기 가는 저 보살님요 어디까지 가나이까
 나도야 그 안이라 부모형제 기구받고
 처자주에 숨씨받아
 사왕이라 염주목에 생년화를 심어스니
 를주려 가나이다.

제보자, 1983.7월 외옹치 김옥순.(여.46)

남산부주 대한민국 강원도 이십육관이고
 이골군은 아무개군이요
 이골면은 아무개면이요
 명당터전은 아무개 명당터전이요
 남산은 본이요 주산은 국이라
 사두강남은 쓰리지고 안간은 간이여 갑산은 제자라
 여산이 동업이요 중님이 행차로다
 스물여서 중도가남은 옛날 옛적 갓날 저갈적
 아장구 설법시절 송덕씨 말문시절
 시우야 삼년두리 거리별신아
 내 별신아 받으시던 성황님을 모신뒤로
 사해수중 용왕님네 천지공전 일월성신
 동해바다 용왕님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북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앞바다가 열두바다 뒷바다가 열두바다
 물위에 거품용왕님네 물밑에 수지용왕님네
 용두용세 당신은 무엇을 불어주었나
 올라가는 대명태 내려오는 대대부

소대부 불러주었네
 북해바다 용왕님네 용두용두 용일세
 당신은 무엇을 불러주셨나
 대공치 소공치 대우래기 소우래기 불러주었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당신은 무엇을 불러주었나
 대칼치 소칼치 대오징어 소오징어
 온갖 고기 불러주었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용두용두 용일세
 당신은 무엇을 불러주었나
 대문어 소문어 대전복 소전복
 대삼치 소삼치 왕바우 덕바우
 칼마치 덕바우 온갖 고기를 불러주었네
 먹고 사는 소출로 고기잡아 먹기를 마련하여
 산진 거북이 돌진가제라
 이 물가에 사는 연고로
 사해용왕님만 믿고 만경창파에
 쪽박같은 저 배를 타고
 임자없는 철량 재물얻으려고
 눈이 오는 설중이나 비가 오는 우중이나
 이밤 저밤 야밤 삼경에도 물결을 따라
 저 바다에 나가 물밑에 기는 재수
 물위에 기는 재수 뱃머리에
 청기홍기가 춤을 추며 나갈 적에는
 온짐 싣고 이물칸 골칸 다 채워
 아무쪼록 하시나마 가래소리 등천하여
 비늘옷에 비늘신에 각성받이 육성받이
 자애자손들 주물망자 시망자
 낙시바리 시바리 부릴적에
 모진 풍파 바람전 구름전 모두 걷어
 재수다망 일취월장 소원성취 열어주시오.
 제보자: 중앙동 8통4반, 이명례(여.52)

대포동과 청호동의 용왕굿에 대한 절차와 무속인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정춘자 씨와 빈순애 무녀는 속초지역의 용왕굿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정춘자: 굿을 하는 장면에는 아침 새벽에는 하얀 흰시루, 밥을 해 지어 가지고 서낭당에 올라가서 맑은 치성이라는 기 있어요. 맑은 치성. 사람 안 보고, 일 냉길 때 새벽 한 시, 열 두 시에서 두 시, 고 새에 올라서 어른들이 제관으로 옷입고 올라가서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 날로 내려와 가지고, 날이 밝아서 낮에 한 열시나 열두시 되면 소 잡고, 그 다음에는 갖은 것 다 하지요. 아래 가지고 첫 번에 굿을 시작하는데는 거리굿이 부정풀이를 먼저 해요. 어판장에다 크게 갯대라는 거 걸고, 굿당을 크게 지어놓고, 등, 꽃, 별란 것 다 맨들어서 호화찬란하게 해놓구는 이제 거기다 음식을 채려놓고 제일 먼저 하는 굿이 부정거리, 그 다음에는 “골맥이 성황할아버지, 할머니 내려오십시오”하는 굿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 주민들 가정에 조상굿도 해요. 그 다음에는 네 번만에 아들, 딸 태워준 삼한 세존님, 부처님굿, 그리고 성주굿해요. 집집마다 성주가 계시거든. 그 다음에 군웅대감. 옛날에 벼슬해 잡듯던 할아버지, 높이 글문장하던 할아버지들, 돌아간 분들을 대감, 군웅대감이라하고 그 다음에 칠성굿을 해요. 그 다음에 산신굿. 우에 칠성이 더 높고, 산신이 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놋동이굿이라는 거 해요. 그 다음에는 놀음굿을 해요. 동네사람들과 같이 놀음굿을 해요. 막어울려서 소리할 사람 소리하고, 노래할 사람 노래하고, 춤출 사람은 춤추고, 동네 재수, 운이 있으라고 놀이굿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하는가 하믄 벳굿해요. 그 다음엔 등굿. 그 다음에 손님굿 해요. 손님굿이란 게 곰보 안 맨들고, 혹 별상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자손들을 손님을 이쁘게 해달고, 남자 여자 얼굴 곰보 맨들지 말라고 손님굿을 해요. 마지막으로 용왕굿을 해요. 저 바다 용왕님, 바다에도 고기주는 용왕님 굿을 그렇게 하믄 끝나요.²⁷⁾

빈순애: 청호동의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인제 풍어와 기원제를 지내요. 고기 많이 잡고, 두 번째는 바다에 나가서 모든 비바람, 풍랑을 맞지 말고, 이제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비바람, 눈비오는 우종이난 눈오는 습종이나 사고없이 그래 태풍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축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용왕에 대해 그거 유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호동에서 3년에 한 번씩 배신굿을 해요. 청호동 바다에 용왕신을 달래서 어민들 안파태평을 바라지요. 이게 근본이 용왕굿 할 때 바다에 어민들 고기잡이 갈 때 무사안파, 태평하고 많은 어물도 불궈 달라고 하는 용왕신을 달래는 근본이에

27) 필자조사, 1997.11.27. 무녀 정춘자(여.63), 대포동 3/2

요.

“모시자 모시자 성황님네를 모시자/남선부중왕에 용왕님을 모시자/강원도 26관/시는 속초시고 동으는 청호동/3년마다 용왕제를 올리는데/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법을 아니내고/옛법 버리지 않는 오늘날 청호동 대동안에/이정성 드립니다/동해안바다에 용왕님네요/남해안바다에 용왕님네요/서해안바다에 용왕님네요/북해안바다에 용왕님네/사해팔망 용왕님을 모시고/물밑에는 옥녀당 용왕님네여/물위에는 거북당 용왕님네/수천당아 용왕님을 모시고/청호동 각성받이 육성받이 자손들/어깨위에 불궈주시는 용왕님네/용도용도 용신님네/당신은 무얼 불과줬나/심을 망자도 불궈주고/그물 망자도 불궈주지/이리가도 미나발/저리가도 미나발/빤빤빤대주여/어서옵셔 옵셔대주/남해안바다 용왕님네여/당신은 무엇을 불궈줬나/동해안 바다고기 불궈줬지/울고간다 우래기도 불궈주고/해망화 소망화 불궈줬지/대명태 소명태 불궈줬지/이리가도 미나발/저리가도 미나발/빤빤빤 대주여/어서옵셔 옵셔대주/서해안바다 용왕님네/당신은 무엇을 불궈줬지/청호동 대동안에/각성받이 고기잡이를 불궈줬지/동지선플널광어/오동통통 복쟁이/대문어 소문어도 불궈주고/대이까 소이까도 불궈줬지/이리가도 미나발/저리가도 미나발/어서옵셔 옵셔대주여/북해안바다 용신님네야/당신은 무엇을 불가줬소/청어붕어 남녀노소/온갖 자손들 고기잡이마련하고/어깨이끼도 불궈주고/우물배도 불궈주고/잠수배도 불궈주고/큰배 작은배도 불가줬지/어장배도 붕어배도 불궈주고/이까산산마일도 불궈줬지/이리로 가도 미나발/저리로 가도 미나발/빤빤빤 대주여/어서옵셔 옵셔대주/청호동 대동안에/각성 육성받이 자손들/명다갚고 축원공덕 올습니다”

이 소리가 동해안 속초시부터 쭉 내려가면서 부르는 소리예요. 청호동에서 3년에 한 번씩 풍어제 마을 행사할 때 무녀들이 이제 소리도 하고, 신을 달래주고, 용왕신을 달래주는 것이예요.²⁸⁾

(2) 수살굿

수살굿은 일종의 해원형(解冤形) 오구굿으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굿이다. 속초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업도중에 해난사고로 생명을 잃은 가정이 많다. 남편을 잃

28) 필자조사, 1997.11.28. 무녀 빈순애(여.39), 교동

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닿아 몸이 아프고, 정신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버리기 위해 무당을 불러 소규모로 굿을 한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무녀 2명, 화랭이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에서 어느정도 멀어지면 가지고 간 산 닭다리에 끈으로 묶어 바다에 던진다. 그때 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 같이 던진 다음, 남자무당인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혼대'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달아매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일영가 아무개, 금일영가 아무개, 금일영가 아무개"라고 망자를 세 번 부른다.

이는 초혼(招魂)의 무속적 행사로서 배에 있는 상주가 "예"라고 대신 대답한다. 그러면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마른 옷을 갈아입고 육지환생하옵소서"라고 말한다.

인혼대를 몇차례 더 휘두른 다음 인혼대를 내려놓고 마른 옷을 바다에 던진 닭과 밥그릇을 끌어 올린다. 끌어 올린 닭이 죽지 않았을 때는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화랭이는 끈을 당기면서 혼신 전 염불인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바다에서 건져낸 혼백을 담은 뜻자리와 위폐를 굿당으로 모시고 죽은 닭은 곧 망자의 육신이라고 여긴다.

물에 빠져 사망한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혀 소나무 신목을 잡고 강신이 되면 굿당에서 혼신을 건져 싸서 가져온 뜻자리를 보고 미망인이 쓰러지면 무녀가 미망인을 뜻자리로 덮어준다. 그리고 무녀는 복숭아 나무로 뜻자리를 때리면서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많고 원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이라며 수살잡귀를 내쫓는다.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려서 수살귀를 쫓으면 미망인은 평소처럼 제정신이 되고 아픈 몸도 낫는다고 한다. 미망인은 기쁜 마음으로 혼백을 길가름 해주는데, 길가름은 혼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이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이로 서면 무녀는 뜻자리와 혼백상자를 가슴에 안고 춤을 추면서 몸으로 긴 광목천을 가르면서 무가를 부른다.

무녀가 천을 갈라 길가름을 하면서 혼백상자를 이끌고 나갈 때 상주

들은 천위에 노자돈이라며 돈을 놓고 절을 하면서 혼백이 잘 천도되기를 빈다. 천을 완전히 갈라서 두 갈래가 되면 천을 양쪽으로 갈라쥐고 머리 위까지 올리며 극락춤을 춘다.

극락춤은 '상여소리'를 하는데 출상하는 만가를 부른다. 무녀의 선소리에 맞춰 주민들이 상여꾼이 되어 뒷소리를 한다.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추고 나면 제사밥을 함께 나누어 음복한다.

이 극락춤은 상주뿐 아니라 평소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수살고혼이 된 망자의 혼백을 건져 올려서 좋은 곳으로 천도한다.

무녀의 인도로 극락왕생을 한 망자의 고혼은 미망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굿은 해난사고로 충격을 받은 가족을 위무하고 억울한 망자의 영혼이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뜻이 있다. 일종의 위령굿이며 해원굿인 수살굿은 속초지역의 특수성을 지닌 어촌신앙의 하나이다.

정춘자: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으면 우리가 혼을 불러서 고사를 할 때 용왕님한테 빌어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들어 왔다." 어떤 것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간지 없다." 이러면 혼은 들어와도 물밑에 있고, 안 들어와도 물밑에 가라 앉아 고기가 다 뜯어 먹어도 물밑에 혼이 있고, 그럴 때는 용왕님한테 비는 거야. 아무개 김뭐이, 최뭐이 이름써서 산닭 집어넣고 그 사람 혼이 나와달라고 그것을 사해용왕님에게 비는 거지. 뭐 육로로 환생해 달라고 그저 비는 거여. 어찌든지 좋은데 보내달라고 비는 거여. 시정을 하는 하는거지, 고기 못잡으면 고기잡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지. 혼을 불러올 때는 닭은 넣어야돼요. 닭을 안 넣으면 그 혼이 안나와. 또 해야되고 하니 죽은 것은 넣지 말고, 산닭을 넣어야 돼. 밥그릇에다가 밥을 딱 떠 가지고 뚜껑을 덮어 가지고 매어서 끄나풀을 길게 하고 닭도 밥을 묶어 가지고 끄나풀을 질게 해서 똑같이 남자들이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막 혼을 부르는 거야. "용왕님, 사해용왕님요, 내 명에 죽었는지, 남의 명에 죽었는지, 용왕님앞에 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쌍한 중생 혼을 좀 육로로 환생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닭이 물에서 휙 땅기다가 물먹고 죽으면, 그 혼이 또 오는 거야. 그거

안 넣으면 혼이 나올 수가 없어. 또하고 또 해야돼.

닭이 숨지면 그것을 불러내다가 닭을 끄집어 내다가 땅파고 묻어. 손없는 방우(방위)에 삼살방우 나쁜 방우에다가 묻으면 안되고, 손없는 그 해 손없는 방우에다가 땅을 파고 그 닭을 묻는다고. 땅에 묻어. 그러면 그 사람 혼이 나오는 거지. 물밑에 고사는 안하지. 물에 죽은 사람은 그래 굿을 해주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으면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있는 사람이나 배타는 사람은 바다에 용왕에 나가 잘 차려서 나가서 물결치고 바람 불더라도 아무 탈없이 무사하기를 빌고. 그 다음에는 좀 먹고 살게 용왕님께 재수 있게 해달라고.

(3) 설망축원굿

'설망'은 배를 만들어 처음 바다에 내리는 진수식을 말하는데, 이때 간단하게 굿을 한다. 이는 일종의 고사형태로서 무녀가 축원굿을 하는 어로신앙이다.

배를 다 만들면 선주는 제물을 준비하여 도사공과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을 불러 고사를 지낸 다음 든대질로 설망을 하게 된다.

배를 바다에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무로 '든대질'을 하는데 괴꾼과 든대꾼 수십 명이 힘을 합쳐, 든대소리를 하면서 항구가 있는 개안이나 항구가 없는 날바리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²⁹⁾

청호동의 진수식 과정은 다음과 같다.³⁰⁾

진수를 할 때는 배는 육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물로 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무개 배를 진수하니까 모두 구경삼아 또 친구되는 분은 그 위로 삼아 이래서 많이 메우지요. 그게 그거는 즉 말하자면 배풍년이라고. 이 배가 진수하는 동시에 바다에 나가면 언제든지 "만선을 시켜주세요" 하는 그런 말하자면 축을 고하는 그 배에 대한 고사지요. 그러니까 그 집 배의 성명없는 주인이지요. 성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자가 성주한

29) 장정룡, 『東草의 民俗』, 속초문화원, 1987, 34쪽

30) 최임규, 『동해안 뱃소리』, 『논문집』2, 동우전문대, 1986, 43쪽

테 절을 하고, 축은 딴 사람이 불러도, 그 분이 절을 하고 아래 술을 권하고 이렇게 되지요. 선주하는 분이, 그 제를 지낼 때는 육지에서 안 지내지요. 물론 바다에다 내려놓고 배를 물위에 뜯 다음에 이제 제사상을 갖춰 가지고 올라가서 선주라는 그 분이 말하자면 그 성명없는 성주라. 이렇게 무명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배를 내렸으니까 앞으로 그저 바다에 나가면 만선해 주십시오”라는 걸 간청하지요.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도야지를 잡는다든가, 소 같은 것으로 잡는 데도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대개를 보면은 도야지를 잡지요. 그래도 도야지를 아주 큰 걸 잡으면 사람이 200명도 좋고, 150명도 좋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요. 다 그러니 도야지 잡고, 떡도 치고, 술, 국수 이렇게 등 등을 갖춰 여러 가지를 갖춰 여러 분을 위하지요. 대접시키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를 만들어 만선기라고 있습니다. 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술을 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말하자면 찬칫집에 가면 부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선주한테 바치면 아주 고맙다고 아래 가지고 이렇게 모두 빈손으로 오는 것은 없고 대개 어린애들 같은 사람은 빈 것으로 오지만, 성년이 됐다하면은 아무개 진수식을 한다 이러면은 그저 오는 법이 없지요. 큰 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에다 쓰지요. 대개 대풍이라 그러지요. 대개 붉은 것하고 푸리푸리하고 이런 것 두 가지 색으로 하지요. 그리고는 가운데 3분의 1쯤 갈라졌지요.³¹⁾

새로 만든 배에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의 삼색천을 옆으로 길게 이어붙인 ‘성주기’를 꽂는다. 그리고 성주기 위에는 소나무를 묶고 태극기를 달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 달아 ‘설망대’라 부른다.

진수식(進水式)을 속초에서는 ‘설망’이라 한다. 배가 바다에 이르면 이때 여러 개의 만선기를 배에다 장식하고 나서 무녀가 ‘성주에 메지어 올린다’며 고사를 올린다.

선원들 모두가 배에 올라 타면 선주가 배성주에게 재수를 많이 달라고 빌며 한지에 실을 묶어 배성주를 모신다. 성주는 선장실에 모시게 되는데 여성주와 남성주가 있어 둘 다 부를 때는 메를 두 그릇 놓지 만 남성주만 부를 경우, 메를 한 그릇만 상에 올린다.

무녀는 배성주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남녀신의 성별을 이야기 해준

31) 필자조사, 1987.5.27, 김형준(남.74)·빈순애(여.25), 청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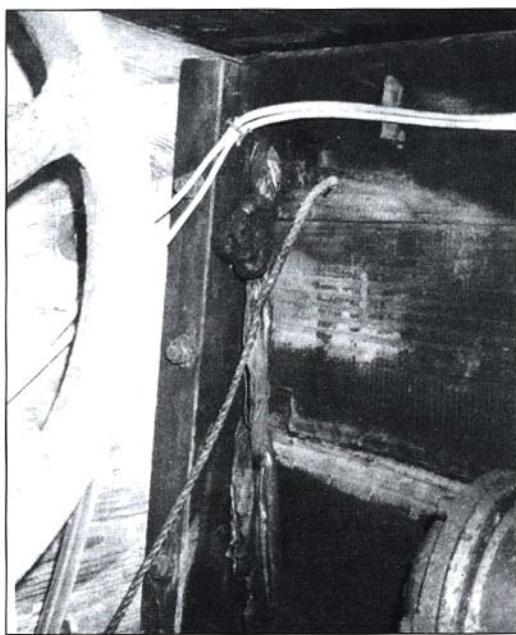
다. 성주에게 고하는 도중 무당들은 그 배에 탄 선원중에 부정을 타거나 생기가 맞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바꾸라고 말하기도 한다. 선주들은 무당의 말에 따라 선원을 다시 뽑기도 한다. 설망굿은 다음과 같다.

우리동무 열한명/상고로 위엄하여/조수타고 경세경년에/포박서남 다니더니/오늘날 속초시/각성받이 어부들이/소원성취 비나이다/동해신 아명이며/남해신 축용이며/서해신 거승이며/북해신 웅강이며/강한지종과 일체동감 하옵신후/비령으로바람주고/해약으로 인도하여/백철금 되로내게/소망이뤄 주옵소서³²⁾

32) 제보자:조일랑(남,73), 1985.7.3. 최임규 조사, 1990.11.17. 장정룡 조사 내용 중복됨.



〈용왕굿하는 빈순애 무녀〉



〈배성주 모습〉

제3절 어로활동과 어로기술

1) 어촌계(漁村契) 활동

어촌계는 어민들과 긴밀한 모임이다. 계(契)는 협동단체의 하나로서 계원의 상호부조·친목·통합·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¹⁾

따라서 계는 이익집단 내지 기능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한 이해 또는 여러 가지 이해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하나의 집단이다.

계는 농촌이든 어촌이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 '두르다'라는 어원을 가진 두례(徒), 도(徒), 접(接), 사(社)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²⁾

어촌계는 어민들이 협력을 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체로서 어민들을 위해 만든 것이며, 대표적인 어민의 기관인 셈이다. 어촌계는 크게 나누어 법인 어촌계와 비법인 어촌계로 나뉜다. 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공적 조직체이며, 비법인 어촌계는 마을 자치조직 형태로 구성된 것이다.

속초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에는 법인어촌계로 대포어촌계가 하나 있으며, 비법인어촌계는 5개로 장사(章沙) 어촌계, 영동(永東) 어촌계(영랑동과 동명동), 중호(中湖)어촌계(중앙동과 금호동), 청교(青交) 어촌계(청학동과 교동), 청호(青湖)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어촌계인 대포어촌계는 대포리·외옹치·내물치 어촌계가 연합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27쪽

?) 주강현, 『한국의 두례』1, 집문당, 1997, 31쪽

하여 한 개의 어촌계에 속하고 있다. 법인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하고, 출자금은 마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법인어촌계에 속한 계원에게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출어자금이나 기타 대부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비법인어촌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어촌계원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개 마을에 몇 년간 거주했다는가, 전체 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비법인어촌계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거나 생산된 어물판매장을 개설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상부상조하고 있다.

법인어촌계인 대포동 어촌계는 세 개의 소단위 어촌계로 나뉘는데, 먼저 대포리 어촌계에는 전체 어촌계원이 230명으로 총 152척의 배가 있다. 채낚기와 연승이 22척, 자원관리선이 2척, 나머지는 자망 어선이다. 관리선에는 잠수직원 2명과 승선원 4명이 승선한다. 해남은 40명이 있고 해녀는 청호동이나 고성에서 불러오는데 이들은 1종 공동어장에서 해삼·성게·전복 등을 채취한다.

외옹치 어촌계는 계원이 52명이며, 배가 총 13척인데 5톤이 4척, 나머지는 소형 어선이다. 공동어장에서 전복·홍합·성게를 채취하고 가리비는 어민후계자가 개인적으로 양식을 한다. 공동어장에서 올린 수익은 6월에 중간 결산, 12월에 총결산을 한다.

내물치 어촌계는 42명이 계원이며, 배는 전체 30여척인데 항구가 없어 대포에 정박시킨다. 어촌계에 속한 배는 채낚기 어선 2척, 2.5톤 3척, 나머지는 1톤내외 소형자망어선이다.

공동어장에서는 전복과 성게를 양식하여 성공하고 있으며 원근해에서는 명태를 많이 잡고, 연중 자망을 사용하여 이면수·청어·광어·가자미·숭어·노랭이 등을 잡는다.

어촌계에서는 전복과 성게따는 날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갖고 한 해의 결산을 위해 1월 초순에 총회를 연다. 어촌계 임원은 2년마다 새로 선출하고, 재임이 가능하다.

장사어촌계는 계원이 68명이며, 95년부터 3톤짜리 3년된 연안유자망 어선을 갖고 있는 맹승렬(남.43)씨가 계장으로 재직중이다.³⁾

이 마을에는 배가 모두 30척이며 주로 채낚기와 통발에 종사하고

있다.

어선구성은 소형어선인 자망 20척, 연승이 10척이며, 어획물은 가자미·광어·명태 등이고 공동어장에서 가리비와 전복을 양식한다. 양식장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채취를 하며 과거에는 성게를 주로 채취했으나 요즘은 가리비를 양식하고 있다.

어촌계에는 수협 대의원 2명, 어촌계 총대 10명, 감사 2명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연말에 갖고, 수시로 임원회의를 열고 있다. 어촌계에서 가리비를 납품받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예산에 따라 살포씨를 바닥에 양식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머구리배(잠수기)를 2척 소유하고 있으며 직매장을 운영하고, 공동어장에서 나온 수익금은 출자배당금으로 소득에 포함하여 지난해에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배당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함흥호 선장인 어촌계장의 연간 소득은 총 3-4천만원이며 그물을 사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든다고 한다.

속초수협 산하 영동어촌계는 비법인으로 영랑동과 동명동이 합쳐졌으며, 동명항에 사무실과 직판매장을 갖고 있다. 어촌계원은 영랑동 38명, 동명동 85명으로 전체 123명이다.

대부분 선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명동은 89척을 소유하고 있다. 통발이 32척, 채낚기 32척, 자망 25척, 연승 10척, 잠수기 7척, 정치망 4척이다.

주로 잡는 어종은 오징어·꽁치·명태·양미리·송어 등이며 먼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한다. 근해에서는 봄에는 도다리, 가을에는 광어를 잡는데 이밖에도 이면수·열갱이·우래기 등을 잡아서 동명항 활어센터에 납품한다. 공동어장은 200ha이며 주로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어촌계에는 해녀가 15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성게·문어·전복·해삼·홍합·바지락·다시마 등을 채취한다. 제주도 출신인 해녀에 따르면⁴⁾ 다시마를 채취하여 며칠씩 모아 5-6만원정도를 벌고, 고기 미

3) 필자조사, 1997.8.22, 맹승렬(남.43), 장사동 어촌계

4) 필자조사, 1997.10.28, 이기순(여.74), 동명동

끼인 굴치작업을 3일정도하면 7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

청호어촌계는 163척의 어선이 있는데, 어민은 370명 정도이다. 어선 구성은 무동력선이 1척, 15톤 미만 149척, 15톤 이상 13척, 연승 54척, 유자망 13척, 머구리배 4톤급 1척이 있다. 머구리배에는 선장, 잠수부, 선원 등 3명이 승선하고 해녀는 15명인데 죽도 근처에서 홍합·전복·미역 등을 채취한다.

어선들이 주로 잡는 어류는 명태·오징어·이면수·청어 등이며 정치망은 없고 배의 입출항이 많아 공동어장의 수익이 높지 않다. 어촌계 총회를 12월에 열고 있으며, 자생단체인 종성협회는 소형어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촌계원들이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경영하는 어업을 말한다. 지선어촌계원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성격상 어장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잔동력이 큰 다른 어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면허제도로 토지와 같은 물권으로 인정하며 어촌계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어업의 종류는 제1종, 제2·3종 공동어업이 있으며 허가기간은 제1종이 10년, 2·3종은 5년으로 수산어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속초의 공동어장은 575.08ha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전복·성게·해삼·미역·문어 등을 생산하여 수협어판장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속초의 법인어촌계는 제1종 양식어장 50ha 면적에서 가리비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1종 공동어업은 수심 15m이내의 해역에서 끌개, 나잠, 낚시대 등으로 해조류와 정착성 유용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어업이다. 현재 속초시에 장사동, 대포동, 대포내물치, 대포외옹치 2건, 속초지선에 각 1건씩 총 6건의 1종 공동어업권이 있다.

제2종 공동어업은 연안으로부터 500m 이내 해역에서 저인망 어구 등을 육상에서 인력을 잡아당겨 멸치·잡어 등을 채포하는 어업으로 속초시에는 어업권이 없다. 2종 양식어업은 43.5ha에서 가리비와 전복을 개인이 양식하여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에서 관할하는 어장은 공동어장, 정치성 구획어장, 제1종 양식어장이 속하며, 제2종 양식어장과 정치망 어장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제1종 양식어장은 2종과 달리 계원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공동 수거하여 공동판매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대체로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에 따라 포획양과 판매양을 제한하고 공동판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제3종 공동어업은 연안으로부터 1.000m 이내의 해역에서 건망, 선망, 삼각망 등을 설치하여 연안으로 회유하는 도루묵·쥐치·방어·고등어 등을 채포하는 어업으로 3건이 있고 모두 건망이다.

양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곳에 유용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이식하여 인위적으로 관리 양식하는 어업이며, 면허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하며, 살포식 및 투석식은 10년, 수하식 및 어류 축양은 7년이다.

속초의 전체 수산인구는 7,369명으로 1,982호구에 822명이 수협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속초시에는 항만청 지정항 1개, 수산청 지정항 1개, 소규모 어항 2개로 모두 4개의 어항(漁港)을 가지고 있고, 수협은 3개소의 위판장과 동명동과 설악동 직매장을 갖고 있다.

어민들과 긴밀한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대하는 임무를 갖는데, 지도사업으로 소득증대, 교육홍보, 경영지도, 조사연구, 어로안전지도를 폈다 있으며, 생산지원으로는 영어자재 및 유류공급, 이용가공을 지원하며, 유통지원은 위탁판매와 가격안정, 금융지원은 여신과 수신, 상호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속초시는 동해안 어업의 중심지로서 1956년 강원도 어업조합연합회는 소재지가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진리 328번지에 있었으며, 속초를 비롯하여 거진·인구·강릉·삼척·죽변·기성·아야진·후포가 속했다. 당시의 속초조합은 회원수가 500명으로 소재지는 양양군 속초읍이었다.⁵⁾

1958년 6월 30일 속초어업조합에 속한 기선은 보유척수 324에 가

5) 李象鶴, 『江原道誌』, 1956, 439쪽

입척수 234척으로 가입율은 72%, 범선은 보유척수 132척, 가입척수 126척으로 95%였는데, 속초어업조합 전체 보유척수는 456척이었다.

당시 어종을 보면 어류에 가오리·가자미·고등어·넙치·대구·도미·메가리·명태·멸치·방어·뱀장어·상어·송어·양미리·우럭·이민수·전어·청어·칼치·홍어·횃데기·황어·뿔락·은어·공치·농어·돌부기·잠어·복장어가 있었고, 해조류는 들짐·미역이 있고, 동식물은 대하·오징어·해삼·새우가 있었다.⁶⁾

1974년 통계를 보면 속초어협의 어선세력은 전체 885척으로 동력선이 453척, 무동력선이 432척이었다. 전체 어업종사자는 전업 4,340명, 겸업 1,199명, 고용 58명으로 5,597명이었으며, 조합원수는 전업 560명, 겸업 44명, 피용 86명으로 690명이었다. 어촌계는 11개로 정계원 690명, 준계원 710명으로 1,400명이 가입하였다.

속초항은 1962년 지정항이 되면서 동해안에서 중요한 어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연안해보다는 원양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⁷⁾

1989년말의 통계를 보면 어선의 크기에 있어 1~8톤 규모의 어선이 417척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명태자망어업 및 연승어업을 하는 어선으로 5~20톤 규모의 선박이 120척이며,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규모는 50~150톤으로 62척이 있다.

정치어업에 종사하는 종사하는 어선으로 1~10톤어선이 28척, 게통발 어선 20~150톤 규모의 어선이 48척,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30~75톤 규모가 18척, 잠수기 어선은 1~5톤 규모로 15척이며,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260~3,200톤 규모가 13척을 포함하여 총 721척의 어선이 속초항에 등록되어 있다.⁸⁾

6) 강원일보사, 『江原年鑑』, 1959(4292)년도, 151~157쪽

7) 강원도, 『江原總覽』, 1975, 505~507쪽

8) 속초시, 『東草市誌』, 1991, 583쪽.

2) 어로기술과 양식재배

속초시 어업의 기술과 양식재배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띤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수산분야관계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로기술과 양식재배 방법을 민속지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속초어로민속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어로기술 또는 어업기술의 연구는 크게 역사적 변천에 관한 거시적 연구와 개별어구와 어법에 대하여 공시적으로 서술하는 미시적 경향이 있는데⁹⁾ 후자는 최근 민속학과 인류학의 조사연구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어로기술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어로기술사 연구는 어업기술의 변화에 따른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대체로 어구와 어법에 관한 내용을 나열하는 정도이며, 한 지역을 조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현장조사한 자료가 나온 것은 어로민속연구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¹⁰⁾

어로기술의 전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민속학에서 추진하는 연구 성과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오늘날의 어로기술이 과거의 전통적 방식과 현대적 방식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어로기술과 양식재배를 서술하는 것은 과거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과거에 맨손으로 채포(採捕)하던 맨손어법(fishing without

9) 권삼문, 「어업기술의 역사」, 『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1996, 679쪽.

10)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 경기도·충청남도편, 1996

gear)이 요즘에도 머구리로 상존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수산물 저장방식인 건조법이나 염장법, 소규모 냉장법이 대량적인 기계화 냉장저장과 함께 유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의 어로기술이 부분적인 특수어종의 양식재배의 경우를 제외하고 300년 이상된 김양식 재배기술처럼 이어져 오고 있어서 부분적인 개선이외에 완전히 다른 기술로 바뀌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속초지역의 어로기술과 양식재배에 관한 조사는 어촌민의 환경인지방식(민속지식)과 도구제작과 그 사용방법, 그리고 사회조직(노동조직, 관리조직)과 행위규칙(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생업기술의 서술이어야 바람직하다.

속초어로민속은 속초의 어민들이 어떤 기술로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수산물을 채취·포획하였는가라는 단순한 도구·기술·기능 등과 집단적 사회체계의 어로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겨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수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속학 연구자가 어업이나 조류, 수산업 연구자보다 어로민속을 훌륭하게 수집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다. 하지만 어촌민속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이론 방법론을 성립시키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어촌민속지적 작업에 대한 두 가지 방향 즉, 어촌의 특수한 민속현상인 어로에 관한 집중적 조사기술과, 다른 하나는 어촌이란 촌락의 민속현상 전반에 접근하려는 민속지적 기술태도다. 민속지는 단순하게 자료를 집성해서는 곤란하며, 현장과 부단한 교류를 통해서 정립된 인식론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해과정 자체와 이러한 사물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민속학의 현장은 단순한 자료수집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장, 인식과정을 토대로 한 이론 방법론의 성립과 관철의 장이다.¹¹⁾

따라서 몇 가지 문헌조사와 현지답사자료를 포함하여 나름대로 속

11) 조경만, 「민속분야 연구의 반성」, 『도서문화』 7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9, 262쪽 참조.

초어로의 어업기술과 양식재배의 서술 및 어민의 인식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어업은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해도 공통점과 함께 나름의 독특한 방식을 지닌다. 즉 해황과 어업의 관계는 밀접한데 물의 온도, 깊이, 먹이종류, 소금기의 정도와 같은 환경요소에 물고기의 종류가 좌우된다.

물고기의 종류가 난류성과 한류성에 따라 다르듯이 어로도구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기배의 구조나 그물의 모양, 어전, 작살, 낚시, 어항과 같은 도구들이 그렇다.

동해바다에서는 자망질, 모리질하기에 편하게 예전의 풍선 고기배는 앞이 좁고 길며, 배의 높이가 얕으며, 하나의 둑대에 짧은 키를 사용하게 된다. 그물의 재질 변화는 우선 천연섬유에서 합성섬유로 바뀌어 강도를 높였으며, 동해안에서는 깊은 물과 굴곡이 심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므로 자망·후리그물·덤장·물이그물을 썼다.

도구도 동해안에서는 미역이나 해조류를 비틀어 뜯는 틀개나 갈구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제주도의 해녀들이 아주 정착하고 있으며, 해남의 머구리도 맨손 채취어업의 특징을 보여준다.

속초지역의 어로와 재배는 맨손어법, 잠수기어업, 살상어구, 낚시어구로(조구류), 주낚류(延繩類), 봉낚시류, 오징어낚시류, 함정어구류, 통발류, 끌어구류(引網類), 걸어구류(刺網類), 깔 걸그물류, 삼중얽애그물(三重纏絡網), 정치망류, 투망류가 있다.¹²⁾

맨손채취는 수산물을 직접 손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도구로 채취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크가 작은데 손으로 더듬거나 육안 또는 감각으로 발견하여 직접 손으로 집어 옮린다.

손꽁치를 잡는 것이나 조개류를 채취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 손꽁치는 꽁치가 산란기에 바다풀에 모여 산란하는 습성을 알고 바다풀을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손을 넣어 손가락 사이에 낀 꽁치를 어획하게 된다. 과거에는 구멍뚫린 가마니 밑에 바다풀을 달았으나

12) 최유길, 「수산」, 『속초시지』, 1991, 573~709쪽 참조.

근래는 대나무 4~5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줄로 엮어 그 사이에 바다풀을 달고 있다. 이것을 '뜸북' 또는 '몰'이라 한다.

손꽁치 채포는 0.5톤 미만의 전마선을 타고 나가서 잡는데 꽁치가 모이면 뜹북을 당겨 전마선에 가깝게 붙이고 손가락을 펴서 뜹북밑으로 넣어 살살 흔들면서 손가락 사이에 들어오는 꽁치를 잡는 방법이다. 이것을 '손꽁치바리'라고 한다.

잠수기어업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속에 들어가 조개류, 바다풀 등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이다. 장비는 잠수복, 투구, 납, 신발, 공기 압축기, 공기 공급용호스 등과 갈구리, 칼, 작살 등과 어획물을 담는 망태가 있다. 대략 수심 40m 이내에 들어가며 잠수시간은 20m에서는 2~3시간, 그 이상일 경우는 1시간 내외다.

일반적으로 문어나 우렁쉥이는 연중 조업하고, 미역은 4~11월, 성게는 7월에서 이듬해 4월, 해삼은 11월부터 이듬해 6월, 전복은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조업한다. 잠수기는 5~10톤 규모의 30~45마력이며 잠수부 1~2명, 보조원과 선원 2~3명이 승선하여 조업한다.

김종범: 대략적으로 20m 경우에는 한시간 정도 작업을 해요. 30m면 한 40분 정도, 그 이하로 내려가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법상 12조 잠수기는 수심 15m 이내에서 잠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읍면단위에서만 할 수 있고, 11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연안 수심 15m 이외 지역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수심이 많이 들어가죠. 11조 잠수기가 먼저 생겼어요. 역사상으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거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11조 잠수기가 수심을 깊이 타다보니까 장비가 현대화 됐죠. 12조 잠수기가 생긴 거는 한 20년 그 정도돼요. 11조 잠수기 선장들은 저희배 경우는 20년 정도 이상됐는데 선장 능력에 많이 달렸어요. 11조 같은 경우는 유능한 선장이라야지 안시켜주어요.

오늘 만약에 30m에서 작업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왔다. 한쪽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통증이 왔다. 그러면 다시 30m로 들어가서 치료 테이블을 일반 감압보다 2배내지 3배를 해주지요. 그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오래 지체하지 않고 다시 감압 수심까지 올라오죠. 가운데로 부상을 해요.

멍개같은 경우는 손으로 따고, 또 특별한 장비는 아니고 갈퀴라고 해녀들이 쓰는 일종에 그런 걸로 채취를 하죠. 바다에 나가는 일수는 날씨 좋을 때만 나가는데 보통 한 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수입은 짬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아요. 보통 연으로 따져서 연봉이라 그러죠. 연 5천 만원선, 한 4~5천 만원은 벌어요. 그럼 선장은 그에 절반이예요.¹³⁾

해녀들의 작업은 나참어업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대상물을 확인한 다음 칼이나 갈구리 등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채취하는 것이다.

이기순: 바다에서 딸 때는 까꾸리가 있어. 호미같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미역같은 건 낫으로 베비듯이(벼베듯이). 물속에 가서 해오고, 다시마 같은 것도 베처럼 막 살거든. 이렇게 안으로 안아 가지고 이렇게 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좀 힘들거든. '후~' 이런다고 위에 나와서 바가치 이렇게 올라타고, 바가치 띄어놓고 물 속에 가서 따서 나오고, 따서 나와고. 나 첫해 여기 오던 해는 아홉발 들어갔는데 나는 모르는데 아저씨가 그러드군. 잡은 거는 바가치 같은거 밑에 망태 달아매지. 아구지가 있거든. 우리타는 배 아래에다가 요렇게 망태해갖고 이 바구미가 있어. 그물로 만들었는데 거가 담아넣지. 큰 거는 성게 같은 거 담아놓고, 조그만 거는 문어도 잡으면 잡아넣고, 전복도 잡으면 잡아넣고. 여기는 전복을 따다보면 얇미로워 못따거든. 그러면 그 조그만 거는 전복담는 것도 있고, 해삼담는 것도 있고. 문어담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차 가지고 들어가.¹⁴⁾

단순채포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채취활동으로 동해안은 해중의 바위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틀개, 설낫(낫대), 수중을 보는 짬수경, 건조용 도구인 발채, 떼배 등이 있다. 틀개는 바위에 붙은 미역을 걸어서 비틀어 뜯어내는 도구며, 짬수경은 나무로 통을 만들어 바

13) 필자조사, 1997.11.28, 김종범(남.33) 교동

14) 필자조사, 1997.1.27, 이기순(여.74), 동명동

탁에 유리를 부착하여 물속을 보도록 만든 것이다.

미역을 말리기 위해서는 발채를 이용하며, 때배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노를 저어 움직이는 배다. 요즘에도 볼 수 있는 짬수경을 쓰고 채취하는 작은 배를 볼 수 있는데 7~8년된 오동나무로 만든 때배는 없어졌다. 이들이 사용하는 어구는 연안에서 소라, 성게 점쇠류, 해삼이나 굴 집개류, 조개 쪘례류, 미역이나 다시 틀이류가 사용된다.

낚기 어구류는 낚시가 달리거나 달리 않은 줄을 이용하여 채포하는 것으로 외줄낚시류, 대낚시류, 주낚시류, 끝낚시류가 이용된다. 걸낚시류에 속하는 봉낚시류와 오징어 낚시류가 있는데 조구류 중에서 속초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외줄낚시류다.

이것은 낚시줄 한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달아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대상물을 낚아 잡는 것이다. 대개 비늘이 있는 낚시를 사용하고, 미끼는 자연산을 이용하거나 속임낚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대낚시류가 있는데 속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다랭이 채낚기어업이다. 이것은 가다랭이의 습성을 이용하여 속임낚시로 채어 잡는 것이다.

주낙류는 연승류로 어획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 잡기 위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마다 낚시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설치하여 낚는 방식이다. 멍이나 닻으로 고정하는 고정낚시와 해조류를 따라 흐르도록 하는 훌림낚시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어종에는 고정낚시를 쓰고 표피나 중층 회유성 어종에는 훌림낚시류를 사용하는데 주로 명태·놓어·북어·가자미·우럭·볼락·돔 등이 대상어종이다. 이것은 과거부터 어구 구조나 조업방법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과거에는 낚시줄 재료를 면사에 갈(tannin)을 먹였으나 최근에는 나일론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대표적 주낙류에서 속초에서는 명태주낙을 하는데, 새벽 3시경에 출항하여 일출직전에 그물을 내리고, 투승전에는 어군의 분포나 수심을 탐지하여 부표줄의 길이를 조정하며 해류에 따라 일직선으로 내린다. 낚시 미끼는 양미리, 전어 등을 잘게 썰어 사용하는데 이중에서 양미리를 주로 쓴다.

배순자: 명태는 미끼를 쓰지, 양미리 같은 거, 주로 양미리 쓰지, 새 걸로 팔팔한 거, 대가리 빼구, 내장 빼구, 아주 정성을 다해서 걸어야지 명태가 잘 물지, '명태 콧구녕이 열 두 콧구녕' 이여, 콧구녕이 그렇게 많다는 거여, 미끼가 나쁘면 안 물어, 그물 한 번에 250개까지 6개면 1.500, 그렇게 한 사람이 가지고 다녀.¹⁵⁾

근래에는 활어로 출하하기 위해서 넙치(광어)주낙도 성업중이며 가자미 주낙어업에는 소형새우나 지렁이 조개 육질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봉낚시류는 외줄낚시나 주낙이 대부분 대상물이 미끼가 달린 낚시를 물도록 하는 것에 반하여 낚시채에 납이나 플라스틱 봉을 단 낚시에 대상 생물의 몸통이 걸리거나 붙게하여 잡는 것이다.

문어낙지 등 연체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낚시 끝에 미늘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미끼는 고등어를 고등어를 반토막내서 머리부분만 낚시위에 가는 구리철로 봉에 묶어 사용한다.

오징어 낚시류는 속초의 대표적인 어업으로 낚시바늘이 여러 개로 된 복합낚시를 이용하여 낚시줄을 위로 채빨리 채어 낚시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징어가 수직운동을 심하게 하며 불빛에 모이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외줄낚시나 주낙처럼 미끼를 쓰지 않고 낚시채에 플라스틱이나 나무, 납 등으로 미끼 모양을 만들어 부착하고 여기에 색깔을 넣거나 형광물질을 발라 미끼처럼 보이도록 하고 집어등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모이도록 한다.

오징어 낚시 어구는 과거의 경우 수심에 따라 대나무 끝에 낚시줄을 묶고 거기에 복합낚시 대낚시나 보채낚시를 주로 사용했으나 근래는 한 가닥의 낚시줄에 30개 내외의 복합낚시를 일렬로 달아서 이것을 로울러로 감는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해가 진 직후부터 22시경까지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어획이 좋아 본격적인 조업이 이뤄진다. 여기는 7월부터

15) 필자조사, 1997.11.28. 배순자(여.63) 동명동.

최대 성어기인 9월까지 계속되고 주로 울릉도에서 대화퇴에 이르는 해역에서 많이 한다.

오징어의 분배는 후리그물은 어황이 좋지 못하므로 공동어장이 많으므로 어획물의 분배는 각 개인별로 고르게 한 후 다시 어군 관찰자나 선장과 같은 책임자에게 개인별 분배물의 반 정도를 더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속초시 오징어배에서는 배분을 공동경비를 제외한 판매대금으로 나눈다. 선주와 선원의 비를 6:4로 했으나 1990년 노사협의에 의해 4.7:5.3으로 바뀌었다. 오징어는 물레로 어획하기 때문에 선원이 10여명 필요하므로 근자에는 인원을 줄이고 기계로 조업형태를 바꾸고 있다.

함정어구류로는 은신함정류, 장벽함정류, 바구니함정류, 낙망류가 있다. 속초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방법은 문어단지를 이용한 함정류가 있다..

문어는 암초부근의 굴처럼 패인 곳이나 그늘에서 사는 습성을 이용하여 어획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단지를 사용했으나 근래는 플라스틱 단지를 사용하며 먹이는 사용치 않는다.

문어의 어획방법 중 또하나는 개폐식 문어단지인데 문어가 들어가면 문이 저절로 닫혀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문어단지보다 확실한 어획이 가능하나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통발류는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서식하거나 미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무나 철사 등으로 된 고정틀에 그물감이나 철망, 나무넝쿨 등을 씌우고 상면 또는 옆면에 1~4개의 입구를 설치한 어구를 부설하여 잡는다.

속초에서 사용하는 통발류 어업은 북쪽 분홍새우 통발어업으로 원통형의 틀에 그물감을 씌우고, 양쪽에 깔대기 모양의 입구가 2개 있는 통발에 미끼를 넣어 유인하여 잡는다.

통발어업은 3~6월, 6~11월 사이에 주로 조업하여 어장은 수심 200~400미터, 저질은 뾰거나 사니질, 특히 해저 계곡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미끼는 다랑어나 고등어를 가는 철사로 묶는다. 속초의

계통발 작업은 근해통발로 어망을 ‘드레’로 만들어 물에 갈아 앓히기 위해 ‘둥구돌’을 엮어서 쓰는데, 동명항에 정박한 80톤 장성3호의 경우 어장이 형성되면 때없이 나간다고 한다.

계통발 6개월에 한 번씩 ‘성주고사’를 지내며 77.49톤인 명륜호는 선장실 배성주를 모신다. 선미에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한지와 삼색천을 선장실에 매단다. 이 배에는 11명이 타는데 보통 2~4일간 다녀오고, 선원은 6개월마다 비용을 계산한다. 홍게를 잡은 어획고는 선주가 50%, 나머지 선원이 50%를 나누는데, 선기관장에게 5%를 더주고, 갑판장은 3%, 사무장은 2%, 조기장 2%를 더 준다.

예를 들면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경비를 제한, 1천만원을 가지고 선주에게 50%를 주고 나머지로 분배를 하게 된다. 선원은 한 달에 대략 40만원을 고정급과 생산고에서 20%를 주며, 밥하는 사람인 ‘도무장’은 5만원을 더 받는다. 홍게 통발은 보통 한 달에 4~5회 출어를 한다.¹⁶⁾ 속초의 통발어업은 붉은대게 통발, 물레고등(골뱅이)통발, 문어통발이 있다.

끌어구류는 인망류(引網類)로서 주머니 모양으로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 방법이다. 매우 적극적인 어법으로 어로작업이 발달된 것인데 백합 형망, 저인망류, 중충 트롤, 외끌이 기선저인망이 있다. 이 가운데 저인망류의 대표적인 어법으로 속초에서는 저충트롤망으로 명태·도루묵·가자미·골뱅이·북쪽분홍새우 등을 잡는다. 어구 형태는 등판과 밑판의 폭이 옆판에 비해 매우 큰 4매망을 사용하며 연중 조업하며 어획은 양호하다.

걸 어구류는 자망류(刺網類)로 방추형의 어류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을 어도에 부설하여 그물코에 어획물이 꽂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어구의 부설방법에 따라 고정걸그물류(固定刺網類), 훌림걸그물류(流刺網類)가 속초에서 사용된다.

고정걸그물류은 명태 저자망(底刺網), 도루묵 저자망, 불락 저자망, 임연수어 저자망, 양미리 저자망 등이 사용된다. 훌림 걸그물류는 꽁치 유자망, 멸치 유자망이 있다.

16) 필자조사, 1997.10.3. 황명갑(남.40), 동명동

이외에도 깔 걸그물류는 해저 바닥에 붙어 서식하거나 약간 묻힌 상태로 서식하는 것을 대상으로 긴 네모꼴의 그물을 바닥에 깔아 그물코에 꽂히도록하여 잡는다. 동해안의 양미리를 대상으로 양미리 깔자망을 사용한다.

삼중얽애그물은 하나의 얹애그물류나 이중얽애그물류와 같이 그물코에 꽂히기 힘든 어류나 갑각류, 크기가 다른 어종을 동시에 잡기 위해 그물실의 굵기와 크기 다른 그물코를 장겹쳐서 상부에는 뜬, 하부에는 발돌을 단 어구를 어도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일부해역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삼중그물은 볼락·숭어·꽃게·대구·새우류 삼중자망 어법외에 가자미·광어·잉어·붕어 등에도 많이 이용하는 망류이다.

정치망류(定置網類)는 어도를 차단하여 원통의 입구에 비탈그물을 설치하여 일단 원통에 유도된 고기가 되돌아 나가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방어, 넙치, 숭어 등을 주로 잡는다. 투망류는 손잡이가 달린 원뿔형 그물을 던져 잡는 것으로 잉어·숭어·은어 등을 잡는다. 이외에도 속초에서는 후리라는 방법이 있었다. 후리는 근해에 멀치떼가 몰려오면 그물로 잡는 방법이다.

천윤이: 망쟁이라 그러는데 이런 망쟁이가 저 높은 꼭대기서 있다가 메르치가 어디어디 들어왔다고 인제 외친다 말이야. 흰 기래야 잘 보이지. 외치면 인제 그 메르치 사공이 아래 보다가 저 외치는 것을 보고 흰 옷으로 치대. 그냥 외쳐서는 모르잖아.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 메르치떼가 있다 이거야. 외치는 거를 보고 남쪽으로 밖으로 밖으로 노를 밖으로 저어라 이거야. 망쟁이가 땅에다 자꾸자꾸 치면, 그 아굴(입구) 좁혀라 이거야. 이기 고기뗀데 여기다 아구를 좁혀라. 그래 이제 옷을 땅에다 두들기면 거기다가 인제 줄을 내다 던지구선. 그 담에 나가 끊어라 이거야. 남쪽으로 가라 이거야. 그 담은 꺾어라 이거야. 드레 달려오며 게 둘쳐서 그렇게 잡는게 망쟁이야. 이름은 후린데, 고기를 후려오니까 후리라고 그리고. 그 망을 보니까 망쟁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졌어.

박인성:여기 메르치 떼가 왔다면 이거 잡으면 아주 많아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며칠을 퍼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래 잡는데, 그물 가지고 맹기는데 이걸 이제 잡아내면 이제 그때는 그냥 불바닥에 모래밭에다가 막 퍼내요. 그 뭐 족대란 게 있는데 당까라는데 막퍼내. 산데미같이 쌓아놨어. 그걸 나중에 모래가 묻어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모래 퍼내느라고 애 먹어요. 그걸 '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여긴 육지인데, 고기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레 후려싸는데, 여기 양쪽에서 사람들이 그물을 줄이 바로 이런게 있어요. 이걸 잡아 땡겨요. '어 어여차~어' 이래요. 이게 고기떼가 있는지 배를 타고 나가면 잘 안보여요. 잘보이는 건 뭐냐면 높은 데서 보면 그 고기 있는데는 거무칙칙하거든. 그래 속초같으면 저 영랑동에 등대있는 그런 높은 솟은 봉에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삿갓을 가지고 가요. 대를 가지고 만든 삿갓. 그걸 가지고 신호해요. 고기가 가운데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고기가 어디 간다 또 배를 타고 가면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방쟁이를 보는 거야. 망보는 사람. 그걸 보고 이제 고기가 안보이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면 꼭 이런 덩어리가 나오거든. 그럼 그레 잡기도 하고.¹⁷⁾

속초의 양식어업은 활발한 편이 못된다. 항만구역이 넓고 내항 오염원의 확대로 가리비양식 4개소, 우렁쉥이 양식 3개소, 전복양식 1개소 등이 있을 뿐이다.

17) 필자조사, 1997.11.27. 박인성(남.86), 동명동

제4절 어로도구와 어업용어

속초의 어로도구와 어업용어는 다른 해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동해안 일대와 유사한 도구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소개하는 용어들은 필자의 조사와 민현식,¹⁾ 박성종²⁾ 교수의 조사를 참조로 정리한 것이다. 속초지역 어로의 특성상 함경도 방언인 원산지방 용어가 들어가 있으며, 일본어로 된 것도 있고, 고유어나 한자어로 된 용어도 있다.

어로도구와 어업용어는 표준어를 표제항으로 하고 방언형을 쓰고 필요하면 설명을 붙인다. 적당한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방언형을 표제항으로 삼는다.

1) 어선과 어업

- 설망: 배를 새로 만들어 물에 띄우는 일 또는 그물을 덤장에 놓는 것을 말함.
- 든대질: 배를 만들어 바다에 보내기 위해 말목 든대로 미는 일.
- 도꾸: 뜬, 바람으로 배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 뜬대에 다는 천.
- 창의배: 나무로 만든 널창배를 말함.

1) 민현식, 「속초의 방언」, 『束草市誌』, 1991, 1168~1170쪽

2) 박성종, 「영동지역의 어촌언어」, 『강원어촌지역전설 민속지』, 강원도 동해출장소, 1995, 418~437쪽

- 널창이목수: 널창배를 만드는 목수.
- 초풍돛: 초풍도꾸 · 양아도시 · 양화돛 · 양오도꾸, 작은 돛.
- 풍선: 광목으로 만든 풍이 있고, 노를 젓는 작은 돛대배.
- 풍: 배에다 치는 범포(帆布).
- 전마선(傳馬船): 풍이 없고 노젓는 작은 배.
- 뗀마: 전마선, 뗀마선이라고도 함.
- 구명이: 4~5명이 타는 자망어선.
- 목선: 12명 이상이 타는 배로 길이는 38자, 조개바리하는 배.
- 큰구멍이: 7~8명이 타는 배.
- 멍텅구리: 무동력선을 말함.
- 비아다리: 옛날의 풍선을 말함.
- 할대: 할대, 돛위에 가로댄 나무.
- 상활: 돛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나무.
- 상활대: 상대라고도 하며 맨위에 대는데, 소나무로 만든다.
- 용총줄: 돛대의 맨 윗부분.
- 아돛줄: 아두풀, 아두, 아도풀, 활대에 달려 있는 줄.
- 키: 치, 큰배 키를 말함.
- 딸: 따리라고도 하는 작은 배 키.
- 스기: 목선만드는 나무.
- 따리가룡: 따리를 걸쳐두는 횡목.
- 창선: 따리 상부의 횡목으로 돌리는 손잡이.
- 닻: 짧, 따래.
- 닻고리: 닻의 상부에 닻줄 매는 고리.
- 닻채: 닻고리에서 닻구멍까지 사이를 말함.
- 닻가지: 닻의 꼭대기 벌어진 두 가지.
- 닻새: 닻가지의 끝.
- 닻장: 닻구멍에 끼는 나무.
- 노: 늘.
- 놀낀: 늘의 끈.
- 놀평다리: 놀끈 매어두는 곳.
- 놀망치: 노마치, 노를 잡는 부분.

- 놀우대: 우다라고도 함. 놀망치에서 놀좆까지로 노위의 윗부분.
- 놀좆: 노젖, 놀짬지, 노를 지탱하는 흘치기모양의 쇠.
- 놀구멍: 놀썹, 놀좆박는 곳.
- 놀쪼기: 놀끈, 노를 거는 끈.
- 놀지치: 놀짓, 노의 아랫부분, 놀끝 넓은 곳.
- 놀재비: 놀의 상부.
- 놀배기노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뱃노래.
- 한놀: 사궁놀, 노 중에서 운전대 역할의 우두머리가 젓는 노.
- 옆놀: 노 중에서 선원들이 젓는 노.
- 몽애: 배에다가 횡으로 대는 넓은 판목.
- 큰몽애: 큰대몽애, 배의 중간지점에 설치한 몽애.
- 큰대명: 큰 몽애를 말함.
- 작은몽애: 초풍돛대를 설치하는데 있는 몽애.
- 개안: 항구가 있는 바다.
- 날바리땅: 항구가 없는 모래땅.
- 이물: 앞물 · 인물 · 잇물 · 인몰 · 묘씨 · 오모대, 배의 앞부분으로 옆에서 본 것.
- 고물: 고물, 공울, 골, 도모, 배의 뒷부분으로 옆에서 본 것.
- 삼바리: 배의 중간부분, 옆에서 보았을 때를 말함.
- 물칸: 목선의 중간부분으로 배성주를 이곳에 모신다.
- 고다: 배를 윗쪽에서 보았을 때 앞부분.
- 배몽애: 배를 윗쪽에서 보았을 때 중간부분.
- 하판: 배를 윗쪽에서 보았을 때 뒷부분.
- 살주: 뱃머리에서 고기떼를 살피는 사람, 찰주라고도 함.
- 가부도: 두구, 머리에 쓰고 바다에 들어가는 도구.
- 한창: 배의 중간 부분.
- 마칸: 어부들이 잠을 자는 방.
- 골큰칸: 돛대세우는 칸으로 잠을 신는다.
- 앞대부리: 돛에다가 이물쪽으로 매는 줄.
- 뒷대부리: 돛에다가 고물쪽으로 매는 줄.
- 대부리: 댓배리라고도 함. 돛대가 쓰러지지 않고 매는 곳.

- 대뿔조쟁이: 앞대부리를 고정시키는 부분.
- 대목대기: 큰 둑대가 자빠지지 않게 막는 횡목.
- 오모까지: 배를 좌측으로.
- 도리까지: 배를 우측으로.
- 해사(海事): 어업을 어부들이 칭하는 말.
- 벳동무: 어부를 말함.
- 가고장: 본선원 이외에 임시로 채우는 선원.
- 미끼: 메끼, 메깟.
- 갑빠: 어로작업시 입는 고무옷. '갑빠'는 프랑스어.
- 소대갑빠: 갑빠 중 손목까지 덮는 옷. '소대'는 일본어.
- 요대저고리: 어부들이 속에 입는 저고리.
- 큰저고리: 어부들이 겉에 입는 저고리.
- 초북신: 배에서 신는 소가죽 신으로 '북신'이라고도 함
- 투덕바지: 바지, 갑빠밑에 입는 솜바지
- 앞가래치마: 고기를 퍼올릴 때 입는 앞치마.
- 벼리: 손에 끼는 장갑.
- 어래: 광목으로 만들어 손에 끼는 장갑.
- 목다대: 빨목을 싸는 천.
- 산대: 고기뜨는 도구.
- 졸대: 고기를 뜨는 도구.
- 가래: 잡은 고기를 그물에서 떠올리는 도구.
- 방짱: 방장, 선실로 어부들이 쉬는 장소.
- 연락대: 배가 출발할 때 미는 나무.
- 도사공: 선장을 말함.
- 영자: 영좌, 영장, 사공을 제외한 어부중에서 최연장자.
- 부영자: 부영좌, 부좌상이라고도 함.
- 사궁: 일반 선원.
- 화장: 배안에서 취사를 담당한 어부, 화쟁이, 도무장이라고도 함.
- 화덕칸: 화장이 밥을 짓는 칸.
- 한창인: 고기를 잡고, 잡일을 하는 어부.
- 한창동무: 고령자인 영자를 빼고 나머지 사공들.

- 허리도리: 그물당길 때 선소리도 하는 힘이 센 어부.
- 성주기: 만선기를 말함.
- 가빠리: 근해어업을 말함.
- 한발: 백 두릅을 말함.
- 남바리: 연안어업으로 항구를 정하고 바닷일을 하는 것.
- 낙수바리: 낚시로 잡는 방법.
- 주낙바리: 여러 개의 낚시로 잡는 방법.
- 그물바리: 그물을 고기잡는 방법.
- 남산바리: 그물을 놓고 잡는 방법.
- 망성바리: 그물을 놓아 고기를 잡는 방법.
- 망성그물: 그물을 고기를 잡는 방법.
- 오리그물: 그물을 길게 느려놓은 것.
- 남발이: 객지에 나가서 작업하는 것.
- 텁발: 망성그물, 자망그물을 말함.
- 이까바리: 오징어 잡이를 나가는 일.
- 보통바리: 통상적인 분할방식으로 뜶을 나누는 일.
- 선중바리: 보통바리를 말함. 지따먹기의 반대.
- 제따먹기: 지따먹기, 능력껏 뜶을 갖는 일, 선주에게 배삯만 냄.
- 머구리: 잠수하여 어로 작업하는 사람.
- 물질: 해녀가 바닷속에서 채취하는 일.
- 굴치: 고기 미끼를 끼는 일.
- 머구리배: 머구리하는 사람들이 타는 배. 잠수기.
- 패찰: 패철, 나침판
- 비대: 바다에서 보는 별.
- 천기: 하늘의 변화.
- 패탐: 배를 들어올릴 때 밑에 괴는 나무.
- 든대: 배를 바다에 내릴 때 들어올리는 나무.
- 짓: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나누는 것.
- 헛불: 도깨비불, 배를 타고 나가면 불이 희미하게 나타남.
- 신길: 배타고 나가면 멀리 섬같은 것이 보이는 현상.
- 요왕: 용왕신을 말함.

- 후리: 근해에 몰려든 고기를 그물로 몰아서 잡는 것.
- 곧은알기: 배의 위치를 알기 위해 육지의 산이나 산태로 표시하는 일.
- 옆알기: 배가 그물을 내린 곳을 알기 위해 옆을 표시하는 일.
- 푸름하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
- 몇째딸시집가네: 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부르는 노래사설.
- 고풀이: 바다에 조난당해 죽은 사람의 영혼을 풀어주는 것.
- 어디로 불려갔다: 조난 당한 것.
- 사촌어디갔다오나: 바다에 빠진 시체 궁둥이를 때리며 하는 말.
- 가에 나간다: 근해어업을 가는 것.
- 바다나간다: 원양어업 가는 것.
- 배내린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식.
- 배물논다: 배를 만드는 일을 말함.

2) 어장과 어구

- 덤장: 돈장이라고도 하는데 정치망을 말함.
- 덕장: 오징어나 명태를 건조시키는 장소.
- 소태망: 정어리 어장.
- 자망: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 애망: 도르매기나 명태를 잡는 그물.
- 삼마이그물: 잡종 고기가 다 걸리는 그물.
- 미레: 미래, 닻에 연결한 그물 또는 그물구멍.
- 부이: 물위에 뜨게 하는 물체.
- 산대: 고기를 뜨는 도구
- 가래: 고기를 뜨는 도구로 산대보다 큼.
- 낫대: 미역을 채취할 때 쓰는 도구.
- 섭시레: 조개 등을 딸 때 쓰는 도구.

- 뜰북: 손꽁치를 잡기 위해 대나무로 만든 틀. '몰'이라고도 함.
- 창경: 물속을 들여다 보는 거울로 네모난 통 모양.
- 창경바리: 수경을 쓰고 근해에서 미역·섭·성게 따는 일.
- 종선: 조그만 배로 창경바리 하는 배. 0.7톤 내외임.
- 끌개: 미역을 채취할 때 쓰는 도구.
- 알기: 끌개 작업 시 배의 위치를 관측하는 일.
- 동틀개: 왕틀개, 미역 등을 틀어 올릴 때 쓰는 기구
- 바늘대: 그물을 손질할 때 쓰는 기구.
- 걸대: 그물 손질할 때 걸어놓고 쓰는 기구.
- 망태: 미역이나 성게를 담는 망태기.
- 물밀망태: 잠수시에 사용하는 망태.
- 망챙이: 망지기, 우끼아, 멀치잡이 때 망보고 지휘하는 자.
- 선망: 멀치잡을 때 쓰는 그물.
- 후리질: 고기를 싸고 당기는 일.
- 가끼: 까꾸리, 성게 등을 채취할 때 쓰는 꼬챙이.
- 시꼬미: 고기잡으려 나갈 때 준비하는 먹거리.
- 보망일: 그물을 손질하는 것.
- 둑구돌: 계통발의 어망을 가라 앗히기 위해 다는 돌.
- 지갈: 소형 어선들이 고기를 잡는 일정한 곳.

3) 바람과 조류

- 들바람: 바다에서 들어오는 약한 바람.
- 마파람: 남풍을 말함.
- 갈바람: 남서풍을 말함.
- 샛바람: 북풍을 말함.
- 하나바람: 하늬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 내바람: 서풍으로 무서운 바람.

- 설악산내기: 서풍으로 매섭게 부는 바람.
- 서마바람: 강하고 해일을 동반하는 바람.
- 급새: 급한 북풍, 샛바람.
- 원산내기: 서북풍으로 원산쪽에서 부는 바람을 말함. 뒷새바람이 라고도 함. 가장 무서워함.
- 홍성내기: 함경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매섭다.
- 뒤옹새: 원산내기 바람을 말함.
- 일자구름: 구름이 설악산에서 한 일자로 몰려가는 구름으로 폭풍 우를 예조함.
- 멀기: 물기, 멀개, 파도를 말한다.
- 나울: 큰 파도.
- 서마나울: 동남풍으로 태풍을 동반한 파도.
- 성애: 바다밑 바위, 짜매라고도 함.
- 빵꼬: 성애의 높은 데를 말함. 성애꼭두라고도 함.
- 원꼭두: 성애꼭두를 말함.
- 꼭두: 바다밑 바위.
- 불밭: 바다밑 모래밭, 미겁이라고도 함.
- 쓸부래: 모래땅을 말함.
- 부리: 바다밑 모래언덕.
- 협: 바다 속의 모래, 허비라고도 함.
- 뺨: 바다밑의 모래
- 지탈: 허통, 바다밑 지면.
- 시거리: 바닷물이 번쩍거리는 현상.
- 갈매: 깊은 바다를 말함.
- 설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조류.
- 날물: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조류.
- 만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조류.
- 들물: 동에서 서쪽으로, 육지로 흐르는 조류.
- 맞물: 북동에서 남서로, 북동에서 육지로 흐르는 조류.
- 샌물: 남동에서 북서로, 남동에서 육지로 흐르는 조류.
- 새안넬물: 남서에서 북동으로 육지에 북동으로 흐르는 조류.

- 까풀이: 바람이 없을 때 팔랑팔랑치는 파도.
- 띄킨다: 바람이 40~50리를 빨리 날아가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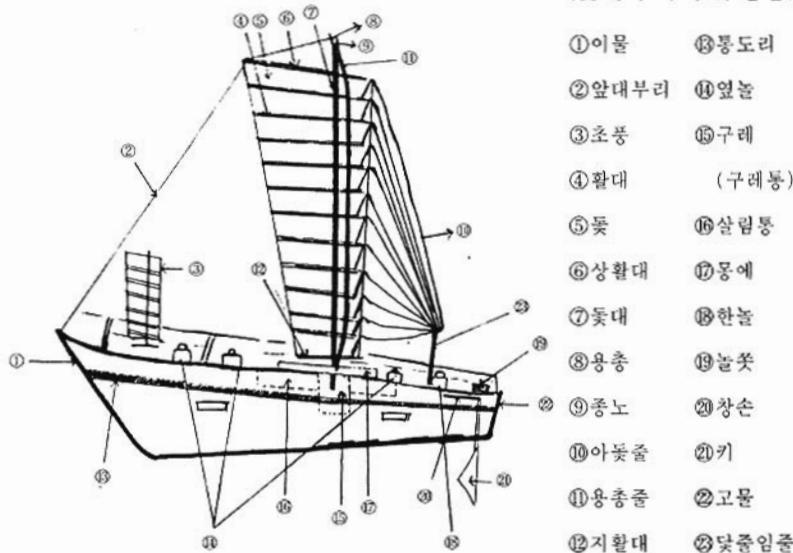
4) 어류와 해초

- 기: 개 · 텔기 · 방기 · 왕기 · 대기 · 박달기 등이 있음.
- 알땅구: 성게, 아까성게, 표면에 털이 없는 성게.
- 은단: 운단, 성게를 말함.
- 구로: 구리, 성게의 일종으로 털이 난 성게.
- 쪽발이: 불가사리
- 우렁쉥이: 명게
- 우레기: 우럭
- 아굼지: 아가미
- 씨거리: 명태 아가미로 만든 반찬.
- 지느레미: 지느러미.
- 날개미: 지느러미를 말함.
- 매루치: 멸치
- 뿔쟁이: 복어
- 도루매기: 도루묵
- 횟데기: 생선의 일종.
- 도치: 싱어, 싱통이
- 눈치: 정어리
- 새치: 이면수
- 오징어: 이까
- 까재미: 가자미
- 되미새끼: 도미새끼
- 새비새끼: 새우새끼
- 세우저지: 새우젓

- 앵미리: 양미리
- 노랑태: 황태를 말함.
- 다꼬: 문어
- 깜등이: 검은 열개이
- 불열갱이: 황열갱이
- 조가지: 조개
- 바다풀: 바다나물
- 진저리 · 듬복이 · 가시리 · 되박 · 서실 · 진누아리 · 우묵가실 · 말:
바다풀의 일종.
- 도박: 파래를 말하는데 되박이라고도 함.
- 고르매: 바다에서 나는 풀로 식용으로 씀.
- 해동이: 바다에서 나는 풀.
- 곱피: 다시마, 타시매라고도 발음함.

(도표) 뜻배의 각 부위 명칭

〈뜻배의 각 부위 명칭〉



제5절 어로관습과 금기습속

속초지역 어로관습과 금기는 동해안지역의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동해안의 어로권역이 북으로 함경도 원산에서 남으로 부산앞바다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선원의 교류나 해녀의 이주, 문화권의 동질성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동질적인 어로문화는 유사한 관습을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관습은 전승적 관례적 행위로서, 속신(俗信)과 긴밀하다. 속신은 점복, 주술, 금기를 내포하는데 주술이 적극적인 행위라면, 점복이나 금기는 소극적인 행위이다.

어촌에 전승되는 관습들은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이기 보다는 어민들에 의해 어떤 상황이 구체화되거나 보편성을 띠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전승되는 습속들이다.

금기는 특정 인물이나 사물·언어·행위·관념·언어 등이 신성시 되거나 두렵다고 신봉함으로써 그 대상을 말하거나, 만지거나, 행동 실천하는 것을 금하거나 꺼리는 금제(禁制)다.¹⁾ 따라서 신성함·부정함·오예(汚穢)한 것을 '꺼리고·피하고·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금기를 뜻하는 타부(Taboo)는 폴리네시아어로서 습관과 종교에 의하여 '금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종교학에서는 격리되고 성화되어 일정한 '한계밖'에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는 신성한 것을 경계하고 부정과 더러움을 피하는 양면성을 띠므로 성속(聖俗)과 주술의 원리로 설명된다.²⁾

1)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0, 81쪽

2)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220쪽.

예조나 점복, 꿈 등은 금기와 일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풍어를 위해서는 해야할 것과 금해야 하는 것이 미리 암시되거나 현몽하기도 한다. 어촌에서는 실제로 풍어를 위한 다양한 어로관습이 전하기도 하고, 금기가 행해지고 있음을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속초어촌의 관습이나 어로전승의 습속·예조·점복·꿈·징조, 금기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로관습

- 배에서 멀미가 나면 흙이나 미역을 먹는다.
- 뱃길을 잊어버리면 몸의 이가 가는 쪽에 육지가 나타난다.
- 풍랑을 만나면 이를 잡아서 가는 곳을 본다.
- 배의 이름을 지을 때는 선주나 그 자제의 이름자에서 한 자를 따서 짓는다.
- 배를 새로 만들어 세우는 성주기는 끝에 소나무를 꽂는다.
- 첫 출어때 잡은 생선은 한 마리를 성주에게 건다.
- 배에 있는 쥐는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다.
- 소머리를 ‘말’이라고 부르고 제사지낸다.
- 배가 갈 대 따라(키) 물을 보고 물길을 안다.
- 정월 대보름날 바다로 연날려 보내며 ‘귀양보낸다’고 한다.
- 치자 든 생선은 올리지 않는데 새치는 이면수, 도치는 싱어, 눈치는 정어리라며 제물로 쓴다.
- 고성앞의 사공바우에 이르면 술놓고 간단히 제사를 올린다.
- 거북이가 잡히면 막걸리를 먹여 물에다 다시 보낸다.
- 아침 설망나갈 때 짚불을 이물과 고물에다 휘휘 돌린다.
- 출어시 부정이 있으면 굽은 소금을 얼굴과 배에도 뿌린다.
- 부정이 타면 출항하기 전에 짚을 태워 바다에 내던진다.
- 어부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소주를 배안에 돌아가면서 뿌린다.

- 바다멀리 나가면 산을 보고 위치를 아는데 '산알기'라고 한다.
- 바다멀리 나가면 비대(별)를 보는데, 북두칠성, 삼태, 좀생이를 보고 위치를 안다.
- 밀복어를 잡으면 '자기 복'이라고 좋아한다.
- 바다밑의 돌을 성애라고 하는데 '산알기'로 성애를 알아서 그물을 놓는다.
- 성애를 알려면 알기를 봐야한다.
- 물에 빠진 시체를 건져다가 산에 매장해주면 작업이 잘된다.
- 조업중 시체를 보면 정중히 모시고, 풍어가 될 것으로 믿는다.
- 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지면 엎어놓는다.
- 바다에 빠진 시체를 '사촌'이라고 부른다.
- 바다에서 죽은 시체를 건지면 엉덩이를 때리면서 '사촌어디갔다 왔나?'라고 말한다.
- 바다에서 시체를 발견하면 배가 우측으로 돌아 시체가 따로오면 꼬챙이로 널미를 잡아 올린다.
- 바다의 시체를 싣고 올 때는 빈 배라도 만선기를 꼽는다.
- 바다에서 엎어져 있는 시체는 가까운 곳에서 왔고, 누워있는 시체는 멀리서 온 것으로 판단한다.
- 목에 뼈가 걸리면 어망을 태워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하는데³⁾ 속초에서는 마른밥을 세 숟가락 퍼먹는다.
- 출어시하여 밥먹을 때 화장이 메를 한 그릇 먼저 배성주에게 바친다.

2) 예조와 점복

3) 이재곤, 『경북동해안지방의 민간의료(2)』, 『한국민속학』7, 민속학회, 1974, 115쪽

- 설악산에서 흰구름이 아래로 떠로 나가면 마바람이 분다.
- 새벽에 설악산 구름이 한 일자로 가면 큰바람이 다섯시간안에 불게 된다.
- 갈매기가 날개를 물에 적시면 비가 온다.
- 갈매기가 눈이 밝아서 고기를 많이 알려준다.
- 한 일자로 부는 바람이 가장 무섭다.
- 원산내기 뒤웅새 바람이 가장 나쁘다.
- 설악산내기 바람이 제일 무섭다.
- 군사는 깃발을 보나 뱃사람은 구름발을 본다.
- 바다에 나가서는 바람부는 것으로 위치를 안다.
- 바람이 불면 무슨 고기든 잡히지 않는다.
- 달무리안에 별이 있으면 비가 가까이 온다.
- 달무리를 멀리하면 비가 멀리온다.
- 바다밑에서 구름이 치밀어 올라오면 날이 궂다.
- 출어때 구름이 연동이 있으면 낮이 궂다.
- 배성주는 무나물과 무채를 좋아한다.
- 폭풍우가 일면 배성주가 찍찍운다.
- 쥐가 배에서 내리면 흉하다.
- 물동이를 양손으로 잡고 가는 여자를 보면 풍이다.
- 동풍이 불면 도르매기가 많이 난다.
- 갈매기가 많이 나는 곳에 도르매기가 많다.
- 첫 출어때 한 마리가 잡히면 그 해는 만재수가 좋다.
- 바다에서는 여자들이 솔뚜껑머리에 이고 비오기를 빈다.
- 어촌에서는 여자들이 속옷 뒤짚어 쓰고 비오기를 빈다.
- 매달 초여드레와 스무사흘날, 그믐날 배성주에게 풍어를 빈다.
- 여름에 하늬바람이 불면 고기가 쓸하다.(덜난다)

3) 꿈과 징조

- 다른 사람 창고에서 소금을 지고오면 풍어다.
- 사람을 죽이거나 싸워서 피를 보면 풍어다.
- 검불을 많이 지고 오면 명태를 많이 잡는다.
-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꿈을 꾸면 풍어가 된다.
- 집안으로 물을 길어오는 꿈도 풍어다.
- 꿈에 상복을 입고 있으며 풍어가 된다.
- 꿈에 여자와 잠자리를 하면 만선이 된다.
- 꿈에 부모님이 와서 잠을 깨우면 만선이 된다.
- 꿈에 산에서 눈에 빠져 해어나지 못하면 만선이 된다.
- 꿈에 소가 보이면 3일 동안 출어를 안한다.
- 배에 물이 가득 찬 꿈을 꾸면 풍어다.
- 꿈에 이가 빠지면 흥하다고 출어를 피한다.
- 꿈에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싸움을 걸어오면 출어를 피한다.
- 꿈에 흙탕물속으로 들어가면 출어를 피한다.
- 꿈에 신발을 잊어버리면 출어하지 않는다.

4) 금기습속

- 고기잡으려 갈 무렵 상가집에는 가도 결혼식장은 안간다.
- 고기잡으려 갈 때 인사를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 배를 탈때는 개고기나 닭고기, 계란을 먹지 않는다.
- 출어무렵에는 남의 부정이라도 3일이나 5일 동안 금기한다.
- 금기중에는 송치미를 해서 부정탄 사람이 못들어오게 한다.
- 바다에서 물뱀이 잡히면 나쁘다고 버리고 다시 출항하지 않는다.
- 대보름 지나 열 옛세날에는 귀신날이라하여 출어하지 않는다.
- 남편이 출어하면 여자는 문지방을 밟고 다니지 않는다.
- 어촌에서 여자가 남의 집에 일찍 방문하지 않는다.

- 어촌에서는 아침 일찍 물과 불을 빌려주지 않는다.⁴⁾
-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피부정한다고 어부는 3일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 어부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사흘동안 배를 타지 않는다.
- 부인이 해산한 날은 고기를 잡아와도 집에 들어 가지 않는다.
- 선원부인이 해산하면 어부들은 각자가 잡은 큰 고기를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그 집에 갖다주거나 금줄에 건다.
- 여자들은 배를 묶는 밧줄도 못만지게 한다.
- 배타러 나갈 때 여자가 길을 가로 질러가면 기분이 나쁘다.
- 여자를 배에 태우면 나쁘다.
- 출어를 할 때는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 어로작업 중에 칼이나 신발을 물에 떨어뜨리면 나쁘다.
- 조업 중에 쇠붙이를 바다에 버리면 나쁘다.
- 명태연승 어선에는 부자(父子)가 함께 타지 않는다.

4) 김승찬, 『가덕도의 기충문화』,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87쪽에는 그 이유로 '복이 나간다' '재수가 없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6절 어촌의례와 의식주생활

속초의 어촌의례는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생활풍속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통과의례는 한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령·신분·상태·장소 등의 전이단계에서 맞이하는 일종의 고비와 관련된 의례다. 통과의례중 전이의례는 출산속, 통합의례는 혼례속, 분리의례는 상례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특별히 어촌지역이라고하여 통과의례가 농촌이나 자연부락과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나름의 특성은 지니고 있다.

어촌생활상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어민문화 형성의 중요한 요건으로 이들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설화나 민요 등 구비전승, 언어전승인 금기어나 속담·수수께기, 신앙전승인 뱃고사·용왕제 등에 못지않게 생활전승인 의식주와 어촌민간의료 등도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1) 어촌의례

임신과 출산의례는 기자속·산전속·산후속으로 나뉜다. 기자속(祈子俗)은 치성기자와 특정사물이나 음식에 의지하는 주술기자로 나뉜다. 대포동에서는 아들을 원하는 여인은 아들 많이 낳은 여자의 속옷을 빌려다 입거나 단오날 약쑥을 뜯어 꿀여서 먹는다고 한다. 또한

1) 반겐냅,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40쪽 참조.

아들 낳은 집의 금줄에서 제일 큰 것을 훔쳐다 먹는다고 한다.

내물치에서 아기를 순산하기 위해서 아기를 쉽게 낳은 부인의 옷을 갖다가 산모의 배에 덮어준다. 또한 날계란을 기름에 넣어 먹기도 하고, 남편이 산모의 허리를 가로 타고 넘으면 쉽게 낳는다고 한다.

외옹치에서는 순산을 위해 산모방 구석에 냉수를 떠놓고 축원하는데 “삼신할머니, 얘기가 물처럼 바람처럼 쑥 빠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

태의 처리는 ‘삼나가는 날’이라하여 이촌에서 보통 첫 국밥을 끓일 때나 사흘만에 아궁이 불에 태우고, 그 재는 땅에다 묻는다. 일부에서는 태를 쌀겨와 함께 태우기도 하고, 태를 잘싸서 돌멩이에 묶어 바다에 던지기도 한다.

아기가 출산하면 대문에 ‘송침한다’고 원새끼줄에 아들의 경우는 보드기 솔가지 굵은 것을 통째로 걸거나 붉은 고추, 참숯을 매달고, 딸은 솔가지만 매단다. 장사동이나 청호동에서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는데, 만선기의 꼭대기나 어촌서낭당의 금줄에도 소나무 가지를 건다.

산후속은 3일째 삼신에게 바쳤던 미역국을 산모가 먹고, 아기 이름도 짓는다. 7일째를 ‘첫이례’라하여 대문에 쳐놓았던 금줄을 걷고, 14일째부터는 ‘두이례’라하여 삼신상을 차리지 않으며 이웃에서 아기를 보러 온다. 21일째를 ‘삼칠일’이라하여 산모도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속초의 혼례는 구식혼의 경우 50~60년대까지 행해졌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구식혼례때에는 어촌에서 특히 용떡을 만들어 초례상에 놓았다.

상위에 용처럼 길게 떡을 만들어 이것을 감아놓는데 견은 콩으로 눈을 만들고 대추로 입을 만들어 놓는다. 이는 길상을 뜻하는 것으로 다음날 떡국을 끓여 먹는다. 청호동에서는 용왕굿이나 풍어제를 지낼 때 용떡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형태이다.

아기가 백일이 되면 동네 사람을 모아 백일잔치를 여는데 수끼덕(수수떡)은 바람물리치라고 차리고, 백설기를 만들어 백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나눈다. 돌날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서 삼신할머니에게 바친

다.

어촌상례중 특이한 것은 바다에서 치루는 상례로 수살굿이다. 이는 무속의례중 오구굿계통의 해원풀이로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제의다. 그외에 초종, 염습, 성복, 문상, 치장, 기타 제의의 절차로 행해지며, 출상 전날밤에 빈상여를 꾸며 상여소리를 부르면서 '드장한다'고 하거나 '손모듬한다'고 말한다.

대체로 삼초를 아뢰고 출상하는데 초초는 저녁에 아뢰고, 이초는 밤 1~3시경, 삼초는 발인제 전에 상여가 떠날 때 부른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회달구질을 하는데 동명동에서는 '회닷기'라고 말한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는 위패설치, 제물진설, 출주, 참신, 강신, 지찬, 초헌, 아헌, 종헌, 유식, 합문, 계문, 소주, 고이성, 사신 등의 절차인데 생선의 경우 '치'자 들어간 것은 쓰지 않는다. 다만 별칭이 있는 경우 도치를 싱어, 새치를 이면수라 부르고 제사상에 올리지만, 홍치·꽁치·눈치(정어리)·칼치는 쓰지 않는다.²⁾

2) 의식주생활

속초의 의식주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물품들이 고급화, 다양화하면서 의류나 식류가 어민들의 기호에 맞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어로작업시 입는 옷이나 배에서 취사하는 도구·음식들이 간편화되었다. 주생활도 어촌사회가 급격하게 관광화 내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횟집상가나 일반 가정주택들이 양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어촌마을도 없어지고 있으며, 어촌민속이나 전통생활도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40년 또는 50년대를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촌의례나 생활풍속을 다

2)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49쪽

루기로 하겠다.

지금은 어로작업시 입는 작업복이 간편하고 방수가 되며, 방풍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4~50년전에 고기잡이를 할 때는 상의는 광목에 기름을 먹이고, 솜을 넣은 반 오바식의 솜옷을 겉에 입었다. 속저고리를 반드시 입는데, 요대저고리라 부른다. 큰 저고리는 7부로 만들어 겉에 입는다. 바지는 조각을 모아서 솜을 넣은 '투텁바지'를 입고, 신발은 '초북신'이라하여 짚신모양인데, 밑에 쇠가죽을 대고 발목부위에는 개가죽을 덮는다.

고기를 잡아 그물을 끌어 당길 때는 '앞가래치마'를 두르며, 말치풀을 엮어 우장을 만든다. 앞가래치마는 생선물이 들지 않도록 들기름을 칠한다. 손목에는 토시를 끼고 집에서 만든 통장갑을 '벼대'라하여 끼는데 손가락 끝은 구멍을 내어 나오게 한다. 머리에는 외포수건을 써서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게 한다.

식생활에서 김치류, 떡류, 장류에서 소박한 면모를 보여주며 특히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안에서 각종 수산물이 잡히므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었다.

어촌에서는 해물을 이용한 찬거리를 주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지져 먹는 조리법이다. 물좋은 생선으로 열간생선을 만들어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이 많은 편이며 신선한 어물은 횟감으로 이용하고 탕류로는 매운탕이 발달하였다. 젓갈은 다양한 편인데 명란젓·서거리젓·창란젓·바다게젓이 대표적이고 요즘은 멸치젓·새우젓도 많이 담가 먹는다. 김치류에는 '짠지'라고하여 겨울 김장김치가 있으며 꽁치젓, 양미리젓을 많이 먹는다. 김치에는 생오징어나 굴, 갓을 넣어 맛을 내며 봄철에 젓을 담그었다가 겨울철 김장때 쓴다. 깍두리에는 서거리젓과 오징어, 명태를 넣어 시원하게 만들어 먹는다. 식혜는 생선에 밥풀을 넣어 만든 것으로 속초의 명물이다. 밥반찬으로 가지미식해, 명태식해도 만드는데 고등어와 새치를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

반찬으로 많이 먹는 삼숙이국은 무넣고 끓이고, 싱싱한 생태국도 간장만 넣고 만들어 먹는다. 이외에 두루묵·도미·광어·열갱이·우럭 등으로 매운탕을 만든다. 또한 명태찜이나 미역국에 가자미를 넣은 국, 물오징어 불고기, 동태구이, 오징어무침, 문어무침, 가물치

회, 지누아리무침, 파래무침, 창란젓깍두기, 바다게장도 먹거리다.

어촌의 주택생활은 독특한 면이 있다. 특히 청호동은 난민의 섬이라 고도 불리는데 함경도 주민의 집단이 주로 주택형태도 문을 열면 바로 큰길이 나오는 북한어촌형을 띠고 있다.

장사동 장천면의 경우도 함경도형 온돌중심 겹집에 마루가 수용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³⁾ 사람의 이동에 따른 주거공간의 이동정착 현상이라고 하겠다.

영동지방은 동해에 접하고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진산으로 가리고 있어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 기후에 가깝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주거문화의 특징을 갖게 하였다. 기온의 고저나 강우의 다소, 바람의 강약은 건축물의 구조를 다르게 만드는데, 바람의 영향이 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옥은 크게 나누면 가대와 집이다.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속초는 쌍천과 소야천을 사이에 두고 그 북쪽에서 남향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어촌의 경우도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을 취한 배산임수의 형세로 남향대지가 보편적이다.

어촌의 구조적 특색을 가옥, 토지이용,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파악할 때 청호동은 주생활의 형태에서 속초문화가 갖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이 지역은 함경도문화와 속초문화가 공존하여 새로운 속초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2.3세대 혼합문화권역이다. 이른바 이주문화와 토착문화가 혼효되는 모습이 의식주생활에서 잘 보인다.

청호동은 1997년 현재 0.3km²에 1.200여가구, 3.500여명이 살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난민취락이다. 평면형태가 바다와 접한 지형과 도로망으로 남북으로 긴 형태이며 입면형태도 단층을 보인다.

지금은 조양동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속초시 중심지역인 중앙동과 연결되는 유통기능은 2척의 갯배인 도선(渡船)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정재국, 『속초시의 전통건축』,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210쪽

속초의 명물로 불리는 ‘갯배’는 그 자체로도 상징성이 풍부한 문화자원이다. 도선장인 ‘갯배머리’에서 일제때에는 무동력의 노젓는 배를 이용했으나 1953년 양측 도선장에 철선을 끌어 옮겨가는 수동적인 상태로 변형되었다.

청호동 가옥은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중 서풍이 강하게 불고 지형상 해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으므로 일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간선도로 좌우에 가옥들이 분포된 것은 도로 형성 이후에 난 민취락이 성립된 결과다.⁴⁾

이러한 현상은 노학동에서 전통적인 영동지방 겹집양식과 함께 국토건설단원과 논산철거민의 개척과정에서 형성된 자활촌과 신흥리 부락에서도 나타난다.⁵⁾

자활촌의 경우 도로양편으로 가옥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중앙의 부엌과 좌우에 방 한 칸씩 배치되고, 논산철거민들에 의해 형성된 신흥리는 한쪽에 부엌과 그 옆으로 방 2칸이 일자형으로 배치된 획일적 가옥구조에서도 비견된다.

청호동은 ‘아바이마을’이라고하여 함경도 이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결집력도 높고, 생활력도 강하여 한 때 6~7.000여명이 거주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사이에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황의 부진으로 어업인구가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청호동의 가옥은 대들보 아랫방을 2렬로 배치한 복열형(複列形) 가옥이 대부분으로 관북형 가옥구조에 가깝다.⁶⁾ 앞서 장사동의 경우도 어촌이므로 함경도형을 닮고 있음에 비해 청호동 주택은 함경남도나 영동북부지역의 가옥구조와는 다르다.

이는 초기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청호동 북쪽에

4) 김형재, 「속초시의 월남난민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20, 1988, 35쪽.

5) 김일환, 「속초시 학사평 일대의 경관변천」, 『관동지리』3, 관동대지리교육과, 1996, 10~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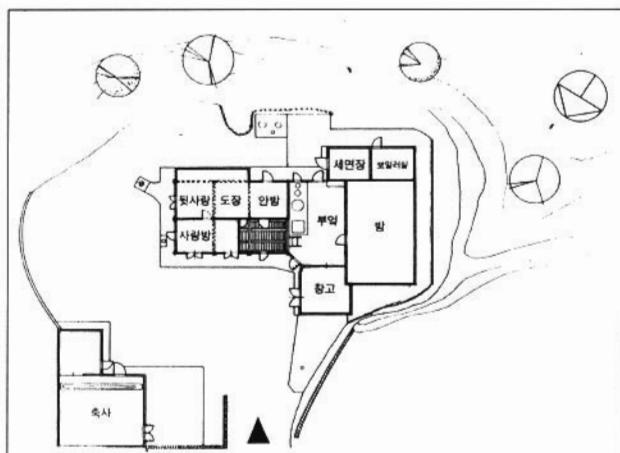
6) 이영택, 「평면상으로 본 한국의 가옥분포」, 『지리』1권1호, 한국지리교육학회, 1965, 1~20쪽 참조.

분포된 2칸구조이다. 대개 안방문을 열면 간선도로가 나타나는 온돌방과 부엌을 골격으로 작게 지은 것들이다. 여기서 나아간 것이 3칸 구조로 2칸에 측면 한 칸을 확장하여 온돌방을 중측하고 부엌을 중앙에 놓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서쪽에 부엌이 있고 온돌방을 나란히 놓는 방식. 방의 전면에 좁은 마루를 설치한 형태로 미닫이로 방을 연결해 놓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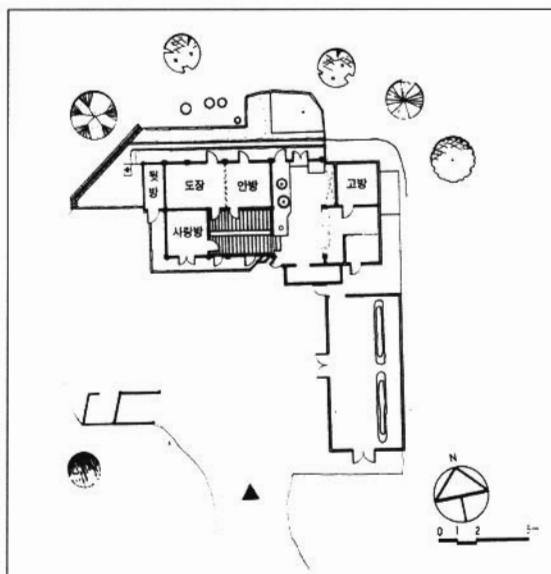
다음은 4칸구조로 3칸에서 나아간 것으로 부엌을 중앙에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나란히 설치하고 여기에 동쪽으로 방이나 창고를 붙인 것이다. 이것은 어류의 건조나 어구의 보관을 위한 방편이다.

이처럼 청호동의 주택은 남향으로 일자형이 90% 이상이며 부엌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초기에는 나무판자로 벽면을 처리했고 지붕은 판자나 드림통을 이용하였는데 60년대에 들어와 벽돌과 슬레이트, 기와 등으로 개조되었다. 주택에는 대부분 담이 없는데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담을 만들 필요가 없고, 공간활용으로 어류의 건조시설물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속초시 장사동 어촌주택의 배치평면도



〈그림〉 장사동 김석주 가옥 평면도



〈그림〉 장사동 최원규 가옥 평면도

제7절 어촌설화와 어로민요

어촌설화는 크게 어업과 관련된 것인데 그리 많은 편수가 전하지 않는다. 어로작업중 경험한 도깨비와 관련된 설화는 혀신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어촌에는 널리 퍼져 있으며, 배성주관련 설화, 속초와 영금정 지명설화, 강장군 아기장수설화 등을 소개한다.

어로요는 어로활동과 관련된 민요로서 근래들어 기계화가 되면서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다. 어로민요는 작업의 진행을 위한 것과 협동심을 위한 것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속초의 어로요는 토박이소리와 함경도소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함경도 소리는 청호동에서 주로 불리고, 토박이소리는 장사동, 동명동, 영랑동 일대에서 불린다. 또한 제주도소리로 해녀들에 의해 불리는 소리가 있어 가창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속초의 어업노동요에는 노를 젓으면서 부르는 지어소리, 그물 당기면서 부르는 다리어소리, 그물을 털거나 고기를 벗기면서 부르는 배끼소리, 고기를 퍼담으면서 부르는 가래소리와 산대소리가 있다. 또한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바다로 이동하는 재래식 이동기구인 들판으로 일하면 부르는 들판질소리도 전한다.

특히 ‘지어소리’는 ‘음음소리’라고도 하는데, 소리 끝에 ‘음음’이라는 후렴을 넣기 때문인 것 같다. 산대나 가래로 고기를 퍼담으면서 부른 소리를 ‘산자소리’라고도 하고,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를 ‘심에소리’라고도 한다.

이들 소리는 대체로 앞소리와 뒷소리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선입후제창의 형식이다. ‘들판질소리’는 일명 ‘배내리는소리’라고 하는데 배를 다 만들어 진수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들판질도 기계로 옮기면서 간소화되었는데 만선기를 꽂거나 뱃고사를 지내는 형태는 잔

존되어 전하고 있다.

1) 어촌설화

【설화1】 신길 이야기

배 두 척이 나갔는데 파도가 셀 때 주문진 앞바다에서 나갔다가 사고가 났어. 36명에서 29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선원 하나가 앞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서 배를 돌렸는데, 다른 사람은 쌍안경으로 찾고 그랬는데, 앞이 딱 막히는 거야.

배를 빙 돌리는 거지, 그게 신길이라고 하더라고. 보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또 멀리보여, 사람 훌리는 거지. 섬 같아 보이고 또 돌리면 또 그만큼 멀어져 보이는 거야. 뱃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순거짓말이라고 그래. 마지막에는 없어져. 그게 뭐냐 하니까 신길이라고 그래. 기관장이 “너는 어디서 봤냐”고 하니까 “원양어선 땅길 때 많이 봤다”는 거야.

제보자: 최형묵(남.62), 1997.11.27, 조양동 1/1

【설화2】 헛불 이야기

우리들 거 풍선가지구서네 땅길 적에, 바다에 나가믄 인제 그 헛불이라는 게 바다에 있어. 날이 구중중하믄 배두 없구 그런데 말이야. 불이 쪼끄맣게 빨갛게 요렇게 보이거던. 그 헛불이 많이 있지. 옛날 영감들 따라 땅길 때 그걸 들어봤는데 영감들이 그걸 헛불이라 그러더라구. 어른들이. 그 어떤 거는 어떤 불은 그 상선처럼 그렇게 상선 갈 적에 불켜놓고 가듯 이렇게 꺼정 불이 있어. 그리구 인저 상례 아버지가 “여보게 여보게, 그 날 날이 좀 좋지 않았는데, 저기 저 불좀

봐라, 저게 헛불이라는 거네” 그 양반들은 우리들 보다 경험이 많거든. 그래 바다 나가면 그런 불에 홀리지 말라 이기지 인제.

귀신불이라구 헛불 본적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헛불이 목소리까지 다나. 아주 흐리한 게 목소리까지 다 나구. 일하는 거까지 다 나구. 저거 배에 곁에 가보믄 없어져 버려. 사람 목소린데 희미해. 좀 약하게 나는데 그 헛불이 귀신불이야. 바다. 그건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그것도 같이 우리가 여럿이 다 들어. 배에서 일하듯이. 배에서 바다에 가서 죽은 귀신들이지 그기. 그 역시가 그래두 거 가면 불이 없어져. 그 금방가면 불이 없어져. 저 배라구 하고 가면 없어져. 그 귀신불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우리가 헛불이라 그래. 헛불이라구도 하고. 그 중얼중얼하지 소리가 약해. 사람목소리 보덤 소리가 희미하게 나온다구. 우리 직접 봤으니까 거 금방가면 없어져 버려. 그래 그게 헛불이다. 이 육지에 도깨비불 있듯이. 그 한가지여. 그건 내 눈으로 봤으니까.

제보자: 천윤이(남.81), 1997.11.27, 장사동

【설화3】 헛불 이야기

또깨불은 그 옛날에는 우리들 클 때 아적이때 보았는데. 그때에 총각때에 배를 냉겼거덩. 바다나가면 날이 구중중 한 때가 있단 말이여. 그때 가면 바다나가면 불들이 많어. 어떤 때는 큰 배가 불켜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게 또 없어진단 말이여. 그럼 이쪽에서 멀리 또 보이고. 또 이쪽에서 한참 있다가 그런 불이 나오고. 그것 헛불이라고 그러지. 영감들이 그러거든 “헛불 보인다” 그런거지. 헛불. 그게 얘길 들으니까. 바다에서 더러 배가 파산될 수 있잖어. 그런게 저렇게 보이게 한다. 전설이라는게 거져 그런거지.

우리도 몇번 보긴 봤는데. 날이 구중중할 때 이럴 적에. 날이 흐리고. 비가 눈개비같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바다에 나가서 며칠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럴 적에 비오는 날도 만나고 바람부는 날도 만나고. 이제 이럴 때가 있지. 맨날 나갈 적마다 그러는게 아니라. 그러

니까 일종에 뭐 불이 밝으니까 헛게 보이는 거지. 옛날 노인네들 애길 들어보니까 60년대 한 번 이게 본적이 있어. 밤에 내가 배가 들어오는데 배들이 빛이 없어. “저쪽가세” 들어와가지고 없어졌어.

시간도 없는데 없어진 배가 어떻게 들어왔나했지. 그래서 난 옛날에 어른신네들 하는 소리를 들었지. 난 미신을 믿고 있어. 작업이 안될 적에 옛날식으로 고사지내지. 배를 가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안돼.

제보자: 이대근(남. 60), 1997. 11. 25, 동명동

【설화4】 배성주 이야기

성주가 우는 건데, 배에 성주를 달아 놨는데, 성주가 찍찍 울으면 파도가 시고(세고) 날이 궂힌다. 인제 사공에다 갈쳐주는 거야. 그런 식이 있어. 그러믄 들어오는 거여. 성주가 울으면, 우는 소리가 취소리 처럼 난다구.

옛날 할아버지 애길 내가 들었는데, 찍찍 소리가 난다구. 그 성주가 우는 기야. 성주가 일테면 사공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날이 험하니까, 들어가거라. 그 옛날 미신으로서 말짱 그렇게 살았지. 지금은 미신을 알기 우습게 알지.

우린 성주를 믿었지. 용왕은 빌지 않고, 성주를 모셨으니까. 성주를 빌은 거여. 그럼 밥을 하잖아. 저녁밥을 해도 밥, 국을 해서 성주에다가 한 바가지씩 떠놓고, 또 아침에 밥두 수대 걸 떠서 성주에 갖다 떠놓구.

이리구 밥을 먹는데, 배에 쥐가 탄 배가 있어. 그 쥐가 밥을 다 주어 먹어. 자고 일나믄 그 쥐가 밥을 먹구 이러는데, 그러니 인제 맨날 성주에 밥을 떠놓으니까는 쥐를 그 성주가 그 밥을 먹여서 기르는 거지.

쥐도 모르게 우린 성주를 모셨는데 쥐가 와선 성주밥을 먹는 거여. 그래서 이렇게 길렀는데, 역사는 인제 들어보니까, 그 쥐가 커서, 밤인데, 배질은 해야 되겠는데, 캄캄한 밤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해 알아야 배질을 하지.

근데 이 쥐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가지구 쥐가 불을 내. 쥐 눈에서. 그래서 그 불이 요렇게 가기 때문에 저 불만 따라가면 육지라는 걸 사공이 머리에 넣지.

그 쥐를 먹였으니까는 쥐가 인제 은공을 갚을라구 물에 떨여져서 쉬가며 불을 반짝반짝 내니까 그 쥐를 보고 육지에 살아온 전설을 우리가 어려서 들었다구.

첫고지 올라오는 거 한 마리 벗겨서 갖다가 성주앞에 갖다 놔. 달아매놓는 사람도 있어. 성주에다가. 노끈을 매서 달아 매놓는 사람도 있다구.

성주는 배 중간에 해두는 데가 있는데. 실을 갖다가 실 한 태를 갖다가 실을 짤라 가지구. 요렇게 싸서는 인제 창호지를 접어가지구. 요 시방 그 성주들 모시지않우. 그거와 똑같애. 천은 안 달아요. 창호지만 달지. 배나 집에나 뭐든지 하는 거는 정성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 정성이니깐. 뭐 무슨 특별히.

그래 인제 첫 번에 나가가지구 제일 쪼그만 거나. 큰 거나 첫 고기가 올라오면 배에도 성주가 있거덩. 성주 있는 데다 매달지. 처음 시작해 가지구 첫날 나갔을 때 그렇게 하구서네 그래 인제 보통 그 해 첫 작업을 하잖아. 작업을 하면 고기가 인제 명태가 이만한 것도 있구. 요런 것두 있구 그렇거든. 근데 맨 첫 번에 쪼그만 고기가 올라오면 그 날 재수가 좋다 그러지.

제보자: 천윤이(남.81), 1997.11.27, 장사동

【설화5】 배성주의 기원

배에나 집에나 여성주, 남성주 그것 두 똑같은 거여. 집에도 성주님이 앉는 거야. 왜 집집마다 고사를 부치잖아. 아무 것도 보살들은 그냥 “받으시오. 잡수시오. 네 성주님” 이러지 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터부터 먼저 이는 거야. 터전이 일어나야 성주님이 좌정해 앉거덩. 흔들지 않는다는 말이야. 터에서 흔들어 놓으면 성주님 아무리 앉아 있을 래도 자기 멋대로 성주님 앉을 수가 없는데. 땅이 없는데

허공에 앉겠나. 그저 그거야 똑같애.

이 성주님도 이제 가만히 내가 맹기면서 해보면은 남성주, 여성주가 다 그렇다. 그 분도 여전히 한가지요. 옥황상제님한테서 성주님이 태어 낳거덩. 아들이 태어나 옥동자가 성주아버지 천중대왕이고, 성주부인도 옥진부인이야. 두 동자가 성주님이 옥황상제님전에서 태어났지. 몇 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37살, 엄마는 39살이다. 이래 기도해 가지고 태어난거야.

이 성주님이 어디가도 기도, 칠석님한테 기도, 산신님한테, 미륵님부처님한테 기도, 용왕님한테도 기도 네 군데 맹기며 기도, 석달 열흘 백일을 했단 말이야. 해 가지고 성주님한테 했단 말야. 이름을 뭐라 짓느냐. 성주는 별호란 말이야. 아석국, 그 사람 이름이 고거고, 성주는 명이 길라고 별호를 지은 기 성주라고 별호를 지었다고.

이래 가지고 이 분이 어떻게 됐느냐는 엄마, 아버지 품에서 나이 먹어서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켰겠니. 켰지만은 장가가야 할게 아닌가. 장가를 갖는데 무남독녀 외동딸한테 장가를 간거야. 옥황님 무남독녀 외동딸한테 딱 가니까.

장가가서 가만히 사주를 보니까 자기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천상 옥황나라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지하로 귀양을 내려와야 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별하고 엄마도 이별해. 그 귀엽게 키운 자식인데 자기 팔자대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나. 앉을 곳이 없잖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내려가서 석달 열흘 백일을 네 먹고 입을 걸 줄거니, 이걸 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니가 이걸 먹을 때까지 도를 닦아라” 인간사. 그땐 인간이 집도 없는 거야. 풀을 가지고 쓰고 가리고, 그냥 생식만, 이건 음식도 모르고, 이럴때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다.

석문씨는 돌만들고, 복신씨는 나무만들고, 수인씨는 물만들고, 공자맹자 성인 군자님은 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 성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 내려와 백일만 먹고 입을 옷을 줬으니까, 그것만 먹고 도를 닦으라고 했으니까.

지하에 내려와봐라. 사람이 못먹어, 집도 없어, 나무 그늘이면 그늘 밑에 사니 “니가 인간 속까지 내려가서 인간이 의지해서 살만큼 도를

닦아서 소원을 인간 세상에 주어라” 그래 성주님이 이 집을 매련해 준 거야. 그러니까 성주가 먼저 집지으면 들어오잖아. 대들보에 성주가 들어오는 거야.

그 분이 이 나무를 심어. 아무리 나무를 해도, 집짓는 법을 모르니 그 성주 양반이,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서 우리나라 팔도 명당마다 갖다 하나씩 뿌리니 풀도 자라. 나무도 자라. 이것을 폐다가 집을 지으니까 배를 지어도, 집을 지어도, 승용차에도 성주, 공장에서도 성주. 바로 의미가 그렇게 된거야.

종이 한 장에다가 명을 주라고 명실이요, 복을 주라고 종이에다 복을 주라 그런 의미지. 남성주 있는 집도 있고, 여성주 있는 집은 왜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혼자 살다 너무 답답하니. 18살 먹어 장가갔는데, 천상에 있는 자기 부인 불러내려 모셨어.

근데 어판댕기면 남성주가 “당신은 여성주로 당신이 앓소, 나는 남성주로 앓을게” 차도 어떤데 보면 쌍성주가 있다고, 신랑 각시 그땐 같이 만나가지고 좌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쌍성주 한꺼번에 있고, 어떤데 가면 여성, 어떤데 가면 남성주, 어떤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배는 뭔 성주가 있소” 이러면 듣기 좋게 “남성주가 있소” 그러면 그거 틀리면 큰일 나거덩.

뺏고사 부치고, 뭐 빌고나면 사고가 나거덩. 웬가 하면 남성주인지 여성주인지 몰라서, 말하기 좋아서 남성주인데, 남성주라고 다 빌어놓으면, 여성주는 못 받아먹고, 남성주로 빌어놓고 나면은 사고가 나는 거거덩. 여성주가 내려와서 같이 있고, 어떤데 가면 갈라져 노놔 있고. 신랑이 시키는 거라. “너는 저쪽가 저기 앓아라, 나 여기 이렇게 앓겠다” 이래 가지고 남성주, 여성주 갈라지는 거야. 남성주와 여성주가 차리는 것이 다를 거 없어요. 여성주, 남성주 차리는 방법이 다른다는 것은, 남성주는 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하얀 실에다 창호지 하나 고거 하나 해서 달면 남성주야.

여성주는 뭐가 다르냐면은 물색으로 올린다고. 빨간 천, 노란 천, 색색을 해가지고 어테 가면 색실하고, 어테 가면 천을 하고, 그래서 여성주를 분간하는 거야. 차리는 것은 다 똑같애.

제보자: 정춘자(여.63), 1997.11.28, 대포동 3/2, 무속인.

【설화6】 속초지명유래

속초라는 게 왜 속초라고 하다면 세가지 설이 있어요. 처음부터 세 가지 설이 있는 게 아니라. 6.25 동란이 나고 수복이 되자 속초라는 이름이 왜 생겼나 하고 죽을 판인데, 왜 생겼나 알게 뭐야.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알아야 되겠다. 할아버지 모르는데. 이제 먹고 사니까 할아버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왜 속초라 하느냐. 속새풀이 그전에 많이나니까 속새풀이 많아서 속초라 한다. 그건 알기 쉽지요. 속새라는 것은 원칙은 여기에 없어. 속이 빈었는데. 옛날에 고결 가지고 나무 문대고 그랬어요. 근데 원칙은 여기 그런 풀이 없는데. 속초라는 것은 댘 게 없어 놓으니 그렇게 댄 것이 속초라 한다 한거야. 그래서 속초라는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듣기 쉽다 이기야.

그래 두 번째는 울산바우라는 게 있어. 설악산에 올라가면 전설이 있는데, 그 울산바우라는 것은 울산에서 왔다하는 전설이거든. 울산에서 왔다해서 울산이라 한다. 원칙은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울타리산이라 하거든. 울타리를 울이라 하잖아. 대 죽 밑에 떠날이(籬) 하는 울타리산이다. 울타리 같이 바위가 생겼대서 울이라 했어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걸 시끌서 사는 내 같은 무식한 사람이 알게 뭐야. 그래노니까 이제 구비로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울산에 이 바위가 경상도 울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강산을 만들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산은 마카 모여라 했는데 다 모여서 금강산을 만들어놨는데, 울산바우는 하도 덩치가 커 놓으니까 늦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물주가 하신 말이 “너는 생기긴 잘 생겼다마는 이왕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할 수 없이 저 끝으로 가서 있거라”해서 울산바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건장한 덩치에 그 먼데서 힘써서 왔는데 맨 윗 자리를 줘도 될뚱말뚱한테 말쪽에 갖다 놓으니 에이 기분나쁘다고 간다하니 덩치가 커 놓으니 간다해도 힘이 든다하니 “에이 아무데 설악산 경치 좋은 데서 쉬었다 가자”해서 거기 쉰자리가 울산바위라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신흥사라는 절이 있었거든. 그때는 조선시대

니까 고려시대에 왕성했던 불교가 탄압을 받아가지고 조선시대는 숭유척불사상이라 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한다고 그런 난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이 맥이 있나. 울산 원님이 울산바위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바위가 거기 가 있으니까 신흥사에 가서 세금받아 가져 와야지. 너희가 그 경치를 보고 사니까. 보는 값을 내놓아라”하고 울산 원님이 찾아왔어.

“울산바위 때문에 너희들이 빚이 난다. 영광스러운 세금을 내라” 그 때는 어느 명령이어서 안낼 수가 없거든. 세금이 자꾸 올라간다. 물 가가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니 그때 절간에 형편이 매련없거든. 그 때 ‘권금성’이라는 곳에 도적이 우글우글해서 절간을 막 떨어먹고 이런 판이거든. “거 큰일이다”고 하고 하루는 주지스님이 날마다 걱정이지만 하마 원님이 오면 돈이 없고 걱정하니까.

그 밑에 동자스님이 결혼안한 아이 중이 “스님 뭘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야야 니 알 게 아니다” “아니 좀 알았으면 스님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런게 아니라 니도 알다시피 내일 원님이 오신다. 원님이 오시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세금을 못내니 그게 큰 걱정이 된다”

“걱정마세요. 원님이 오거든 나를 불러 대시오” 이 말 듣고 원님이 왔네. 이 사람이 오니까, 이것도 구비입니다. 원님이 와서 세금을 내라 하니까 주지 스님이 가를 불렀답니다.

“세금 못냅니다” 하니 “아, 저것봐라. 주지 스님이 가만 있는데, 조그만 놈이 어이 왜 못내냐.” “이제 울산바위 때문에 농사라도 소채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 바위 때문에 소채도 못갑니다. 손해가 막심입니다. 손해 보상을 원님이 내놓고 가시오” 하니 이치가 그렇거든.

아, 이젠 도리어 한 대 맞았네. 혹 때려 가서 혹 붙었네. 원님이 가만 생각하니 요놈을 가만히 덮어놓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바위를 가지려 갈테니까, 바위를 가져갈 채비를 니가 해라” 그러니까, “무슨 채비를 합니까?” “이 바위를 옮겨가자니 여간해서 못 옮겨간다. 제 나무 태운 재를 가지고 묶어놔라”

워낙 큰 거라 어찌지 못하고 동자스님이 “알겠습니다.” 하니 원님이 “요놈의 새끼 니가 암만 머리가 좋다도 못하지”하고 “재새끼줄로 못

묶지”하고 며칠 뒤에 원님이 갔네.

“재새씨로 묶어놨니?” 하니 “예, 재새끼로 묶어 놨습니다.” 원님이 깜짝 놀라 “야가 어떻게 묶어놨나.” 하니 풀단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 놓고 원님이 오기 전에 불을 싸질러 가지고 태워놓으니 새끼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새끼가 있단 말이야.

있긴 있는데 그 끌고 갈 수가 있나. 만지면 다 떨어질텐데, 할 수 없이 원님이 세금을 안 받았다해서 그걸 묶었다해서 속초라 한다. 전설적으로 아까 얘길 했었던 건 너무 비속하고, 지금 얘기하는 너무 과학적으로 멀다 이기야.

이제 세 번째는 속초를 왜 속초라 하냐하면, 이 속초는 와우형이야. 누울 와(臥)자, 소 우(牛)자 소가 누운 모양이란 거야. 지금 영랑동 머리가 등대 있는 테가 머리고, 갯배가 청호동 넘어가는데 있거든. 옛날부터 때배가 있었지.

나무로 때를 만들어 정선 촌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배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 배를 신고 왔다갔다 했어. 바로 거기가 소 앞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조양동에서 청호동으로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지요. 거기가 소 뒷발이라하고, 대포에 외옹치라는 게 있어요. 대포끝으로 거긴 소꼬리라. 영랑동에 그 앞에 영금정 옆에 숲이 우거졌다. 거기 소머리밑에 숲이 있잖아. 저기가 풀단이다. 속초, 풀을 묶어 놓은 것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운 소가 풀을 먹고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 발전성있는 속초다.

그 세가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을 붙일까? 어느 것을 붙여야 하는가. 속초라는 이름을 이왕에 넣을 때 붙일 때 좋은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어느 게 좋으냐하니 모두 와우형이 벌써 전해내려온다는 거야. 전해 오니까 두 말 없이 와우형으로 해야 한다니. 속초에 대해 묻거든 이렇게 전해줘야 하지. 그래서 속초라 한다는 걸.

제보자:박익훈(남.82), 1997.11.28, 교동

【설화7】 영금정 유래

영금정이라면 참, 그 유래란 건 별게 아닌데, 영금정이란 게 참 신령스러운 거문고 소리가 난다해서 영금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파도가 그 바위에 부딪치니까 그 바위가 울려서 거문고 소리가 들린다 해서 영금정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란고 하니까, 옛날에 그 선선들이 거 와서 놀아서 거문고를 타고 놀았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 다 맞겠어요?

바위에 부딪쳤다. 그건 어지간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70여년전에 만든 일본시대에 써놓은 책은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 일반이라는 도천면이란 면이래요. 그땐 면소재지가 대포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 이 영금정 있는 데를 소해금강이라고 했어. 적은 해금강 그렇게 경치가 좋다는 거야.

해금강 거기에 가면 지금 초소가 이런 봉우리에 등대가 있고, 고 밑에 봉우리에 요런 초소가 있어, 방파제 나간데 있죠. 그전에 거기 규송이라 해서 솔이 있었어요. 이런 솔이 고불고불 이렇게 솔이 서 있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비선대래요. 비선대, 여기에 설악산에 비선대가 있는데, 그 비선대는 날 비자에 비선대고 여기에 있는 이곳은 비밀이라는 비자에 비선대래요.

비밀 비선대 신선이 가만히 놀다 갔다. 이런데 옛날에는 참 여기 경치가 좋았어요. 속초가 수복되고 군인이 후퇴하고 경비소를 짓기 위해 솔을 마구 베냈어요. 그래서 아까운 비선대 경치가 다 없어졌어.

그래 영금정에서 옛날엔 그게 영금정에 소머리가 여기가 소머리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숲도 우거지고, 횟집도 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바다에 아주 이런 돌이 서있다 그래서 해금강같이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를 작은 해금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곳이라. 그런속인데 속초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돌을 마카 깨다가 축강하는데 쓰고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지. 그래 그때는 여기에 파도가 치면 그런 소리가 났어. 그래 영금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지요.

【설화8】날개달린 강장군 이야기

강장군이 여기 있지. 강장군은 7대여, 내가 11대구, 내 자랑같아서, 그게 강장군이 어떻게 된고 허니. 두 오뉘가 살았다 이기여. 뉘두 힘좋고 강장군은 총각이지.

여기 나루에 갔다가 그때 배가 크겠수? 고기 잡아오면 “야 강장군이다. 아이구 어떡하누” 그래 강장군이 고기를 빼앗아 안 주거든. 지금 여기 들어간 배의 거길 못넘어. 이렇게 들어서 와야 돼. 그냥 올려 놓으면 낸쿠기나 하지. 이래 나무 갖다가 배를 꽉끼워 놨다 이기야. “에이 강장군은 재수없다.”

그래 그땐 밀주야. “강장군, 참 내일부턴 고기드릴게, 잡수시우” 하룻밤 그리구 내일 배가 나가드래. 그때 한 밤중이 되니까. 저 산중에 오리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그래 가니까 강장군이 다니드라 이기야. 아침에 떡보니까. 배가 거기 있드라 이기야.

강장군이 언제 한 줄 모른다 이기야. 그래 가만히 있드니 이거 질래 놔뒀다가 나와서 행짜 부릴까봐 “이거 안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술을 잔뜩 먹여놓고 보니까 이쪽에 뭐가 이 만큼 나왔드라 이기야. 날개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놈이 행짜 부릴까봐 술잔뜩 먹여 놓고는 숯불에다 송곳 달궈 꾹 찔러 죽였다 이기야. 양쪽 날개다.

그래 사람들이 묻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하고 들썩들썩하드라 이기야. 그래 사흘 있다가 용마가 서쪽으로 날아갔어. 그게 전설이지.

제보자: 강양수(남. 70), 1994.11.2, 장사동

2) 어로민요

【민요1】 지어소리(노젓는 소리)

헹해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
 세월아 내월아 가지를 말아/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이팔청춘 그립도다/저달보구 울지를 마라
 간다더니 왜왔던가/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이
 빨핀 잠이나 자구 가거라/자꾸가구나 지어라 내지
 가지만사를 생각하면/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
 오동추야 달밝은데/님의 생각이 절루만난다
 지어라 내지 지어라 내지/요차보자 지어라 내자
 가자가자 빨리가자/이수건너 백로가자
 백로함께 어서가자/조그만한 자라 등에
 크다하는 저달을 싣고/우리고향 언제가나
 명사십리 해당화야/꽃이진다 설워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잎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님아 님아 정든 님아
 요내 가슴을 만지어보아라/청천하늘에 별두나 많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지/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지
 제보자:김형준(남.74), 1987.5.27, 청호동

【민요2】 지어소리

가래 밀어/예, 박니다

어야 어야 이여차 어이여차/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이여차 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

잘도간다/어이여차

잘도미네/어이여차

앞발은 벼티고/어이여차

뒷발은 밀고/어이여차

앞당겨서/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이여차 어이여차

이여차 어이여차/이여차 어이여차

제보자:김봉준(남.67), 1997.3.20, 장사동 1/3

【민요3】 지어소리

에헤라 저어라 배저어라

에헬라 에라 보잔다

에헤라 설렁설렁 어어야

에헤라 저어라 보자/지어라 지어라 음 음

저어라 보자 음음/지어라 간다 음음

손허리 저렇게 배기고 음음

어찌돌려 싸겠니 음음

제보자: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민요4】 다리어 소리(그물당기는 소리)

다리어 다리어/다리어 다리어(후렴)
 구구청병 일인호야/부산이 둉실 높이떴다
 양국에 갖은안개/월봉으로 돌아든다
 오월이라 단오날/양류속에 그네매고
 그네뛰는 요처녀야/한번굴러 앞줄높아
 두번굴러 뒷줄높아/삼사번 굴리대니
 녹수청산 자진토다/말없는 청산이요
 태가없는 유수로다/값없는 청풍이요
 임자없는 이몸이라/일락서산 해는지고
 월출동산 달이떴네/간다간다 나는간다
 임을두고 나는가네/내가가면 아주가나
 아주간다고 잊을소냐/가실적에 오마하더니
 가고나니 그만이구나/우리부모 날양할제
 젖은자리 마른자리/이리저리 가려눕혀
 이런고생 시킬려고/세살적에 중이나 줬으면
 이런고상 없을텐데/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산이/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몰렸으나/천하명산 그어디냐
 장안사를 구경하고/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베이어라

재보자: 김형준(남. 74), 1987.5.27, 청호동

【민요5】 다리어 소리

다리어라 내자/다리어
 다리어라 내자꾸나/다리어
 니가내가 어찌하든/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다리어
다리어라 내자/다리어
제보자: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민요6】 다리어 소리

다리구 내자/다리구 내자
다려보자/다려보자
야. 많이 올라온다
다려보자/다려보자
야. 다니기다. 다니기
올라온다 막올라온다
다리구 내자/다리구 내자
제보자:천윤이(남.81), 1997.11.28, 장사동

【민요7】 다리어 소리

에야 어야 어허야
에야 어야디야 어허야 어야 어야
잘도하네/어야/잘도하네/어야
앞발은 벼티고/어야/뒤로 자빠져/어야
눕지말고/어야/부쩍부쩍/어야
당겨주게/어야
어야 어야/어야 어야
제보자:김봉준(남.67), 1997.3.20, 장사동 1/3

【민요8】 가래소리(고기 퍼 올리는 소리)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니잘나고/에라선 가래로구나
내잘나도 소용없잖냐/에라선 가래로구나
오늘이 이르게되면/에라선 가래로구나
한배 만선해실고/에라선 가래로구나
우리고향 들어가면은/에라선 가래로구나
얼매나 기본좋고 명이나느냐/에라선 가래로구나
에라선 가래로구나

제보자: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민요9】 가래소리

에라솔 가래라솔
얼씨구좋다/에라솔 가래라솔
밥굶드니/에라솔 가래라솔
성황님이/에라솔 가래라솔
우리먹고 살라고/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더리 밀어줬다/에라솔 가래라솔
제보자: 강양수(남.70), 1994.11.2, 장사동

【민요10】 가래소리

가래 가래라 가래로구나/에이야 가래라소
 요번 가래는 누구의 가렐까/에이야 가래라소
 요번 가래는 이도령 가래요/에이야 가래라소
 두 번째 가래는 춘향의 가래/에이야 가래라소
 산천초목이 울릴때까지/에이야 가래라소
 슬퍼말게 슬퍼말아/에이야 가래라소
 늙어진다고 슬퍼말계/에이야 가래라소

제보자:김봉준(남.67), 1997.3.20, 장사동 1/3

【민요11】 배끼소리(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

배끼어라 보자/배끼어라 보자
 해도 지고 저문날에/고삐없는 소를 놓고
 그 소찾기 망경이다/원수로다 원수로다
 악마금전이 원수로다/손흔드는데는 밤에 가구
 동리술집은 낮에 가구/얻어먹다 빌어먹다
 집이란 걸 지어노니/아들나면 효자나고
 딸이 나면 열녀나고/소가 나면 특소나고
 닭이 나면 봉황나고/개가 나면 삽살개고
 말이 나면 용마로다/자지항이 황금출이요
 개문항이 만복래라/동지섣달 긴긴밤에
 닭개는 잠자는데/우리 팔자 무슨 팔자
 이런 고생을 하느냐/이 놈을 쥐면 저 놈이 나오고
 저 놈을 쥐면 이 놈이 나온다/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 적에 용기를 써라/원산내기 찬바람에
 취한 술이 절로 깐다/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손발이 시려서 못 살겠네

제보자: 김형준(남.74), 1987.5.27, 청호동

【민요12】 베끼소리

벗겨라 보자 벗겨라
 벗기어라 보자꾸나 벗겨라
 벗기어라 보자꾸나
 니가내가 잘하든/벗기어라 보자꾸나
 내가너가 잘하든/벗기고 벗기고나 보자꾸나
 저손질이 저러구/벗기어라 보자꾸나
 소년고생을 안하겠나/벗기어라 보자
 들어쳐라 몰아쳐/벗기어라 보자
 벗기고 벗기고자 보자

제보자: 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민요13】 베끼소리

어라 벗기고 보자/에라 벗기고 보자
 벗기어라 내자꾸나/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에라 벗기고 보자꾸나/에라 벗기고 보자꾸나
 슬렁슬렁 벗기자고/에라 벗기고 보자
 이말저말 하지말고/에라 벗기고 보자
 이등칸에서 들어내라/에라 벗기고 보자
 저손질이 저러구/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에라 벗기고 보자

에라 벗기고 보자/에라 벗기고 보자
제보자:신재덕(남.81), 1994.11.3, 동명동

【민요14】 산대소리

에라소 가래로다/에라소 가래로다(후렴)
퍼실어보자/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지멋에 젖어 축늘어졌다/이번 산대는 성주님 산대요
다음 산대는 망주님 산대요/다음 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아가 동자야 술부어라/매일장춘 먹고나 놀자
아니먹고 아니쓰면/왕장군이 고잘래야
춘추시절은 적망인데/개고충은 넋을 잃었다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인간청춘 늙어간다
산도 설고 물도 설은데/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림큰애기 안고 노는데/우리 팔자는 기박하여
이런 고상을 하는구나/푸른푸른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이부자리 좋~다
왕구성 풍~세/샛별 놋요강이
사람간장 다 늑인다/산수갑산 딱다구리는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우리 저 명텅구리는
뚫린 저구멍도 못뚫는다/세상만사는 무과주요
술이나 먹고 놀아보자
제보자:김형준(남.74), 1987.5.27, 청호동

【민요15】 산대소리

에헤 산자/에헤 산자
 에헤라 산자/에헤 산자
 에 넘어라 한마디하자/에헤 산자
 에헤 산자/에헤 산자
 에 넘어라 오늘어디/에헤 산자
 어헤 산자/에헤 산자
 올려라 올려라/에헤 산자
 에이야 사이다

제보자: 김현태(남.67), 1994.11.3, 대포동

【민요16】 든대소리

자~ 자~/자~ 자~
 우리 배를 내려다보니/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이내 손발 다얼었구나
 들어보세 들어보세/우리 배를 들어보세
 보고보고 암만봐도/보배인들 배이로다
 개고충이 넋을 잃었다/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인간청춘 다늙어간다/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살림 큰애기 안고 노는데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이런 고상하는구나
 가자가자 어서가자/보배 전지러 어서가자
 제보자: 김형준(남.74), 1987.5.27, 청호동

【민요18】 해녀물질소리

이어사나 이어사나
 옛날옛적 태천형읍 내온 놈아
 백년가도 원수로구나/만년가도 원수로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삼시나 굽어 물질하여/한푼 두푼 모인 금전
 낭군님 술값에 다들어가네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논엘지고 어디나 가리/진도나 바다 한꼴로 가자
 여기여차 한말올라 올려찾고/한말 올라 노래나 찾자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하
 지붕에는 산마루야/요백나에 어루나 얻지
 잘거냐 저어라 배야/통통배야 잘 때나 가자
 이목저목 올또못가 화랑도야/좁은 목에 올려쳐도 요배로구나
 이어도 사나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나 이어사나
 논엘지고 어디나 가나/진도나 바다 안무우로
 몰라야 차또 요배로구나
 이어사나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나
 배가고파 지은 밥은/이도나 많고 돌도나 많다
 이도 돌도 없는 것은/어미없는 탈이로구나
 어기야차나 이어도차
 요낼 지여 어덜가리/진도바다 한물로 가네
 이어사나 이어사나 일기야 디야 사리로구나
 물도나 살고 산도 산데/누구를 보고 나 여기왔나
 금전이 아니라면 요곳에서/누굴보고 나여기왔나
 한쪽 손에 비창을 들고/한쪽 손엔 호미를 들어
 한질 두질 수필로 가니/제 신도가 완연하네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하

논이나 고대얘기랑배여/허리지다 배지당말
 통통배여 갈때나 가자/허리때밑에 화장하여
 올때나 점점 늘어나진다/어서나 가자 바빠가자
 이어사나 이어사나
 저어라 배여 통통배여/갈때나 가자
 이어라차 열기야 디어
 만리나 장사 버든 덧은/점점이 사려놓고
 이어차 이어차나 이어사나
 가고싶은 일본동경 내몸가고/하기나 싫은 해천영업
 열기야 디어 이어라차 이어라 디여
 우리부모날 날적에/요정사려 하시라고 날낳던가
 이어차 이어차하 이어차하
 해천영업 내온 놓아/백년가도 원수로구나
 천년가도 원수로다
 이어사나 이어사 이어사하 이어사 이어사하
 명사십리 해당화야/꽃진다고 서러마라
 내년삼월 봄이되면/너는 다시 피건마는
 어기야 차라 어기야 차라
 우리인생 한 번 가면/다시오기 어려워라
 어기야 차라 어기야 차라
 어이야 디어 이어사나
 저산천은 해년마다/바라바리 짚어나지고
 이내몸은 해년마다/소록소록 늙어지네
 이어사나 이어사나/어기여 디어 산이로구나
 저이라 배여 통통배여/배에 갈때나 가자
 어서바빠 내를 지고/갈때나 가자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하 이어차하
 우리님은 어딜가고/날 찾아올 줄 왜몰르나
 이어라차 이어차하 이어사나
 일본대따향 가신님은/돈벌이나 가끔하고
 북망산천 가신님은/언제나면 오실건고

이어사나 이어차
우리인생 한 번가면/또다시 올줄 몰라진다
이어차 이어라차
이어사 이어사나 이어사나
여물아랜 응거나/검은칠석 같이 깔렸건만
높은 낭기 열매로구나
이어사 이어사나
바람이 부나 비가오나/우리해녀들은 저바다에
죽으나 사나/바다에서 시달리네
이어차 이어차 이어차나 하
요런 두령박 지펴놓고/집을 삼고 벗을 삼아
썰물은 남은 동해바다/밀물은 남해 서해바다
불쌍하신 우리해녀들/옛날옛적 태천형용 매운놈아
백년가도 원수로구나/만년가도 원수로구나
이어차 어기야디어 이어라차
제보자:이기순(여.74), 1997.11.29, 동명동

글 쓴 이 후기

이 책을 쓰는 동안 내 입속에서는 도루묵 알이 터지는 느낌을 가졌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강박감의 알갱이를 깨뜨리듯이. 이북에서 1.4후퇴때 피난내려오신 부모님은 고향과 가장 가까운 속초에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다.

부모님과 살았던 중앙동 시장골목과 동명항 근처, 그리고 영금정에서 뛰어놀던 시기와 고성으로 옮겨 아야진 생활을 포함하면 나의 유년기는 바다와 친했던 것 같다.

평안도 출신의 아버님은 몇번 오징어바리를 나가셨다. 무슨 이유인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 식구는 리어카를 끌고 1960년대 집이 몇 채 없었던 설악산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살았던 15년동안 산과 짐승, 그리고 계곡물소리, 에델바이스와도 친했던 것 같다. 나의 유년기는 이처럼 바다와 산을 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블록을 넘어서면서, 지금 비릿하지만 구수했던 도루묵알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을 다시 맛보게 되었음은 고향이라는 단어의 흡인력인 것 같다.

속초에서 살았던 기억들과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가까이 들여다 본 내용들이 어로민속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졌지만, 사실 주변에서 보아왔던 날바리 어촌생활사를 잘 기술했는지 의문이다.

낚시질로 배대미를 잡아서 깡통에 넣고 신이 났던 어린시절과 배타고 근해에 나갔다가 멀미만 하고 돌아온 이십 대의 기억도 있지만, 사실 내 손으로 제대로 된 고기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연구가 더욱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속초중고등학교때는 쌍천 벗가에서 곤돌매기나 버들가지라는 이름의 민물고기를 잡는데 뚝빠져 있었다. 이것도 일종의 어로민속이겠지만, 하여간 남보다 작살질을 잘하던 동네 형들이 부러웠다.

그동안 어로민속은 농경민족들에 비해서 연구된 것이 많지 않은 형편이다. 바다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것이다.

불박이로 대물림해서 사는 농촌과 달리 동해안을 따라 출어를 하며 이동하는 뱃사람의 삶은, 고단한 그들의 삶처럼, 표박(漂泊)문화라는 특성상 체계화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내가 속초의 어로민속조사를 시작한 것이 1987년부터라고 생각된다. 중국유학에서 돌아와 박사논문을 작성하던 때였는데, 속초문화원에서 『속초의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향토사료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책자는 소략하여 별로 볼 것이 없는데 그나마 이러한 조사자료가 전에 없었기에 위안이 되었으며, 뒷날 『속초시지』(1991) 민속편을 작성하는데 근간이 되었다.

이후에도 틈틈이 조사한 자료를 보완하여 『속초의 향토민속』(1992)이라는 단행본을 내고, 그곳에 어로민속의 일부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995년에는 강릉대 국문과 제자들과 함께 속초시 학술조사를 하면서 어촌민속과 어로문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2년후에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7)에 수록하기 위해 체계적인 민속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번 어로민속지를 위해서 지난 해부터 어촌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이렇게 보면 199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대략 1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동안 줄곧 짐이 되었던 어로민속의 정리는 일단 마치게 되었다.

그동안의 조사노트와 녹음자료를 정리하여 이번에 『속초시 어로민속지』라는 이름으로 묶었지만 ‘몸은 타지, 마음만 고향’인 현실에서 충실히 한 책자가 되었는지, 또는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고심한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두려움이 앞선다.

강원도 지역의 민속문화를 조사하여 체계화하고 자료화하고 학설화하여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개성을 드러내 보겠다는 의지로 몇몇 글을 써보았지만, 이번 작업은 특히 애착이 가는 일이었다. 비록 의욕만이 앞섰는지 모르겠으나 향후 계속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번 책자는 최용문 속초문화원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으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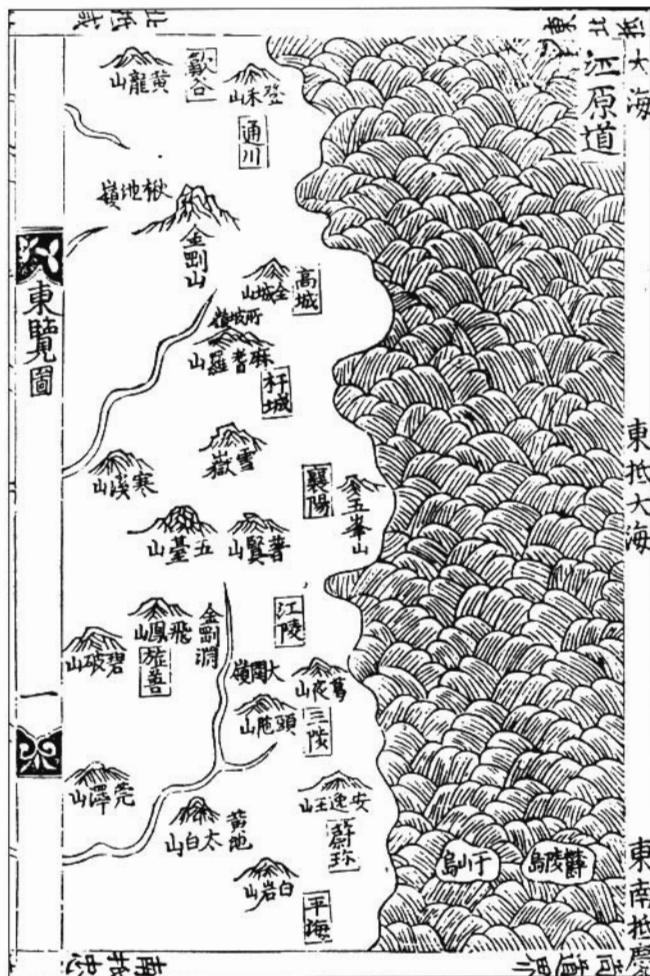
가능했다. 2년전부터 설악문화제연구단 연구위원으로 나를 참여시켜, 빌 때마다 자극을 주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다소나마 깊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어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살아온 삶이, 고향을 지척에 두고 평생을 보내신 실향민들의 가슴앓이가, 지역을 위해 헌신한 큰 보람으로 승화되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속초지역 문화의 체계화에 작은 힘을 계속 보탤 생각이다.

1997년 12월 24일 모솔연구실에서

속초시 옛지도와 그림

□ 속초시 옛지도와 그림



〈지도 1〉 동국여지승람(15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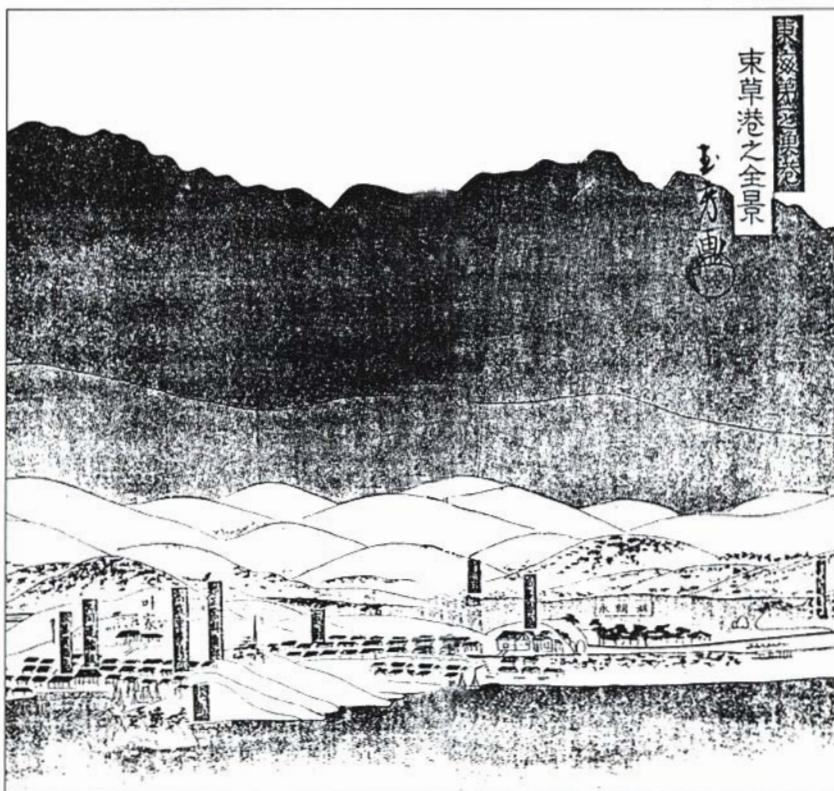
〈지도2〉 여지도서(17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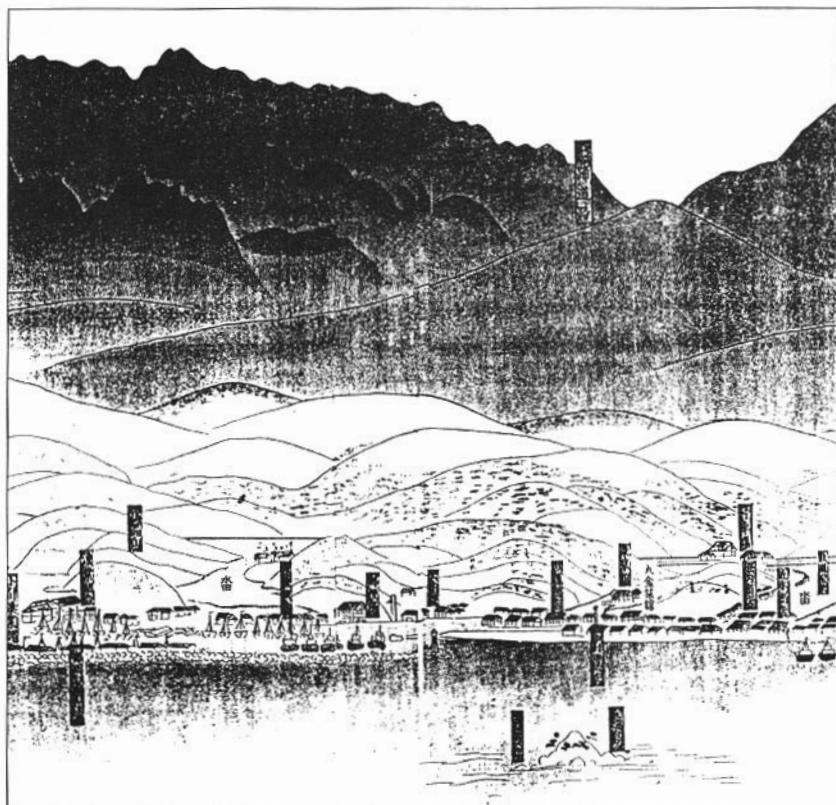
〈지도3〉 관동읍지(18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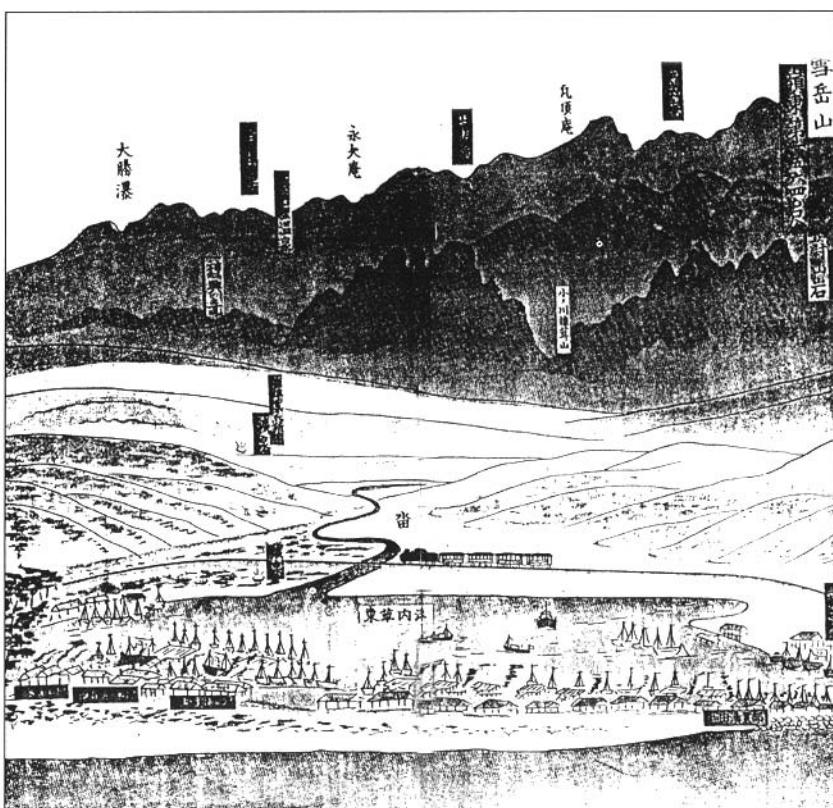
〈그림1〉 속초항 전경(1938년)



〈그림2〉 속초항 전경



〈그림3〉 속초항 전경



〈그림4〉 속초항 전경

속초시 어촌과 어로사진

□ 속초시 30년대~60년대 어촌



〈사진1〉 1938년 속초항 전경



〈사진2〉 1950년대 속초항 전경



〈사진3〉 1960년대 속초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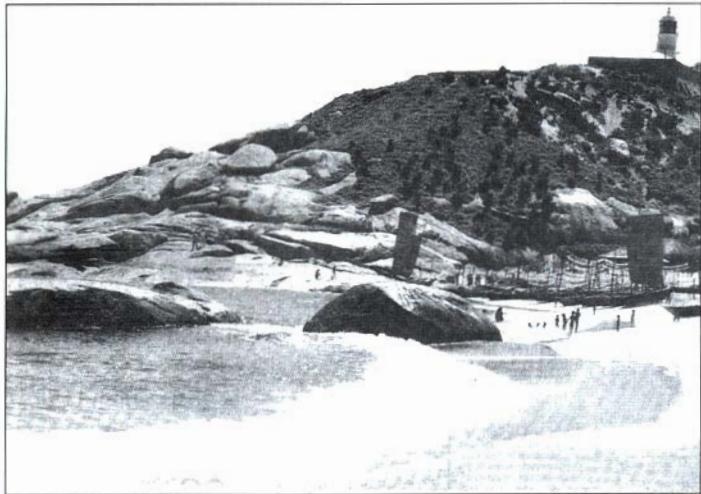
〈사진4〉 1950년대 청초항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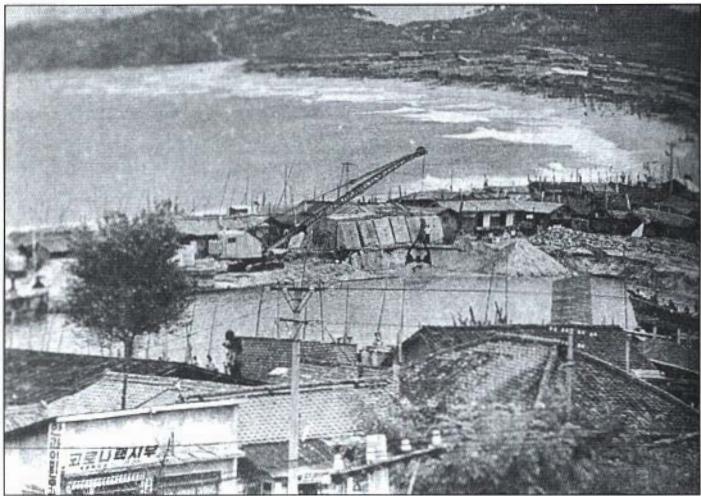
〈사진5〉 1950년대 대포항 전경



〈사진6〉 1960년대 동명항 전경



〈사진7〉 1950년대 영금정 등대와 풍선 전경



〈사진8〉 1960년대 속초항 수로확장 공사

□ 속초시 90년대 어촌사진



〈사진9〉 영랑동 전경



〈사진10〉 동명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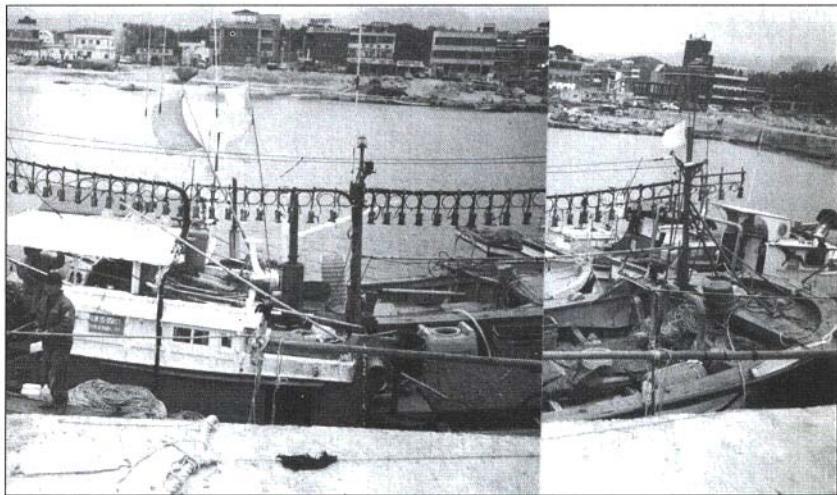
〈사진11〉 영금정 원경



〈사진12〉 장사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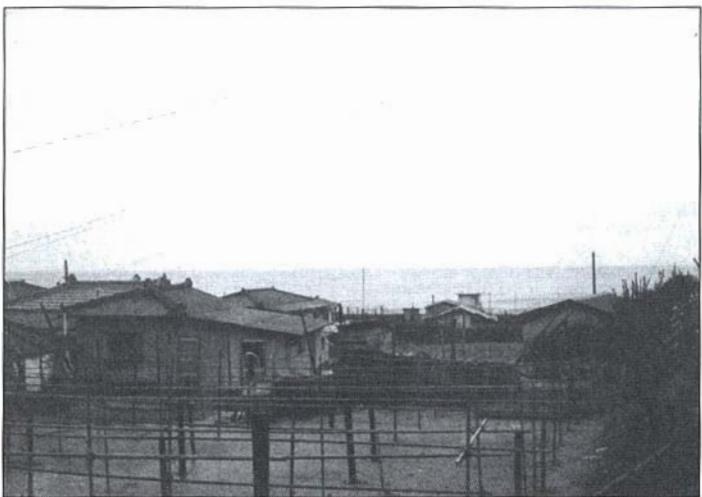
〈사진13〉 장사동 항구 전경



〈사진14〉 장사동 전경



〈사진15〉 조양동 방파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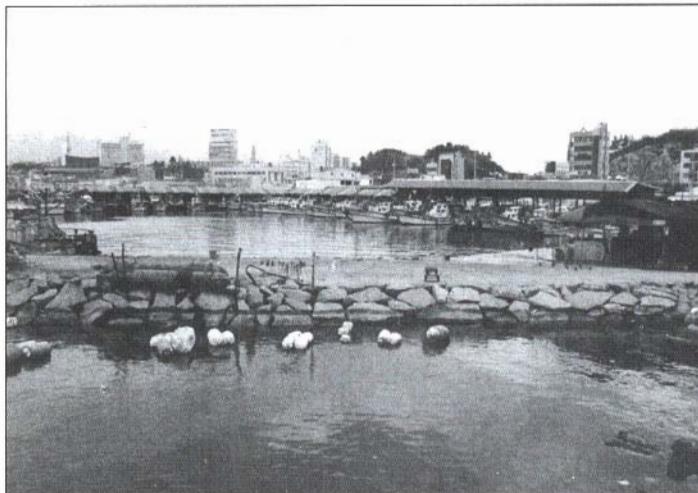
〈사진16〉 조양동 바닷가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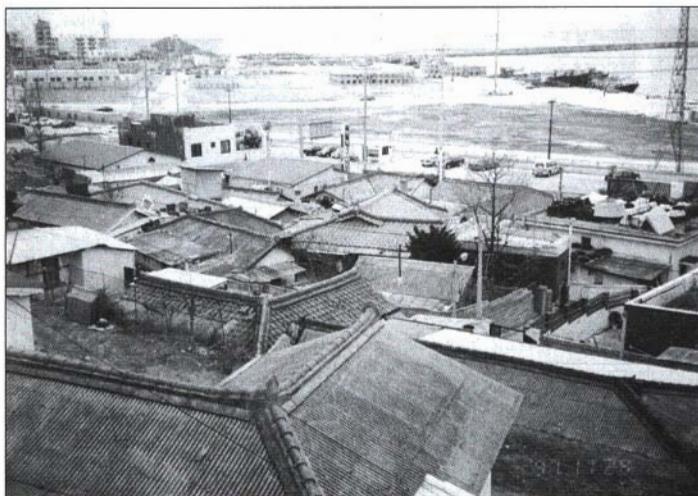
〈사진17〉 대포동 항구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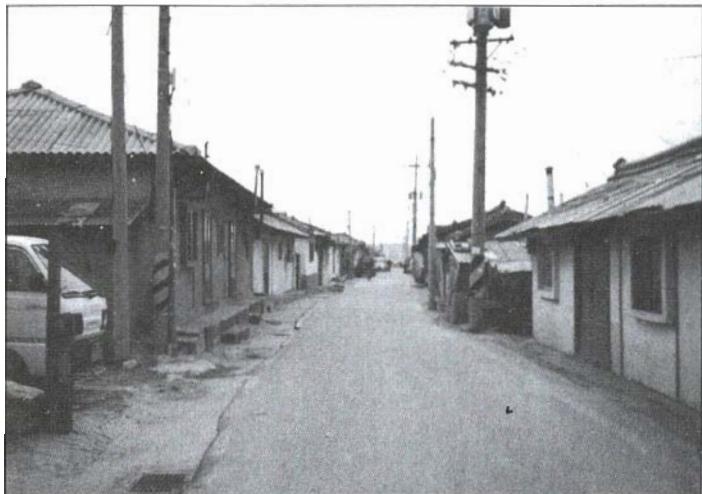
〈사진18〉 대포동 외옹치 항구 전경



〈사진19〉 동명동 항구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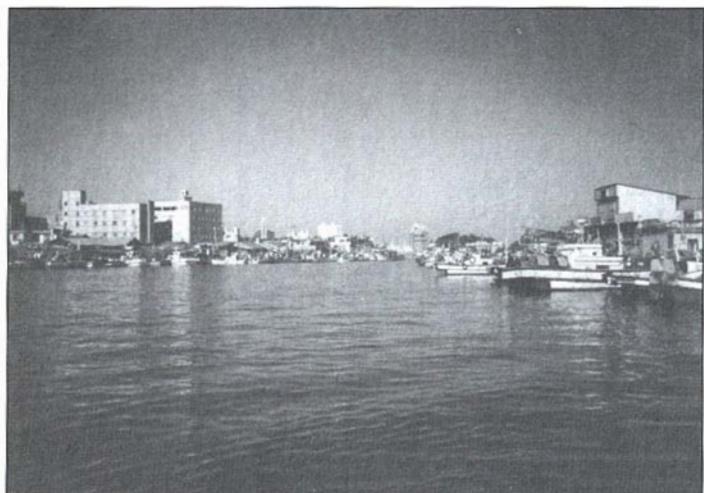
〈사진20〉 동명동 항구 앞마을



〈사진21〉 청호동 마을 전경



〈사진22〉 청호동 갯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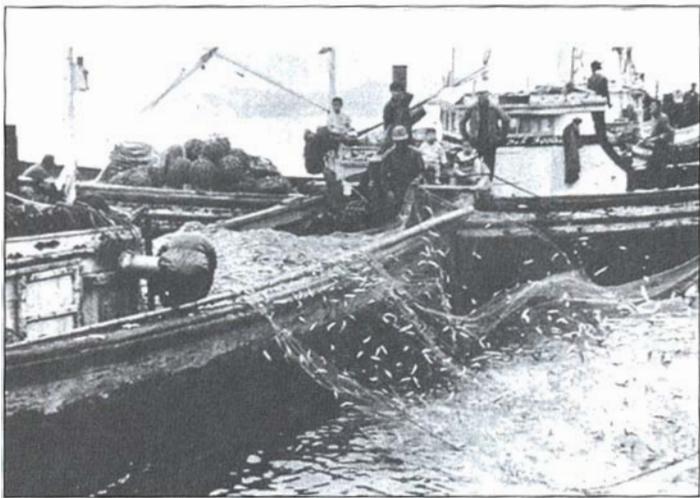


〈사진23〉 청호동 항구 전경



〈사진24〉 청학동 항구의 진수식 장면

□ 속초시 50~60년대 어로작업 사진



〈사진25〉 멸치잡이 광경



〈사진26〉 명태잡이 어선과 작업광경



〈사진27〉 오징어 할복 장면



〈사진28〉 오징어 할복 장면



〈사진29〉 오징어 건조 장면



〈사진30〉 미역 건조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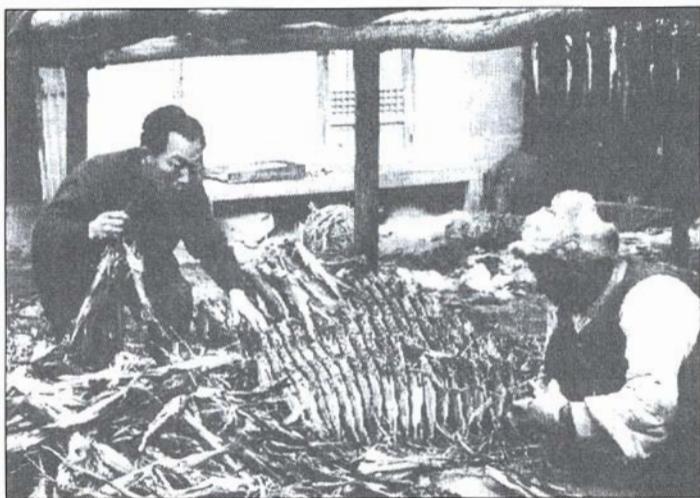
〈사진31〉 그물손질 장면



〈사진32〉 오징어 운반 장면



〈사진33〉 오징어 건조 장면



〈사진34〉 명태말려서 관태하는 장면



〈사진35〉 속초항 어판장 매매 모습



〈사진36〉 속초항 어판장 고기손질 모습

□ 속초시 90년대 어로작업 사진



〈사진37〉 동명항 활어 판매장



〈사진38〉 대포항 어판장



〈사진39〉 동명항에 귀항한 오징어배



〈사진40〉 동명항의 잠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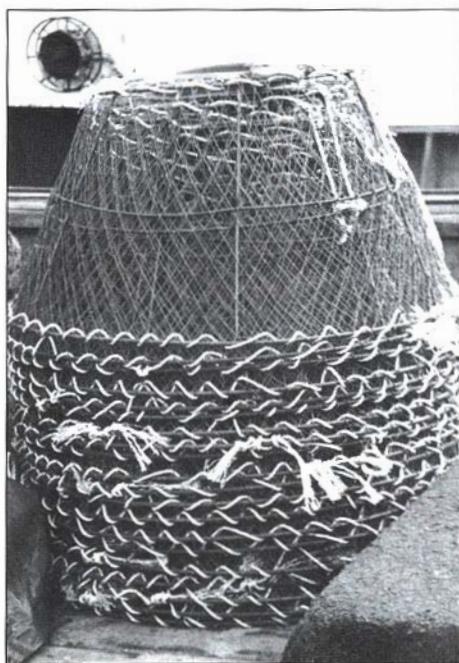
〈사진41〉 속초항 계통발 어선



〈사진42〉 속초항 계통발어선 미끼 운반



〈사진43〉 게통발어선 ‘동구돌’



〈사진44〉 게통발 그물 ‘드레’



〈사진45〉 장사동 배 건조및 진수식 장면



〈사진46〉 장사동 어촌의 그물 손질작업



〈사진47〉 대포항에 귀항한 오징어배



〈사진48〉 속초항 양미리 수획 장면

□ 속초시 어촌 제당 사진



〈사진49〉 영랑동 · 동명동 성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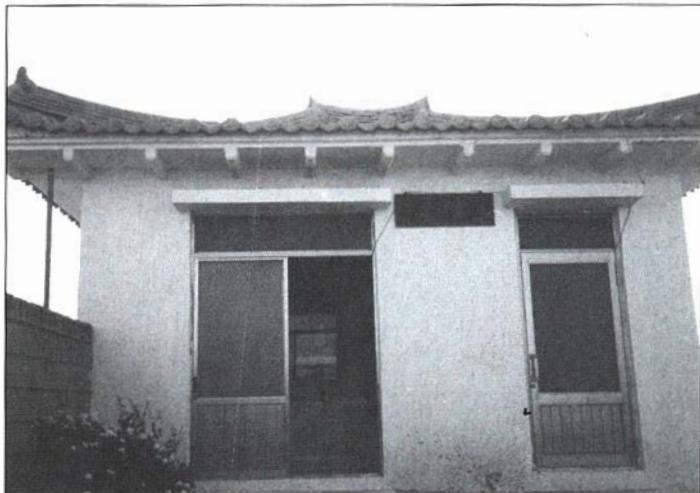
〈사진50〉 영랑동 · 동명동 성황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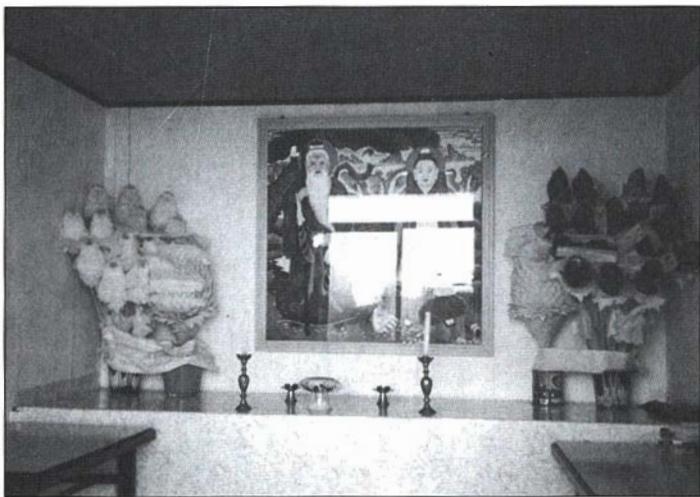
〈사진51〉 대포동 성황당



〈사진52〉 대포동 성황당 내부



〈사진53〉 청호동 성황당



〈사진54〉 청호동 성황당 내부



〈사진55〉 청학동 성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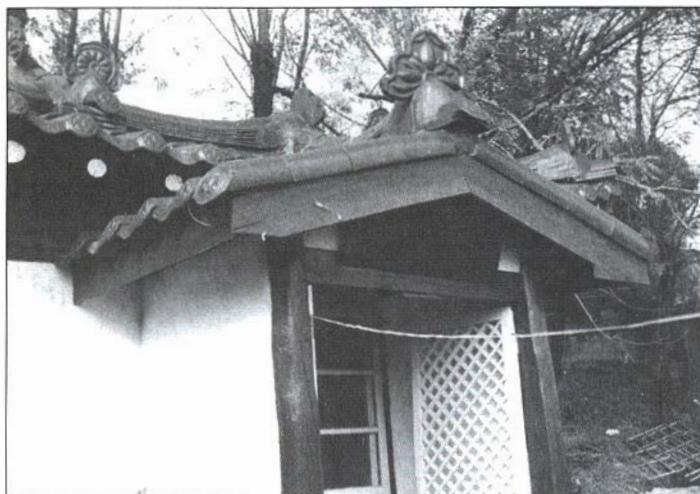
〈사진56〉 청학동 성황당 내부



〈사진57〉 대포동 대포리 성황당



〈사진58〉 장사동 성황당



〈사진59〉 중앙동 성황당



〈사진60〉 중앙동 성황당 내부



〈사진61〉 금호동 성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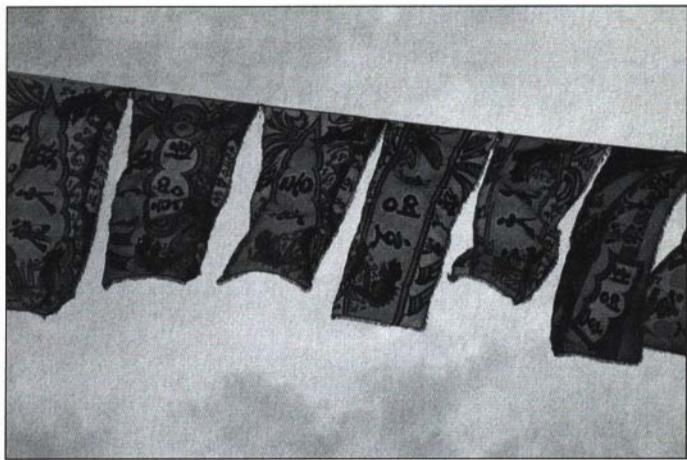
〈사진62〉 금호동 성황당 내부



〈사진63〉 대포동 외옹치리 장승과 솟대



〈사진64〉 외옹치리 지하대장군 장승



〈사진65〉 설악문화제 만선기 장식



〈사진66〉 설악문화제 오징어등

속초시 어로민속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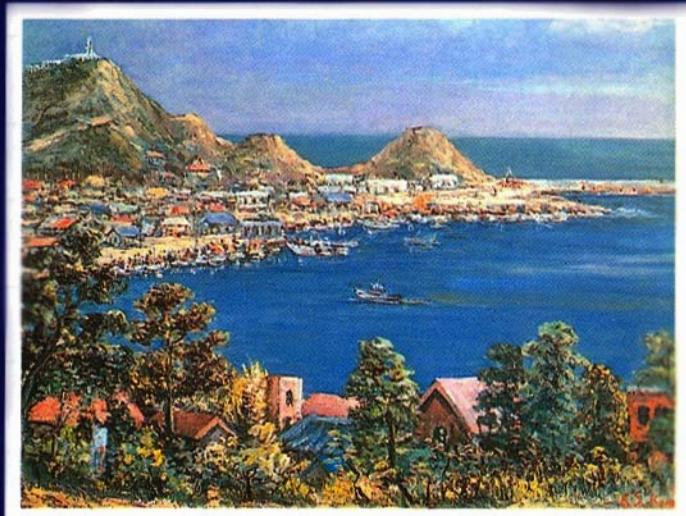
인쇄/1997년 12월 25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
저자/장정룡

펴낸이/최용문

펴낸곳/속초문화원

•
인쇄처/디자인 내일
0391-44-4141



김광수 화백 '속초항' (1983)